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Korean ECEC Panel Study)

배윤진·박은정·김자연·조경진·이혜민·강민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Korean ECEC Panel Study)

저 자

배윤진, 박은정, 김자연, 조경진, 이혜민, 강민권

연구진

연구책임자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 경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강 민 권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협력진 임 병 찬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29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Korean ECEC Panel Study)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81-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태아기부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초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경험과 환경적 영향 등 생애 초기 성장·발달과 관련한 횡단·종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1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의 틀을 갖추고,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여러 영향 요인을 파악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대상인 2008년생 아동 가구가 경험하였던 사회환경에 비해 현재는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새로운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이러한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출생한 영유아의 발달과 경험,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과 더불어, 어린이집 또는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영아와 그 가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패널 가구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변인 및 설문문항 구성, 영유아발달선별검사 실시와 결과 작성, 가중치 산출 등에 자문해주시고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6
4. 연구설계 및 범위	18
II. 2차년도(2023년) 사업	23
1. 2차년도 조사 절차 및 방법	25
2. 2차년도 조사내용	31
3. 제1회 학술대회 개최	42
4.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44
III. 1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	51
1. 조사 개요	53
2. 아동 특성	58
3. 부모 및 가구 특성	78
4.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133
5. 소결	156
IV. 시사점 및 추진 방안	163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의 특성 및 시사점	165
2. 향후 추진 방안	172
참고문헌	197
Abstract	199
부록	
부록 1. 1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머니 대상 조사	203
부록 2. 1차년도 조사 설문지: 아버지 대상 조사	222
부록 3. 1차년도 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235
부록 4. 1차년도 조사결과 부표	253



표 목차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17
〈표 I-3-2〉 원내 동료멘토링 개요	18
〈표 I-4-1〉 기초조사 참여자 현황	20
〈표 I-4-2〉 생후 1개월 및 1차년도 조사 참여자 현황	21
〈표 II-1-1〉 2차년도 조사 개관	27
〈표 II-1-2〉 조사원 교육 일정 및 내용	30
〈표 II-1-3〉 패널 가구 방문 일정 및 내용	30
〈표 II-1-4〉 조사원 간담회 일정 및 내용	30
〈표 II-2-1〉 2차년도 조사 영역: 아동 특성	32
〈표 II-2-2〉 K-DST 검사지의 월령 구간	34
〈표 II-2-3〉 2차년도 조사 영역: 부모 특성	36
〈표 II-2-4〉 2차년도 조사 영역: 가구 특성	38
〈표 II-2-5〉 2차년도 조사 영역: 기관 특성	39
〈표 II-2-6〉 2차년도 조사 영역: 지역 특성	41
〈표 II-2-7〉 2차년도 조사 영역: 정책 특성	41
〈표 II-4-1〉 변수명 부여 규칙 예시	45
〈표 II-4-2〉 조사 대상별 시작 변수 코드	45
〈표 II-4-3〉 변수명 예시	47
〈표 II-4-4〉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사용자 지침서 목차	48
〈표 III-1-1〉 1차년도 조사 영역 및 변인	54
〈표 III-1-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표 III-1-3〉 가구 특성	57
〈표 III-1-4〉 패널 아동 특성	58
〈표 III-2-1〉 수면환경(1)	59
〈표 III-2-2〉 수면환경(2)	60
〈표 III-2-3〉 수면시간: 낮잠 횟수	60
〈표 III-2-4〉 수면시간: 밤잠 시간	61
〈표 III-2-5〉 수면습관	61
〈표 III-2-6〉 배변/씻기 특성	62
〈표 III-2-7〉 신생아 검사 수행 여부 및 결과	63
〈표 III-2-8〉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여부 및 입원 일수	64

〈표 Ⅲ-2-9〉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사유	64
〈표 Ⅲ-2-10〉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64
〈표 Ⅲ-2-11〉 질환 진단 여부(1)	66
〈표 Ⅲ-2-12〉 질환 진단 여부(2)	67
〈표 Ⅲ-2-13〉 질환 진단 여부(3)	67
〈표 Ⅲ-2-14〉 평소 건강상태	68
〈표 Ⅲ-2-15〉 장애 여부	68
〈표 Ⅲ-2-16〉 예방접종	69
〈표 Ⅲ-2-17〉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70
〈표 Ⅲ-2-18〉 체중	71
〈표 Ⅲ-2-19〉 신장	71
〈표 Ⅲ-2-20〉 두위	72
〈표 Ⅲ-2-21〉 대근육운동 영역: 4-5개월 아동	72
〈표 Ⅲ-2-22〉 대근육운동 영역: 6-7개월 아동	73
〈표 Ⅲ-2-23〉 소근육운동 영역: 4-5개월 아동	73
〈표 Ⅲ-2-24〉 소근육운동 영역: 6-7개월 아동	74
〈표 Ⅲ-2-25〉 인지 영역: 4-5개월 아동	74
〈표 Ⅲ-2-26〉 인지 영역: 6-7개월 아동	74
〈표 Ⅲ-2-27〉 언어 영역: 4-5개월 아동	75
〈표 Ⅲ-2-28〉 언어 영역: 6-7개월 아동	75
〈표 Ⅲ-2-29〉 사회성 영역: 4-5개월 아동	76
〈표 Ⅲ-2-30〉 사회성 영역: 6-7개월 아동	76
〈표 Ⅲ-2-31〉 추가질문 결과(6-7개월용)	77
〈표 Ⅲ-2-32〉 영아 기질	78
〈표 Ⅲ-3-1〉 부모 장애 여부	79
〈표 Ⅲ-3-2〉 부모 흡연 여부	79
〈표 Ⅲ-3-3〉 음주 습관	80
〈표 Ⅲ-3-4〉 음주 습관: 음주량	80
〈표 Ⅲ-3-5〉 임신 중 부모 음주 여부	80
〈표 Ⅲ-3-6〉 스마트폰 과의존: 아버지	81
〈표 Ⅲ-3-7〉 스마트폰 과의존: 어머니	82
〈표 Ⅲ-3-8〉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 아버지	82
〈표 Ⅲ-3-9〉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 어머니	83

〈표 Ⅲ-3-10〉 부모의 그릿	85
〈표 Ⅲ-3-11〉 부모의 자아존중감	86
〈표 Ⅲ-3-12〉 아버지의 우울	87
〈표 Ⅲ-3-13〉 어머니의 우울	88
〈표 Ⅲ-3-14〉 부모의 결혼만족도	90
〈표 Ⅲ-3-15〉 부부갈등	91
〈표 Ⅲ-3-16〉 임신 기간 중 건강과 안정을 위해 활동 여부: 종합	92
〈표 Ⅲ-3-17〉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참여	93
〈표 Ⅲ-3-18〉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참여: 배우자 동반 여부	93
〈표 Ⅲ-3-19〉 출산 직전 임부 몸무게	95
〈표 Ⅲ-3-20〉 분만 형태	95
〈표 Ⅲ-3-21〉 산후조리원 및 모자동실 이용	96
〈표 Ⅲ-3-22〉 공공 산후도우미 이용 주수 및 만족도	97
〈표 Ⅲ-3-23〉 민간 산후도우미 이용 주수 및 만족도	98
〈표 Ⅲ-3-24〉 이상 자녀 수	99
〈표 Ⅲ-3-25〉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및 자녀 수	99
〈표 Ⅲ-3-26〉 후속 출산 계획 시기	100
〈표 Ⅲ-3-27〉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101
〈표 Ⅲ-3-28〉 후속 출산결정의 주 영향자	101
〈표 Ⅲ-3-29〉 (부모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 특성	102
〈표 Ⅲ-3-30〉 시간대별 주양육자	103
〈표 Ⅲ-3-31〉 주양육자별 돌봄 시간(1)	104
〈표 Ⅲ-3-32〉 주양육자별 돌봄 시간(2)	104
〈표 Ⅲ-3-33〉 보육·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발생 여부 및 월평균 비용	105
〈표 Ⅲ-3-34〉 부모 양육행동	106
〈표 Ⅲ-3-35〉 부모 양육 스트레스	106
〈표 Ⅲ-3-36〉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가치	107
〈표 Ⅲ-3-37〉 부모 양육 신념(1)	108
〈표 Ⅲ-3-38〉 부모 양육 신념(2)	109
〈표 Ⅲ-3-39〉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어머니 인식	109
〈표 Ⅲ-3-40〉 어머니: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110
〈표 Ⅲ-3-41〉 양육 지원자 유무 및 인원	110
〈표 Ⅲ-3-42〉 사회적 지원 정도	111

〈표 III-3-43〉 가정환경의 질	112
〈표 III-3-44〉 가정환경의 질: 하위영역	113
〈표 III-3-45〉 모유수유 계획 여부	113
〈표 III-3-46〉 모유수유 준비 내용	114
〈표 III-3-47〉 출산직후 모자 피부 접촉 여부	115
〈표 III-3-48〉 출산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 미수행 사유	115
〈표 III-3-49〉 개월별 수유 방법	116
〈표 III-3-50〉 모유수유 여부 및 하지 않는 경우 중단 시기	117
〈표 III-3-51〉 모유수유 중단 이유	118
〈표 III-3-52〉 부모 취업 상태	118
〈표 III-3-53〉 아버지·어머니의 출퇴근 소요시간	120
〈표 III-3-54〉 아버지·어머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여부 및 일수 ·	121
〈표 III-3-55〉 아버지의 월평균 근로소득	121
〈표 III-3-56〉 어머니의 월평균 근로소득	122
〈표 III-3-57〉 가구 형태	123
〈표 III-3-58〉 가구원 수	123
〈표 III-3-59〉 부모-자녀 동거 여부	123
〈표 III-3-60〉 부모-자녀 비동거 사유	124
〈표 III-3-61〉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및 귀화 여부	124
〈표 III-3-62〉 다문화 가구 부모의 국적	124
〈표 III-3-63〉 다문화 가구 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125
〈표 III-3-64〉 다문화 부모의 언어 구사 수준	125
〈표 III-3-65〉 월평균 가구소득	126
〈표 III-3-66〉 가구 부채액	126
〈표 III-3-67〉 월평균 가구 총 지출	127
〈표 III-3-68〉 월평균 가구 지출	127
〈표 III-3-6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여부	128
〈표 III-3-7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28
〈표 III-3-71〉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시기(연도)	131
〈표 III-3-72〉 현거주지 거주 이유	131
〈표 III-3-73〉 주거 면적(m ²)	132
〈표 III-3-74〉 주거지 방 개수	132
〈표 III-3-75〉 아동 개인 방 여부	132

〈표 III-3-76〉 반려동물 여부	132
〈표 III-4-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1)	134
〈표 III-4-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2)	134
〈표 III-4-3〉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135
〈표 III-4-4〉 유치원·어린이집·기타 기관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136
〈표 III-4-5〉 육아지원정책 방향 1순위 응답	137
〈표 III-4-6〉 영아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	138
〈표 III-4-7〉 육아지원제도(현금)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종합	139
〈표 III-4-8〉 육아지원제도(현금) 이용 만족도(1)	139
〈표 III-4-9〉 육아지원제도(현금) 이용 만족도(2)	140
〈표 III-4-10〉 육아지원제도(현금) 중요도(1)	141
〈표 III-4-11〉 육아지원제도(현금) 중요도(2)	142
〈표 III-4-12〉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종합	143
〈표 III-4-13〉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만족도(1)	143
〈표 III-4-14〉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만족도(2)	144
〈표 III-4-15〉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중요도(1)	145
〈표 III-4-16〉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중요도(2)	146
〈표 III-4-17〉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종합	147
〈표 III-4-18〉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육아휴직	148
〈표 III-4-19〉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9
〈표 III-4-20〉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150
〈표 III-4-21〉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가족돌봄휴가	151
〈표 III-4-22〉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시차출퇴근제	152
〈표 III-4-23〉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선택근무제	153
〈표 III-4-24〉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재택근무제	154
〈표 III-4-25〉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원격근무제	155
〈표 IV-1-1〉 한국아동패널과의 비교: 아동 특성	165
〈표 IV-1-2〉 한국아동패널과의 비교: 부모 특성	166
〈표 IV-1-3〉 한국아동패널과의 비교: 가구 특성	168
〈표 IV-2-1〉 아동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177
〈표 IV-2-2〉 부모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181
〈표 IV-2-3〉 가구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186
〈표 IV-2-4〉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188

〈표 IV-2-5〉 지역사회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192
〈표 IV-2-6〉 정책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193
〈부표 1〉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호흡기 질환	253
〈부표 2〉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신경계통 질환	253
〈부표 3〉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순환계통 질환	254
〈부표 4〉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소화계통 질환	254
〈부표 5〉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피부 질환	255
〈부표 6〉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비뇨생식계통 질환	255
〈부표 7〉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사고로 인한 손상	255
〈부표 8〉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약제나 유해 물질 중독	256
〈부표 9〉 부모의 최근 7일 내 간접흡연 여부	256



그림 목차

[그림 I-4-1] 표본설계 단계	19
[그림 I-4-2] 모집단 및 표본 크기	19
[그림 I-4-3] 2021-2022년도 조사 참여자 현황	21
[그림 I-4-4] 연구목적 및 내용·방법	22
[그림 II-1-1] 2차년도 조사 절차	25
[그림 II-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조사 영역	31
[그림 II-3-1] 제1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 일정표	43
[그림 II-4-1] 키 변수를 활용한 데이터 세트 간 결합	47
[그림 II-4-2] 첫돌 기념 선물	49
[그림 II-4-3] K-DST 검사 결과 보고서 확인용 페이지	50
[그림 III-1-1] 1차년도(2022년) 조사 절차	53
[그림 III-2-1] 질환별 의료기관·응급실 방문 비율	65
[그림 III-2-2] 질환별 진단 비율	66
[그림 III-2-3] 4~5개월 아동 K-DST 검사 결과: 양호 수준 비율	77
[그림 III-2-4] 6~7개월 아동 K-DST 검사 결과: 양호 수준 비율	77
[그림 III-3-1]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84
[그림 III-3-2] 아동의 주양육자	102
[그림 III-3-3] 시간대별 주양육자	103
[그림 III-3-4] 보육·육아지원서비스 월평균 비용	105
[그림 III-3-5] 출산 후 모유수유 시점	115
[그림 III-3-6] 개월별 수유 방법	116
[그림 III-3-7] 아버지·어머니의 직업 분류	119
[그림 III-3-8] 아버지·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119
[그림 III-3-9] 아버지·어머니의 근무시간	120
[그림 III-3-1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29
[그림 III-3-11] 거주지역 유형	129
[그림 III-3-12] 주거 유형	130
[그림 III-3-13] 주택 점유 형태	130
[그림 III-4-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133
[그림 III-4-2] 육아지원제도(현금, 현물/바우처, 시간) 만족도 및 중요도	155
[그림 IV-2-1] 향후 추진 방향	174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태아기부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초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경험과 환경적 영향 등 생애 초기 성장·발달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 영유아의 발달을 추적해 가는 종단연구는 발달의 안정성, 개인차의 이유, 환경의 역할 등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생애초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그 가치가 있음(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 2009: 1).
 - 올해 2023년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2차년도 조사를 실시하는 해로서 1차년도(2022년) 조사에 이어 영유아의 발달 및 영유아를 둘러싼 여러 변인에 대한 첫 종단자료를 확보하게 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세 영아의 발달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보육 및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정책 특성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 이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및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종단자료가 구축을 통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의 틀을 갖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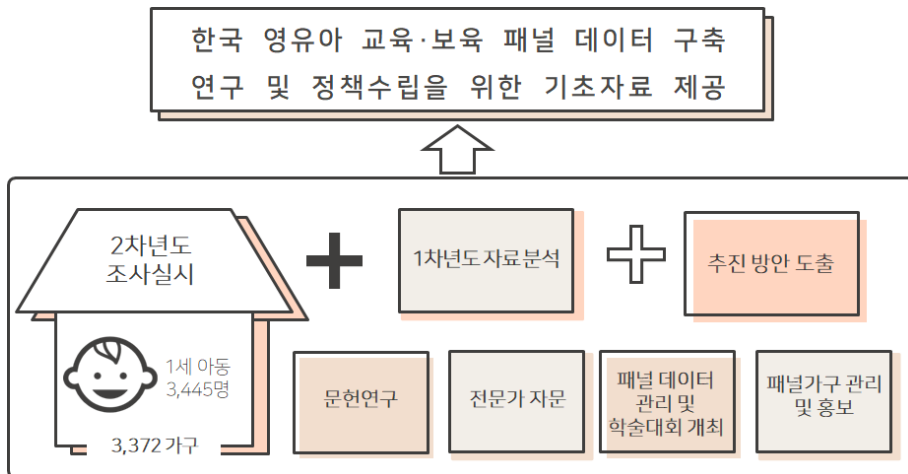
- 연구내용
 - 2차년도 조사 실시
 - 1차년도 자료 분석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 패널 관리 및 홍보
- 시사점 및 추진 방안 도출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조사 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그림 1] 연구목적 및 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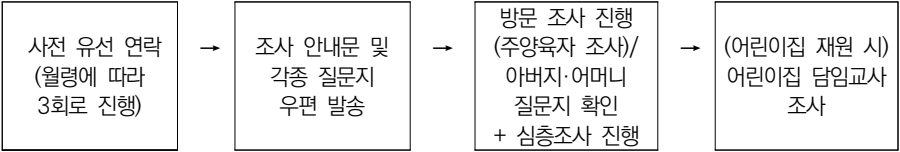


2. 2차년도(2023년) 사업

가. 2차년도 조사 절차 및 방법

- 2023년도에 실시하는 2차년도 조사는 2022년 1~8월에 출생한 현재 1세 패널 3,445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함.
- 2차년도 조사의 절차는 [그림 2]와 같음.

[그림 2] 2차년도 조사 절차



- 조사는 어머니/아버지 조사, 주양육자 조사, 기관조사로 구성되며, 각각 우편/온라인 조사, 가구방문면접조사,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짐.
- 심층조사는 주양육자 조사 시 병행하여 실시함.

〈표 1〉 2차년도 조사 개관

조사종류		조사내용	조사방법	비고
어머니 조사		모유수유 경험 및 실태, 임신 중 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인구학적 특성, 근로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양육 특성, 부모건강, 소득, 육아지원 정책 등	우편/온라인 조사	
아버지 조사		가족력, 인구학적 특성, 근로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양육 특성, 부모건강, 소득, 육아지원 정책 등	우편/온라인 조사	
주양육자 조사	본조사	아동의 일상생활/건강/발달 특성, 양육 환경, 가구의 경제적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환경, 육아지원 정책 이용 및 만족도	우편/면접 조사	400가구만 해당
	심층조사	아동의 언어발달, 생활시간 실태조사, 부모-자녀 상호작용		
기관 조사		기관 특성, 교사 특성, 기관의 운영 및 질, 부모 참여, 기관 내 아동 활동 특성	온라인 조사	패널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만 해당

나. 2차년도 조사내용

- 2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을 포함함.
- 아동 특성으로는 일상생활, 건강, 신체발달, 인지 및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특성을 조사함.
 - 부모 특성은 개인 및 부부 특성, 부모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 양육지

원, 부모건강으로 구성함.

- 가구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물리적 환경 특성 등을 조사함.
-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은 주양육자 및 패널 영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교사를 통해 조사하며, 내용으로는 학급(반) 특성, 교사 특성, 기관 특성과 운영의 질, 교육·보육과정, 부모참여, 그리고 기관 외 사교육 특성을 포함함.
- 지역사회 특성으로는 가구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함.
- 정책 특성으로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현금 지원, 현물/바우처 지원,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구성함.

다. 학술대회 개최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함.

- 학술대회에서는 기초강연을 통해 영유아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였음.
-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기초조사 및 생후 1개월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논의하였음.

라.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 기초조사 및 1차년도 조사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구성
- 변수명 부여 규칙 생성
- 사용자 지침서 개발

□ 패널 유지 관리

- 각 조사별 사례비 지급
- 기념일 선물 및 경품 이벤트 제공
- 리플렛 및 홈페이지 홍보
-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전달

3. 1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

가. 아동 특성

- 대부분 아동은 하루 중 2~3회의 낮잠을 자고 있으며, 밤잠은 절반 이상의 아동이 9시간에서 11시간 수면을 취하고, 대부분 8~12시간 정도 밤잠을 잠.
- 대부분 가구에서 신생아 관련 검사를 수행하였고 시기별 예방접종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출산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예방적 접근은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아동의 평균 체중은 8.35kg, 평균 신장은 68.12cm이었으며, 평균 두위는 42.77cm이었음.
 - K-DST 검사 결과 5개의 발달 영역에서 80~90% 이상의 아동이 양호한 발달 수준을 보임.

나. 부모 및 가구 특성

1) 건강 특성

-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있어 아버지의 경우 10.4%가 잠재적 위험군, 2.5%가 고위험군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12.6%가 잠재적 위험군, 3.7%가 고위험군에 속하였음.
 - 스마트폰 과의존은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초기 양육시기에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용과 수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2) 심리적 특성

- 25세 미만의 부모의 경우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25세 미만의 아버지는 다른 연령대 아버지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정도는 높았으며, 25세 미만 어머니는 다른 연령대 어머니에 비해 그릿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정도가 높았음.
 - 부부갈등에 대한 인식도 아버지, 어머니 모두 25세 미만에서 가장 높음.

- 어머니의 경우에 취업 여부에 따라 심리적 및 관계적 특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취업/미취학인 경력 단절 여성의 심리적·관계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줌.

3) 임신 및 출산

- 임신 중 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를 조사한 결과 특히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과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 및 예방’에 관해서는 주로 인터넷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비중이 높음.
- 패널 아동의 출산 시 분만형태는 계획된 제왕절개가 40.5%, 자연분만이 39.3%,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가 20.1%이었음.
- 산후조리원 이용 86.2%로 대부분 이용하여 보편적인 절차로 여겨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어머니의 경우, 모자동실 이용은 67.4%로 아동의 출생 순위, 어머니 연령,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산후조리 기간은 출생모와 아동의 초기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산후조리원 이용 시 모자동실의 이용을 확대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부분(70.1%)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2명이며, 후속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어머니는 전체의 32.6%임.
- 후속 출산 계획 여부는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후속 출산 계획이 없는 어머니들의 주요 사유로는 육체적으로 힘들,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어머니 연령이 높음 등이었음.

4) 양육 특성

- 아동의 양육은 거의 모든 가구에서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있음.
- 그렇지만 하루 중 저녁시간대에는 아버지가 돌봄을 담당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짐.
-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 비율은 평균 7.6:2.4이었으며, 가사 분담 비율은

평균 6.8:3.2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배 이상 양육과 가사에 기여하고 있음.

-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패널 아동이 첫째보다는 둘째 이상인 경우 더 높았으며, 특히 맞벌이가 아니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음.
- 부모는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자질과 특성으로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중요하게 꼽음.
- 출산 전 모유수유를 계획한 어머니는 24.9%에 불과하였으며, 31% 정도만이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행함.
 - 생후 7개월부터는 모유수유 비율이 10% 이내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0세 아동의 양육에 있어 모유보다는 분유수유를 더 많이 행하고 있음.

5) 부모 근로 특성

- 아버지의 취업률은 96.1%, 어머니의 취업률은 52.0%임.
 -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길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만원 정도 더 많음.

6) 가구 특성

- 다문화 어머니가 다문화 아버지에 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패널 가구의 소득수준은 3인 가구 중위소득 80~120% 수준에 많이 분포함.

다.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1) 지역사회 환경

-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안전, 청결, 인프라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하였음.

2) 정책 특성

- ☐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아버지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원한 반면, 어머니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더 높음.
- ☐ 현금 지원 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는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이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영아수당이었음.
- ☐ 현물/바우처 지원 정책 중 첫만남 이용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제도의 중요도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
- ☐ 시간지원정책의 이용률은 아버지는 약 18% 이하, 어머니는 약 46% 이하로 다른 유형의 지원 정책에 비해 이용 정도가 낮음.
 -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아휴직 이용 비율 격차가 가시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17.5%, 어머니의 이용 비율은 45.1%임.
 -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재택근무제도의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임.

4. 시사점 및 추진 방안

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의 특성 및 시사점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한국아동패널

- ☐ 영아 가구 구성원인 영아들의 출생순위 비율의 변화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첫째의 비율이 과반으로 한국아동패널보다 높음.
 - 가구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가 증가하였고, 4명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는 줄어들어서 자녀 수의 감소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 부모 연령의 변화: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약 2.2세,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약 1.8세 증가함.
- ☐ 부모 학력의 변화
 - 한국아동패널에서도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과

반을 넘지 않았는데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는 50% 이상이 대학교 졸업임.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그렇지 않음.

☐ 어머니 취업 비율의 증가

- 한국아동패널에서 어머니의 취업 비율은 31.4%에 불과하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취업 중인 어머니가 50.9%로, 여성 취업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인식 변화

-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을 반영하듯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 이상 자녀 수를 2명이나 1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3명 이상인 비율은 크게 감소함.

☐ 종교 유무, 음주량, 거주 형태 등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생활행태의 변화

2) 조사 관련 시사점

☐ 패널 부모 세대(MZ 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조사 방식(온라인 등) 설계

☐ 조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 패널 아동에 관한 관심 표현 및 육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패널 가구와 조사원 간 라포 형성

3) 1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임신기 지원 강화

☐ 후속 출산을 위한 양육의 육체적 힘들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해소

☐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확대

☐ 육아시간지원 정책 강화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 부모의 심리 건강 지원

나. 향후 추진 방안

1) 주요 방향

- ☐ 조사내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
- ☐ 연속성 내에서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입학시기별 주요 내용을 포함
- ☐ 심층조사와 면담조사 실시
 - 심층조사는 올해 1차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함으로써 패널 연구 기간 동안 총 3회 실시하여 심층조사만의 종단 데이터를 구축함.
 - 주요 정책 이슈나 현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탐색해볼 수 있는 주제로 영유아 부모의 의견을 담은 면담을 실시함.
- ☐ 다문화 가구와 저소득 가구 추가 표집으로 본 패널의 차별성 유지
- ☐ 새로운 3세 유아 코호트 추가 계획 반영
- ☐ 행정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석 시도

2) 중장기 조사 계획

- ☐ 2030년까지의 조사 계획안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 영역별로 제시함.
 -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주제를 고려함.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 특성 변인을 순차적으로 변경·추가하여서 아동 발달에 대하여 충분히 측정함.
 - 양육이나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는 부모 개인 특성을 추가 조사하며, 양육 특성에서는 양육의 태도, 정서, 행동 측면의 변인은 지속적으로 조사함.
 -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은 영아기에 이어서 계속 측정하는 변인과 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 후에 변경·추가하여 측정하는 변인으로 구분하며, 조사 시점의 교육·보육에 대한 이슈가 포함되어야 함.
 - 가구, 지역사회, 정책 특성의 조사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육아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에 대해 항목을 추가하고 면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음.
 - 부가조사를 통해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룸.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설계 및 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태아기부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초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경험과 환경적 영향 등 생애 초기 성장·발달과 관련한 횡단·종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의 연구에서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표본을 설계하고 패널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기획함으로써 향후 10년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1년 임부 모집 시 이루어진 기초조사 I을 시작으로, 기초조사 II가 2022년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후 이정림·배윤진·김자연·송신영·조경진·장현진·이기재(2022)의 연구에서 영아 생후 1개월 조사와 생후 4개월 조사(1차년도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영유아의 발달을 추적해 가는 종단연구는 발달의 안정성, 개인차의 이유, 환경의 역할 등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생애초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그 가치가 있다(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 2009: 1). 그리고 종단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과 환경의 영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수립의 방향성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조사를 이어갈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다양한 연구를 파생시키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생산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책 등 여러 영역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아동패널(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의 대상인 2008년 출생아가 경험하였던 사회환경에 비해 본 패널 연구의 시점인 현재는 다양한 교육·보육 정책이 세워져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아동

수당 등의 새로운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0세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¹⁾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이러한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올해 2023년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2차년도 조사를 실시하는 해로서 1차년도(2022년) 조사에 이어 영유아의 발달 및 영유아를 둘러싼 여러 변인에 대한 첫 종단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본 패널 연구를 통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출생한 영유아의 발달과 경험,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과 더불어, 올해는 조사 대상 영아가 1세가 되어 어린이집 또는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거나 그 이용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영유아의 발달 양상과 환경의 영향에 관한 심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추후 종단·횡단 자료 분석을 통해 2022년도에 출생한 영유아 가구의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세 영아의 발달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보육 및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정책 특성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이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및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기초조사 및 1차년도 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더하여 종단자료가 구축되므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의 틀을 갖춘다.

2. 연구내용

가. 2차년도 조사 실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의 구축을 위해 2차년도 조사를 실시한다. 패널 영아의 발달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보육기관 및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을 조사한다. 또한 1차 심층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에 관한 자료를 추가 수집한다.

1)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2023. 3. 6. 인출).

나. 1차년도 자료 분석

1차년도(2022년)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먼저 2022년도에 실시한 1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다.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패널 연구의 홍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조사 I, II (2021-2022년도 실시), 생후 1개월 조사 및 1차년도 조사(2022년도 실시) 자료의 공개를 위해 준비하였다. 클리닝을 마친 데이터를 SPSS, SAS, STATA, EXCEL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사용자 지침서, 코딩북, 도구프로파일을 개발한다.

또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패널 연구를 대중에게 알리고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라. 패널 관리 및 홍보

2030년까지 동일한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생일선물 및 명절선물 제공, 아동발달검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패널 가구를 관리한다. 또한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공개될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및 패널 가구에 게 본 연구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마. 시사점 및 추진 방안 도출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와 한국아동패널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시점에서 향후 조사 방향과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조사 질문지 개발 및 중장기 조사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기관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과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특히 1세 영아 및 부모,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측정도구들을 검토하여 1세 영아의 발달 및 영아가구에 적합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나. 조사 연구²⁾

1) 일반조사

가구 방문 면접조사, 부모 대상 우편물(온라인) 조사, 영아가 재원 중인 기관(어린이집)의 교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첫째,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영아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태블릿 기반 면접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실시한다.

둘째, 부모 대상 조사는 먼저 우편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영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며, 요구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병행한다.

셋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인 경우, 가구 방문 시 어린이집 정보를 얻은 뒤 해당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심층조사

영아의 발달이나 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주요 변인을 전체 패널 가구 중 400가구를 대상으로 주양육자 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400가구는 전체 패널 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우편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자가 먼저 질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였을 때 서면으로 응답한 질문지를 수거하거나 TAPI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2) 상세한 내용은 II장에서 제시하였음.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첫째, 조사내용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조사 영역 및 변인을 검토하였다. 특히 1세 영아 가구 대상 신규·지속 조사 변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층조사 변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학계·현장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또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조사 방향을 추가 검토하였다.

둘째, 아동발달 검사도구 사용 및 검사 결과 활용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였으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전문가 1인을 연구협력진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학술대회 발표 주제 선정에 대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가와 논의하였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차수	일자	대상	주제	주요 내용
1차	3.16(목)	학계전문가 2인	학술대회 논의	-학술대회 주제 등 논의 -산부인과 및 소아과 관련 학회 협력 방안
2차	3.31(금)	학계전문가 1인, 현장전문가 1인	측정도구 검토	-아동 일상생활, 사회·정서발달, 언어발달 측 정도구 검토
3차	4.24(월)	학계전문가 2인	아동 변수 논의	-아동 미디어 이용 관련 조사방법/내용 검토 -애착, 언어발달, 정신건강 관련 변수 검토
4차	4.27(목) ~5.3(수)	학계전문가 5인	설문 및 프로토콜 검토	-기관조사 변인, 아동 발달 특성, 정책 특성, 다문화 가구 특성 등 설문 문항 검토
5차	5.15(월)	학계전문가 1인	심층조사 표집 논의	-심층조사 패널 표집 방안 및 조사방법 논의
6차	5.18(목)~ 5.22(월)	학계전문가 1인, 현장전문가 1인	측정도구 검토	-다문화 가구 대상 측정도구 및 일반적인 심 리검사도구 검토
7차	5.9(화)~ 5.30(화)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설문 문항 검토	-어린이집 조사 관련 설문 문항 검토
8차	6.9(금)	학계전문가 1인	아동 발달 변수 논의	-K-DST 사용 및 해석 방안 논의 -산부인과 및 소아과 관련 학회 협력 방안
9차	7.4(화)	학계전문가 1인	연구 진행 논의	-K-DST 해석 방안 논의 -다학제적 전문가 협력 방안
10차	11.27(월) ~12.1(금)	학계전문가 8인, 교육부 정책담당자	중장기 조사 계획 검토	-아동, 부모, 가구, 보육·교육,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등 조사 변인 검토
11차	12.12(화)	학계전문가 3인	아동 발달 변수 논의	-아동 발달, 건강 관련 조사방법/내용 검토

〈표 I-3-2〉 원내 동료멘토링 개요

차수	일자	대상	주제	주요 내용
1차	3.21(화)	원내 연구진 2인	아동 변수 논의	-보육 및 교육기관 대상 조사 관련 변인 논의
2차	5.4(목)	원내 연구진 5인	설문 및 프로토콜 검토	-2차년도 설문지 검토

원내 동료멘토링을 통해 주요 안건을 토의하였으며, 정책연구실무협의회(2023. 9. 11.)를 개최하여 본 연구를 소개하고 향후 조사에서 정책 이슈를 담기 위해 논의하였다.

4. 연구설계 및 범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표본과 올해의 조사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2021년도에 수행된 표본설계 및 패널 구축에 관한 개요와 2021~2022년도에 모집된 임부 현황과 기초/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범위로서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겠다.

가. 표본설계 개요³⁾

2021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표본설계는 [그림 I-4-1]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당시 최신 인구 총조사 결과인 통계청의 2019년도 출생·사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파악하고, 분만 건수가 있는 의료기관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였다. 목표 표집 표본크기는 3,300~3,500명이었으며, 층화 2단계 집락추출법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표본설계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임부를 모집한 결과, 3,372가구⁴⁾가 최종 표집 되었으며, 쌍생아를 포함하여 3,445명의 패널 아동이 본 패널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2022년도 출생아 수가 249,000명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의 1.38%가 패널 연구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I-4-2 참조). 한편 3,372가구 중에서 다문화 가구는 94가구, 저소득 가구는 72가구로 집계되었다.

3) '이정림 외(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육아정책연구소 pp. 43-52'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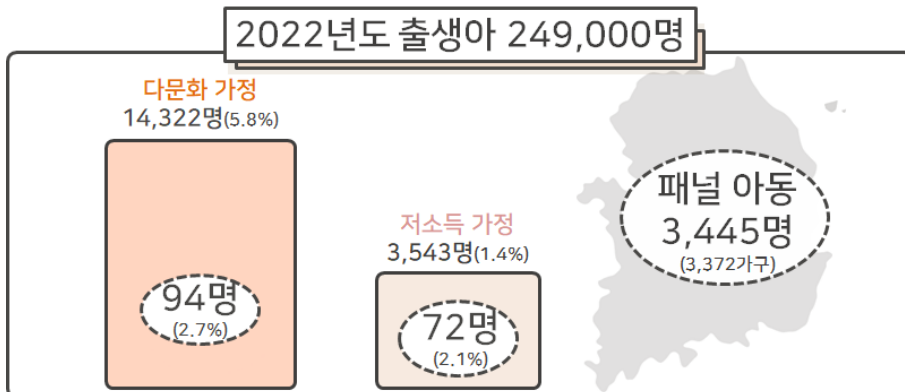
4) 3,454명의 임부를 모집하였으나 2021년 출산, 유산 등으로 82명의 임부는 최종 현황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I-4-1] 표본설계 단계

단계	주요 내용
↓	
최신 인구 총조사를 활용한 모집단 파악	통계청에서 2021년에 공표한 2019년도 출생·사망 통계 자료 활용 - 2019년 기준 출생아는 총 302,676명이었음. - 다문화 가구 출생아 수는 전체의 5.9%, 차상위 이하 가구는 전체의 1.7%이었음.
↓	
추출단위 및 표본추출 틀 확정	추출단위: 산부인과 병원 표본추출 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산부인과 요양기관 명부 - 분만 건수가 있는 의료기관 531개(전국 17개 시도 → 6개 권역)
↓	
표본 크기 설정	목표 표집 표본크기: 3,300~3,500명 - 다문화 및 저소득층 가구는 권역별 비례배분법 적용
↓	
층화 및 추출	층화 2단계 집락추출법 적용 - 1단계: 의료기관 추출(계통추출법 적용) - 2단계: 표본 의료기관에서 표본 신생아 선정
↓	
가중치 산출 및 모수 추정법 마련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 불균등 확률추출 등이 사용된 복합표본설계 →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통합하여 산출

자료: '이정림 외(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육아정책연구소. pp. 43~52'의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그림 I-4-2] 모집단 및 표본 크기



주: 2022년도 출생아 대비 패널 아동 수는 1.38%임.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가정은 5.8%, 저소득가정은 1.4%이며, 전체 패널 아동 중에서 다문화 가정은 2.7%, 저소득 가정은 2.1%임.

자료 1) 전국 출생아 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3 (2023. 6. 29. 인출)

2)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 통계청 보도자료(2022. 11. 3.). 2021년 다문화 인구통계 통계.

3) 저소득가정 출생아 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나. 2021~2022년도 조사 참여자 현황

임부 모집 당시에 전체 임부 대상으로 기초조사 I 이 실시되었으며, 임신 후반부에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기초조사 II가 수행되었다. 기초조사 II에 참여한 임부의 수는 3,125명으로 표집한 전체 임부 기준 92.7%이었으며, 다문화 가구 77명(81.9%), 저소득 가구 67명(93.1%)을 포함한다.

〈표 I-4-1〉 기초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권역	기초조사 I 참여자			기초조사 II 참여자		
	전체 가구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	전체 가구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
서울	517(15.3)	21(4.1)	11(2.1)	497(96.1)	20(95.2)	11(100.0)
경기/인천	1,034(30.7)	28(2.7)	19(1.8)	977(94.5)	21(75.0)	19(100.0)
대전/세종/충청/강원	365(10.8)	9(2.5)	3(0.8)	328(89.9)	5(55.6)	3(100.0)
대구/경북	409(12.1)	5(1.2)	20(4.9)	379(92.7)	5(100.0)	18(90.0)
부산/울산/경남	572(17.0)	18(3.1)	12(2.1)	502(87.8)	13(72.2)	9(75.0)
광주/전라/제주	475(14.1)	13(2.7)	7(1.5)	442(93.1)	13(100.0)	7(100.0)
합계	3,372(100.0)	94(2.8)	72(2.1)	3,125(92.7)	77(81.9)	67(93.1)

주: 2023년 12월 1일 기준임.

1차년도 본조사 이전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생후 1개월 된 시점의 어머니 우울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기초조사 I 과 II를 모두 응답한 3,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 2,786명이 응답하였다.

전체 모집 임부 3,372명을 대상으로 출생이후 4개월 시점에 수행된 1차년도 조사⁵⁾를 통해 쌍생아 73가구가 최종 표집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집계된 3,372가구에 쌍생아 수를 반영하면 3,445명의 아동이 조사 대상이었다. 전체 패널 아동 3,445명 중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수는 2,775명(80.6%)이었다. 1차년도 조사는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조사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 2,516명(74.6%), 아버지 1,653명(49.0%)이 참여하였다.

5) 기초조사 II는 임신 32~37주차에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태아 특성, 임신관련 특성, 출산 및 분만 관련 특성, 어머니의 신체·건강 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 관련 특성 변인들을 조사함(이정림 외, 2021: 12).

6) 1차년도 조사는 생후 4개월 이후 시점에 실시한 조사로 신생아의 아버지와 어머니 대상의 설문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가구방문 시 TAPI 방식의 주양육자 설문조사를 실시함(이정림 외, 2021: 143).

〈표 I-4-2〉 생후 1개월 및 1차년도 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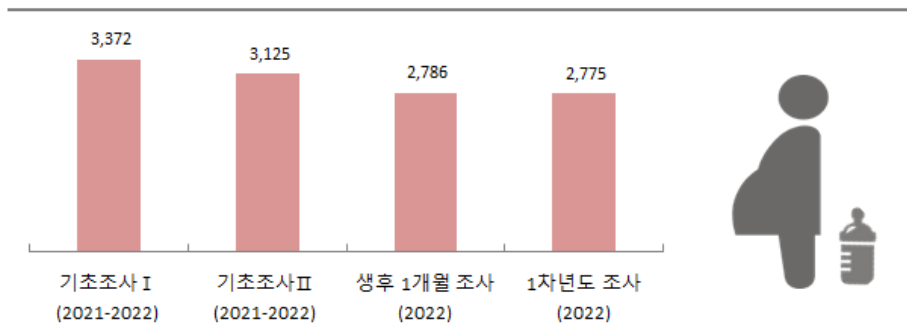
권역	생후 1개월 조사 참여자			1차년도 조사 참여자		
	전체	다문화	저소득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서울	387(93.5)	17(94.4)	8(88.9)	364(82.2)	330(76.7)	171(39.8)
경기/인천	938(89.2)	21(95.5)	19(90.5)	927(82.1)	784(70.4)	406(36.5)
대전/세종/충청/강원	312(91.2)	6(100.0)	3(100.0)	281(73.4)	244(64.2)	117(30.8)
대구/경북	345(92.7)	5(100.0)	13(76.5)	317(76.0)	319(79.2)	185(45.9)
부산/울산/경남	431(85.9)	11(84.6)	7(77.8)	479(82.2)	480(84.2)	455(79.8)
광주/전라/제주	373(84.2)	10(76.9)	8(100.0)	407(83.1)	359(75.4)	319(67.0)
합계	2,786(89.2)	70(90.9)	58(86.6)	2,775(80.6)	2,516(74.6)	1,653(49.0)

주: 1) 2023년 12월 1일 기준임.

2) 1차년도 조사에서 주양육자 조사는 쌍태아 포함 출생아 수(3,445명)를 분모로 활용하여 참여율을 산출하였으
며, 어머니와 아버지 조사는 전체 가구 수(3,372가구)를 분모로 활용하여 참여율을 산출함.

[그림 I-4-3] 2021-2022년도 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주: 2023년 12월 1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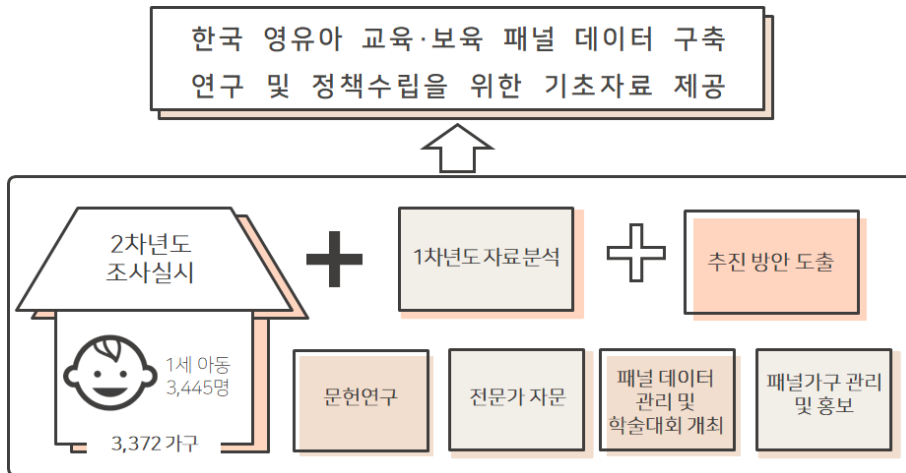
다. 연구범위

2차년도 조사는 최종 모집된 임부 기준의 3,372가구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조사 대상 패널 아동은 3,445명이다. 설문에 응답하는 대상은 1세 영아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연구인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1세 영아의 발달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기관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수행한다. 패널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활

용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패널 가구 관리 및 패널 연구에 대한 홍보 역시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일련의 연구과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의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패널의 연구기간인 2030년도까지의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4-4] 연구목적 및 내용·방법



II

2차년도(2023년) 사업

- 01 2차년도 조사절차 및 방법
- 02 2차년도 조사내용
- 03 제1회 학술대회 개최
- 04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II. 2차년도(2023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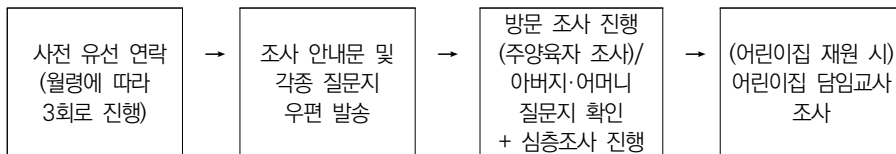
2차년도 사업으로는 1세 영아 가구 대상 조사,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2차년도 조사절차 및 방법

가. 조사절차

2023년도에 실시하는 2차년도 조사는 2022년 1~8월에 출생한 현재 1세 패널 3,445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절차는 [그림 II-1-1]과 같다.

[그림 II-1-1] 2차년도 조사절차



주: 가구 방문 전 우편 발송 질문지: 어머니/아버지 질문지, K-DST, 심층조사지(의사소통검사지, 생활시간조사지)

먼저 패널 가구에게 조사 실시 4~6주 전에 개별 전화 컨택을 시도하여 패널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올해 조사 일정 예고, 패널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담임교사 조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며, 패널 가구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 패널 아동 월령이 16~19개월 중에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유선 연락은 패널 아동 월령에 따라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선 연락 후에는 패널 가구에게 조사 안내문, 패널 연구 홍보 리플렛과 함께 육아정책연구소 명의의 협조 공문, 조사 설문지(종이) 등을 함께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조사원들은 패널 가구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조사를 안내함으로써 조사 일정을 조율한 후, 가구를 방문하여 주양육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아버지·어머니 질문지를 확인하고, 만약 응답하지 않았다면 독려하거나 온라인으로 응답하게 하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해나갔다. 또한 심층조사 대상 400가구의 경우 가구 방문 시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패널 아동이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에 있다면 어린이집 조사 안내문을 가구에서 어린이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정보를 확보 후 조사기관에서 연락을 취하여 어린이집 담임교사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종류 및 방법

2023년도 조사는 주양육자 대상 가구방문 태블릿 기반 면접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온라인 조사, 그리고 패널 가구 중 일부인 400가구가 참여하는 주양육자 대상 심층조사,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어린이집 담임교사 대상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모든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2023년도에 수행되는 2차년도 조사 전반에 관하여 본조사(주양육자 조사, 어머니 조사, 아버지 조사, 기관 조사)와 심층조사(주양육자 조사)로 나누어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⁷⁾. 승인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패널 조사에서는 아동의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모두 연구 참여 설명문을 제시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수거하였다.

다문화 가구를 위해서는 1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로 번역하고, 다문화 가구 참여자의 개인별 해당 모국어가 설문지에 병기되어 제공된다. 다만 패널 가구 중 캄보디아 참여자는 규모가 매우 작아 캄보디아어로 질문지를 번역하여 제공하기보다는 통역사와 동행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2023년 2차년도 조사 개관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 II-1-1>에 제시하였다.

7) 본조사: KICCEIRB-2023-제03호, 심층조사: KICCEIRB-2023-제04호

〈표 II-1-1〉 2차년도 조사 개관

조사종류		조사내용	조사방법	비고
어머니 조사		모유수유 경험 및 실태, 임신 중 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인구학적 특성, 근로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양육 특성, 부모건강, 소득, 육아지원정책 등	우편/온라인 조사	
아버지 조사		가족력, 인구학적 특성, 근로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양육 특성, 부모건강, 소득, 육아지원정책 등	우편/온라인 조사	
주양육자 조사	본조사	아동의 일상생활/건강/발달 특성, 양육 환경, 가구의 경제적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환경, 육아지원정책 이용 및 만족도	우편/TAPI 조사	
	심층조사	아동의 언어발달, 생활시간 실태조사, 부모-자녀 상호작용		400가구만 해당
기관 조사		기관 특성, 교사 특성, 기관의 운영 및 질, 부모 참여, 기관 내 아동 활동 특성	온라인 조사	패널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주1: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조사의 설문지는 거의 동일하나 밑줄 친 부분이 서로 다름. 아버지 조사에서 '가족력'의 경우 기초조사(2021년) 시 어머니 대상 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아버지 대상 조사에서는 누락된 부분으로, 2차년도 조사에서 포함하여 조사함.

주2: 주양육자 조사의 경우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지며, 심층조사의 경우 전체 3,372가구 중 무작위로 추출한 400가구만 참여 대상임.

1) 어머니 및 아버지 대상 우편/온라인 조사

어머니 및 아버지 대상 조사를 위해 가구방문 이전에 우편으로 조사지를 발송하였으며, 만약 조사 대상자가 온라인 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 링크를 개별 발송하였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어머니/아버지 대상 조사를 일괄 온라인 조사로 진행한 바 있지만, 2차년도 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와 함께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올해부터 우편조사를 추가로 병행하는 이유는 1차년도 조사 때 온라인 조사 참여율이 저조하였기에 어머니/아버지 대상 설문지를 미리 지류 형태로 우편 발송하여,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독려하고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함이었다. 즉, 주양육자 조사를 위하여 개별 가구에 방문했을 때 어머니/아버지 조사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조사를 바로 진행하고 조사 참여 동의서를 함께 수거하였다. 한편 수거된 종이 설문지는 조사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화하였다.

2) 주양육자 대상 가구 방문 면접 조사

가) 본조사

주양육자 대상 조사는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원은 패널 아동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일상생활/건강/발달 특성, 양육분담 및 양육 환경, 가구의 경제적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환경, 육아지원정책 이용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태블릿 기반 면접 조사(TAPI)에서는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문항 간의 로직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 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양육자는 ‘낮 시간 동안 아동을 주로 돌보는 대상자’를 의미하지만, 만일 아동이 개별 돌봄 서비스(예: 아동 기준 조부모와 기타 친인척 등,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기관의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주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구방문 시 자녀의 어린이집 재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패널 아동의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조사 관련 자료(조사 참여 요청 공문, 조사 안내문 등)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심층조사

2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 가구 중 일부 가구인 40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400가구는 전체 가구 중 지역규모와 아동의 성별을 고려하여 층화한 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심층조사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가구 방문이 아닌 본조사 방문 시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 대상 가구로 표집 된 패널 가구에게는 미리 해당 가구가 심층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조사에 대해 설명을 전달하였다.

심층조사는 주양육자 대상의 태블릿 기반 면접(TAPI)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 문항이 비교적 복잡하고 분량이 많으므로 미리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응답 대상자가 조사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관 조사

2차년도 조사부터는 교육·보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1세 패널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 비율은 조사 시작 시기에는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2022년 12월 기준 보육연령 0세(2021년생 + 2022년생)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24.9%, 보육연령 1세(2020년생)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86.2%로 나타남에 따라(육아정책연구소, 2023: 27) 3,445명의 패널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 수는 대략 861명(25.0%)~2,928명(85.0%)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기관 조사의 경우 앞선 주양육자 대상 조사에서 설명한 대로 패널 가구에서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조사 안내문에 제시된 온라인 링크 및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조사를 참여하도록 하였다. 만약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조사 안내 및 교사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사 문항은 최대한 간략하게 준비하였으며, 패널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 특성을 비롯한 기관의 특성과 패널 아동의 기관 생활 등에만 집중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의 관련 정보(기관 물리적 특성, 설립년도 및 설립유형, 영유아 및 교사 수, 반 편성 특성, 평가인증 여부 등)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수집하여 데이터화하였다.

다. 조사원 교육 및 실사 관리

1) 조사원 교육

1세 패널 아동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할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2차년도 조사에 관한 개요 소개를 포함하여 조사 설문지 설명, TAPI 수행 실습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영아 발달 검사에 관한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지역별 조사 슈퍼바이저를 포함한 면접원 총 78인이 본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II-1-2〉 조사원 교육 일정 및 내용

일자	시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대상
6.14(수)	10:00~17:00	일반교육(이론, 설문 및 발달검사), TAPI 실습	서울	서울/강원/제주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33인
6.15(목)	10:00~17:00	일반교육(이론, 설문 및 발달검사), TAPI 실습	대전	대전/충청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10인
			대구	대구/경북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9인
6.16(금)	10:00~17:00	일반교육(이론, 설문 및 발달검사), TAPI 실습	부산	부산/경남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16인
			광주	광주/전라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10인

2) 실사 관리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의 질을 관리하고 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사 현장을 동행하였으며, 조사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표 II-1-3〉 패널 가구 방문 일정 및 내용

일자	시간	논의 내용	장소
7.24(월)	11:00~13:00	조사 현장 파악 및 점검, 조사원 유의사항 전달	대구
7.25(화)	16:00~18:00	조사 현장 파악 및 점검, 조사원 유의사항 전달	서울
7.26(수)	13:00~15:00	조사 현장 파악 및 점검, 조사원 유의사항 전달	경기
7.26(수)	10:30~12:30	조사 현장 파악 및 점검, 조사원 유의사항 전달	부산
7.31(월)	10:00~12:00	조사 현장 파악 및 점검, 조사원 유의사항 전달	광주
8.1(화)	10:00~12:00	조사 현장 파악 및 점검, 조사원 유의사항 전달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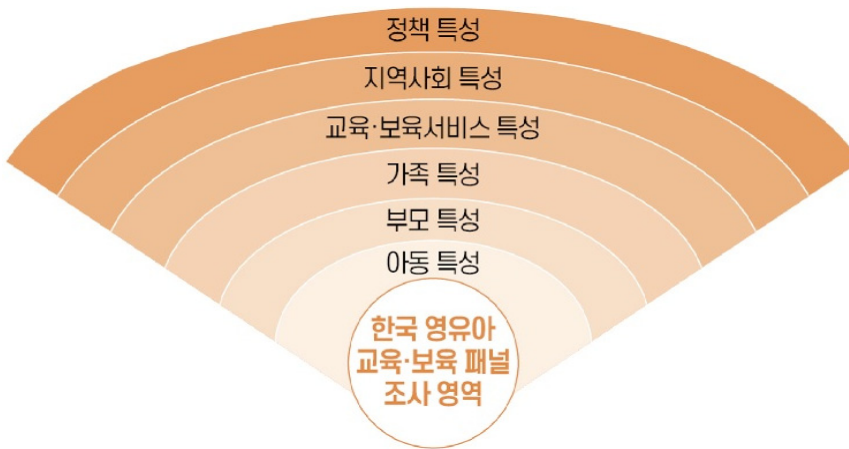
〈표 II-1-4〉 조사원 간담회 일정 및 내용

일자	시간	논의 내용	장소	대상
9.20(수)	11:00~14:00	2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패널 관리 노하우 등	서울	서울/경기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5인
10.26(목)	11:00~14:00	2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패널 관리 노하우 등	대구	대구/경북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4인
10.27(금)	11:00~14:00	2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패널 관리 노하우 등	광주	광주/전라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4인
10.30(월)	11:00~14:00	2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패널 관리 노하우 등	대전	대전/충청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4인
10.31(화)	11:00~14:00	2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패널 관리 노하우 등	부산	부산/경남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4인

2. 2차년도 조사내용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과 Elder의 생애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아동을 둘러싼 미시·거시적 환경요인을 포괄하여 조사영역으로 다룬다(그림 II-2-1 참조).

[그림 II-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조사 영역



자료: 이정림 외(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0.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올해 조사내용은 이정림 외(2021)에서 제시한 중장기 조사 계획을 기초로 하여 2022년도 1차년도 조사에 포함된 변인을 반영하였다. 조사내용 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다수의 연구진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동료멘토링, 관련 부처의 검토 등을 통해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조사 영역은 1차년도에서도 조사한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을 조사하였다.

가. 아동 특성

아동 특성에 관한 조사는 일상생활, 건강, 신체발달, 인지 및 언어발달, 사회정서 발달 특성으로 구성된다. <표 II-2-1>과 같이 아동 특성은 1차년도에 조사한 변인에 더하여 미디어 이용에 관한 내용, 구강 보건, 문제행동(CBCL, Child Behavior

Checklist)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일상생활 특성을 월령에 알맞은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기관조사를 통해서는 기관적응 정도를 알아보았다.

심층조사를 통해 아동의 일과를 살펴볼 수 있는 생활시간조사와 현재의 언어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Kore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를 실시하였다. K M-B CDI는 8~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주양육자 보고형 체크리스트이며, 본조사에서는 축약판을 사용하였다.⁸⁾ 미디어 이용 특성과 관련하여,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 미디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면 이용일/시간, 이용 이유나 상황, 주 사용 기기(디바이스), 미디어 이용 규칙 여부 등을 조사한다. 세부 문항은 이정원·박원순·엄지원(202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아동건강 특성과 관련하여, 1차년도에 조사되었던 신생아 건강과 관련된 항목은 2차년도 조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18~29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기⁹⁾, 2차년도 조사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 2차년도 조사가 시작된 2023년 7월은 패널 아동의 월령이 대략 18개월 전후가 되어 영유아 구강검진 여부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시점이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평소 잇솔질 하는 시기를 조사하여 아동기 구강보건에 대한 건강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I-2-1〉 2차년도 조사 영역: 아동 특성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1차	2차
일상생활 특성	미디어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	-	○
		미디어 이용일/시간	-	○
		미디어 이용 이유/상황	-	○
		주 사용 기기	-	○
		미디어 이용 규칙	-	○
	수면	수면환경	○	-
		수면시간	○	○

8) 마인드프레스, K M-B CDI, <https://www.mindpress.co.kr/shop/shopdetail.html?branduid=199&search=cdi&sort=order&xcodes=002&mcode=000&scodes=&GfDT=Z2x3UQ%3D%3D> (2023. 10. 1. 인출).

9)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실시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800m01.do> (2023. 5. 30. 인출).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1차	2차
일상생활 특성	수면	수면 특성	○	○
		밤중 깨는 횟수	-	○
	일상생활	배변/씻기 특성	○	○
		식생활 특성	-	○
		식습관	-	○
아동건강 특성	신생아 건강	신생아 검사 및 결과 이상 유무	○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치료 여부	○	-
	장애	장애판정 여부	○	○
		장애 정도 및 유형	○	○
	예방접종 및 검진	예방접종 여부	○	○
		건강검진 수검 여부	○	○
		구강검진 수검 여부	-	○
		구강 보건	-	○
	질병 및 치료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	○
		질환 진단 여부	○	○
	건강 일반	평소 건강상태	○	○
신체발달	신체 특성	체중	○	○
		신장	○	○
		두위	○	-
	운동능력	대근육운동(K-DST)	○	○
		소근육운동(K-DST)	○	○
인지 및 언어발달	인지발달	인지(K-DST)	○	○
		적응/자조(K-DST)	-	○
	언어발달	언어(K-DST)	○	-
		의사소통발달(K M-B CDI, 심층조사)	-	○
사회정서발달	정서	기질(IBQ-R VSF)	○	-
		사회성(K-DST)	○	○
	사회성	문제행동(K-CBCL 1.5-5)	-	○
		적응	-	□

주: ○ 주양육자, □ 기관

가) 영아 대상 발달검사(K-DST)

1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조사에서 주양육자의 협조를 받아 영아 대상의 발달검사(K-DST)를 수행하였다. K-DST는 국내에서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표준화한 발달검사 척도로,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건강검

진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이정림 외, 2022: 34-35). K-DST 검사지는 각 월령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 사항을 반영한 20개의 개별적인 연령 구간별 검사지로 구성되어 있다(대한소아과학회, 2014: 8). 생후 초기의 경우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상위 월령 집단인 4~5세 집단은 상대적으로 발달 속도가 느린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월령 집단의 간격이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다음의 표와 같이 차이를 보인다(대한소아과학회, 2014: 8).

〈표 II-2-2〉 K-DST 검사지의 월령 구간

구분	월령구간	간격	구분	월령구간	간격	구분	월령구간	간격
1	4~5개월	2개월	8	18~19개월	2개월	15	36~41개월	6개월
2	6~7개월	2개월	9	20~21개월	2개월	16	42~47개월	6개월
3	8~9개월	2개월	10	22~23개월	2개월	17	48~53개월	6개월
4	10~11개월	2개월	11	24~26개월	3개월	18	54~59개월	6개월
5	12~13개월	2개월	12	27~29개월	3개월	19	60~65개월	6개월
6	14~15개월	2개월	13	30~32개월	3개월	20	66~71개월	6개월
7	16~17개월	2개월	14	33~35개월	3개월			

자료: 대한소아과학회(2014). 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사용지침서(개정판). 질병관리본부. p. 9.

따라서 올해 조사에서는 패널 아동 연령에 맞게 16~17개월, 18~19개월, 20~21개월, 22~23개월의 총 4종류의 조사지를 활용하였다. K-DST 검사지의 4~5개월용부터 17개월용까지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의 5개 발달 영역을 다루지만, 18개월 이상이 되면 자조 영역이 포함되어 총 6개의 발달 영역을 다루게 된다(대한소아과학회, 2014: 9). 또한 K-DST에는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발달사항이나 특정 장애를 변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항을 추가로 질문하고 있다(대한소아과학회, 2017: 32). 예를 들어, 운동 발달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8~21개월 대상으로는 ‘서거나 걸을 때 발바닥을 잘 딛지 못하고 ‘항상’ 까치발을 한다(가끔 까치발을 하고 걷는 경우는 제외한다)’, 16~30개월 대상으로는 ‘걸지 못한다’ 등의 질문이 있다(대한소아과학회, 2017: 34).

나. 부모 특성

부모 특성은 개인 및 부부 특성, 부모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 양육지원, 부모건강으로 구성된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조사되었던 일부 내용이

제외되고,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었다. 부모 특성과 관련하여 조사도구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대상아동의 태내기와 출산이 코로나 19(COVID-19)가 확산과 증첩되는 시점으로 임신 및 출산 시기에 부모의 근로 특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재택근무 일수를 조사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가 해제된 시점에 수행되는 2차년도 조사에서도 재택근무 일수를 파악하여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재택근무 행태나 재택근무 일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문화 가족 특성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 적응, 가족의 문화수용성 변인을 추가하였다. 문화 적응은 Berry & Hou (2016)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2문항을 번안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하였다. 가족의 문화수용성은 국내에서 다문화청소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지연·그레이스정, 2019)를 부모용으로 수정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질문을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만의 특성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정서적 특성 중 우울과 관련하여 1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판 출산 후 우울증 척도(K-EPDS, Korean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를 활용하였으나 해당 도구는 출산 후 우울증 척도로 주로 활용되기에 2차년도 조사에서는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¹⁰⁾를 대체 도구로 적용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우울증 척도와 더불어 평소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양육 스트레스와 구분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넷째, 양육 특성과 관련하여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와 양육부담에 대한 조사 문항을 추가하여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다양한 방면에서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층조사에서는 부모아동 상호작용검사(IFS, Parents & Children Interactive Behavior Scale)를 도입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IBS는 일상생활 중 나타

10)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활용되는 도구로 주요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우울삽화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할 만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음(박승진·최혜라·최지혜·김건우·홍진표, 2010).

나는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부모보고식으로 평가하며,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은 반응성, 효율성, 지시성으로, 아동의 상호작용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주도성, 표현성으로 구성된다.¹¹⁾

다섯째, 1차년도 조사에서는 대상아동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주로 출산 직후 모유수유와 관련된 문항을 개발하여 아동의 식이를 조사하였다. 2차년도 조사가 수행되는 시점은 조사 대상 아동이 1세에 이르므로 이유식과 일반식의 시작 시기를 조사하여 대상 아동의 식이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2차년도 조사에서는 임신과 관련된 문항이 제외되었으나 임신 중 코로나19 혹은 독감 등의 백신 접종 여부와 감염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임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 II 에서 다루지 못한 아버지의 가족력을 추가하여 어머니의 가족력에 대한 정보와 균형을 맞추려 하였다. 가족력 이외에 현재 유병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성질환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도입하였다.

〈표 II-2-3〉 2차년도 조사 영역: 부모 특성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1차	2차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종교	●	-
		최종 학력	●	●
		혼인상태	●	●
	근로 특성	취업/학업 상태	●	●
		직종	●	●
		종사상 지위	●	●
		근로시간	●	●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 일수	●	-
		재택근무 일수	-	●
	다문화 가족 특성	출신국	●	-
		귀화 여부	●	●
		한국 거주 기간	●	-
		언어 구사 수준	●	●
		가정 내 언어사용	-	●

11) 인사이트, 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 https://inspyt.co.kr/psy/item/view/IBS_CO_SG (2023. 10. 1. 인출).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1차	2차
개인 특성	다문화 가족 특성	의사소통 어려움	-	●
		문화적응	-	●
		가족의 문화수용성	-	●
심리·정서적 특성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	●
		우울[K-EPDS(1차)/PHQ-9(2차)]	●	●
		평소 스트레스	-	●
	성격	그릿	●	●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	●
		부부갈등	●	●
양육 특성	주양육자	시간대별 주양육자	○	○
	양육분담	양육/가사 분담	○	○
		아버지의 양육 참여	●	-
	양육 특성	양육행동	●	●
		양육효능감	-	●
		양육 스트레스	●	●
		자녀 가치	●	-
		양육 신념	●	-
		양육 부담	-	○
		상호작용행동(IBS, 심층조사)	-	○
	양육 환경	가정환경의 질(K-IT-HOME)	○	-
	후속출산 계획	이상 자녀 수	●	-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및 자녀 수	●	-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	-
	모유수유 및 피부 접촉	후속 출산 계획의 주결정자	●	-
		모유수유 계획, 모유수유 준비 내용	●	-
		현재 모유수유여부, 개월별 수유 방법	●	●
		모유수유 중단 시기, 모유수유 중단 이유	●	●
		출산 직후 모자 피부 접촉 여부	●	-
		출산 후 첫 모유수유 시점	●	-
		출산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 미수행 사유	●	-
양육 지원	산후 지원	이유식/일반식 시작 시기	-	○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
		산후도우미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
		산후조리원 모자 동실 이용 여부	●	-
	사회적 관계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	-
		사회적 지원 인원	○	○
		사회적 지원 정도	○	○
			○	○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1차	2차
부모건강	임신·출산	분만 형태	●	-
		출산 직전 임부 몸무게	●	-
		임신 기간 신체적·정서적 활동	●	-
	부모건강	가족력	-	● ¹²⁾
		만성질환	-	●
		장애 여부	●	●
		흡연 여부 및 습관	●	●
		임신 중 흡연 여부	●	-
		간접흡연	●	●
		음주 여부 및 습관	●	●
		임신 중 음주 여부	●	-
		임신 중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여부	-	●
		임신 중 코로나19, 독감 등 백신 접종 여부	-	●
	생활습관	스마트폰 과의존	●	●

주: ○ 주양육자,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어머니 모두

다. 가구 특성

가구 특성은 1차년도에 조사한 변인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물리적 환경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가구 특성 중 근로소득은 어머니·아버지 조사에서 각각 실시하며, 그 외에는 모두 주양육자 조사에서 실시하였다.

〈표 II-2-4〉 2차년도 조사 영역: 가구 특성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1차	2차
인구학적 특성	가구원	가구원 수	○	○
		가구 구성 형태	○	○
		부모-아동 동거 여부	○	○
		비동거 이유	○	○
	주양육자 (부모 이외인 경우)	주양육자-아동 관계	○	○
		성별	○	○
		연령	○	○
		최종 학력	○	○

12) 부모건강 중 가족력의 경우, 어머니 가족력은 2021년에 수행된 임부 대상 기초조사 II를 통해 수집되어(이정림 외, 2022: 76, 95-96), 2차년도 본조사에서는 아버지 가족력만 별도로 조사를 수행함.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1차	2차
경제적 특성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	○
		근로(사업)소득	●	●
	지출	월평균 가구지출	○	○
		식비, 주거비, 의료비	○	○
		자녀 교육·보육비	○	○
	부채	부채 여부 및 부채액	○	○
		부채 월 상환액	○	○
	지원 여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	○
물리적 환경 특성	주거환경	차상위계층 여부	○	○
		사회경제적 지위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주택 점유형태	○	○
		주거 유형	○	○
		주거 공간	○	○
		주거 면적	○	○
		주거지 방 개수	○	○
		현거주지 거주 이유	○	○
		주거지역 특성	○	○
	생활환경	반려동물 여부	○	○

주: ○ 주양육자, ● 아버지/어머니 모두

라.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은 올해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다. 패널 영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를 통해 기관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조사 변인으로는 학급(반) 특성, 교사 특성, 기관 특성과 운영의 질, 교육·보육과정, 부모참여, 그리고 기관 외 사교육 특성을 포함하였다.

〈표 II-2-5〉 2차년도 조사 영역: 기관 특성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2차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경험	이용 현황	이용 여부	○
		연장보육/돌봄 이용 여부	○
교사 특성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
		연령	□
		학력	□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측정도구)	2차
교사 특성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력	☐
		현기관 근무기간	☐
		교사 현자격/최초자격	☐
		전공	☐
	교사의 심리적 특성	소진	☐
		자기효능감	☐
		직무만족도	☐
기관의 특성	기본 현황	시·도, 도시규모	○
		유형	정보 공시
		연령별 학급(반) 현황	
		영유아 수(연령별/학급(반)별)	
		교직원 현황	
		운영시간(일일, 연중)	
		기관의 영유아 구성 등	
	기관의 운영 및 질	기관장의 리더십	☐
		기관 적응 프로그램 유무	☐
		교실 환경	☐
학급(반) 특성	학급(반) 구성	만족도	○
		반(학급) 연령 구성	☐
		교사-영유아 비율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유아 수	☐
교육·보육과정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사용 빈도	☐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	☐
	바깥놀이	바깥놀이 빈도	☐
		바깥놀이 시간	☐
부모참여	부모참여정도	기관-부모 소통 정도	○/□
		기관 생활 관심도	☐
		기관 행사 참여도	○/□
		기관 행사 인지도	○
기관 외 사교육	이용현황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
		기타 사교육 이용 여부	○
		기타 사교육 이용 목적(이유)	○
		이용 횟수(반일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이용 시간(반일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이용 비용(반일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주: ○ 주양육자, □ 기관

마. 지역 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는 가구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악하였다.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기관(학교, 육아지원기관 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차년도와 비교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기관의 경우 어린이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범위를 넓혀서 조사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표 II-2-6〉 2차년도 조사 영역: 지역 특성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1차	2차
일반적 특성	가구 소재지	시·도	○	○
		도시규모	○	○
	거주기간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 시기	○	-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	○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	○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	○	○

주: ○ 주양육자

바. 정책 특성

정책 특성은 가능한 한 10년간 지속해서 조사할 수 있는 변인으로 구성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정책 특성으로 부모급여, 늘봄학교 등 새롭게 시행된 정책들도 문항으로 추가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표 II-2-7〉 2차년도 조사 영역: 정책 특성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1차	2차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방향성	육아지원정책 방향 우선순위	●	●
	필요성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 필요도 평가	●	-
육아지원정책 평가	현금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아동수당	○	○
		영아수당	○	-
		양육수당	○	○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응답자	
		소분류/변인명	1차	2차
육아지원정책 평가	현금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출산급여	○	-
		배우자 출산급여	○	-
		근로장려세제	○	-
		자녀장려세제	○	○
		부모급여	-	○
		공공요금 할인	-	○
	현물/바우처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첫만남 이용권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
		아이돌봄지원사업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보육료	-	○
		유아학비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
		방과후 과정	-	○
		다함께 돌봄/늘봄학교	-	○
	시간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어머니 육아휴직	●	●
		아버지 육아휴직	●	●
		어머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아버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시간외 근로금지	●	●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	●
		가족돌봄휴가	●	●
		시차출퇴근제	●	●
		선택근무제	●	●
		재택근무제	●	●
		원격근무제	●	●

주: ○ 주양육자, ● 아버지 어머니 모두

3. 제1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제1회 학술대회는 2023년 8월 2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국내 학계에 첫 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시작을 알리고, 향후 패널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구축에 협력한 전문가와 유관 학회가 협력하였으며, 특히 아동, 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가 함께 참여하였다.

[그림 II-3-1] 제1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 일정표

P R O G R A M	
1부. 개회식 및 기조강연	
사회자: 최윤정 본부장(육아정책연구소)	
09:20 ~ 09:40	등록
09:40 ~ 09:50	개회사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축사 김영미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종일 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09:50 ~ 10:00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소개
10:00 ~ 11:00	기조강연 영·유아-소아로 이어지는 뇌의 발달 및 발달과업과 양육자의 역할 김봉년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정신과)
11:00 ~ 11:10	휴식

2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주제발표	
11:30 ~ 11:40	주제발표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임부 특성 이정림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1:40 ~ 12:10	주제발표 2 2008년 한국아동패널과 2022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의 산후우울 비교 김희선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12:10 ~ 12:40	종합토론 좌장 이완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토론 1 민소영 센터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토론 2 최애나 센터장(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12:40 ~ 12:50	폐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시 중구 소공동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Tel. 02-398-7700 www.kicce.re.kr

학술대회에서는 기조강연을 통해 영유아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기조강연자였던 김봉년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영·유아-소아로 이어지는 뇌의 발달 및 발달과업과 양육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아동기 초기까지의 주요 발달과업인 애착, 자기조절, 공감의 발달과 그 발달을 돕는 양육자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어서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수집한 기초조사 및 생후 1개월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다룸으로써 임부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활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정림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은 조사에 참여한 임부의 특성들을 토대로 연령이 24세 이하인 임부 및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구 임부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민소영 센터장은 지역이나 임부 특성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희선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는 한국아동패널과 한

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의 산후 우울을 비교·분석하여 보고하였으며,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최안나 센터장은 난임과 우울증, 그리고 임부와 산모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논하였다.

4.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가. 기초조사 및 1차년도 조사 데이터 관리

1) 데이터 구성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구축의 기본 구조는 2021년 조사된 기초조사 I, II, 2022년 생후 1개월 조사 그리고 1차년도 본조사로 나누어지며, 1차년도 조사 기준 주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이에 조사 차수별 메인 데이터는 조사 대상인 ‘주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교사’로 구분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2) 변수명 부여 규칙 생성

데이터 변수명의 기본 방향은 최대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명을 설정하는 데 있다. 작년 기초조사 데이터 정리 당시 변수명 생성 원칙을 정하였으나, 작년부터 향후 이어질 본조사의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원칙에 수정이 필요하였다.

조사 대상별 데이터 세트가 구축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의 모든 변수는 기본적으로 문항별 단일한 1개의 변수명을 가지며, 변수 코드 내에 조사 연도에 대한 수치 정보 없이 데이터 세트 안에 조사 연도 변수를 별도로 삽입하여, 동일한 문항이 각 연도의 데이터 세트 상에서 동일 변수 코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간소화 및 체계적 구축을 위해 일반적인 조사 문항, 반복 측정 및 고정 문항, 척도 문항, 그리고 주관식 응답 문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변수명 부여 규칙을 세웠다.

가) 주요 규칙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변수명은 <표 II-4-1>과 같이 ① 조사 대상 코드, ② 카테고리 코드 및 소분류 코드, ③ 척도 및 정책 문항 코드, ④ 문항 번호 및 옵션 코드로 구성이 되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같이 반복 및 고정적으로 조사되는 문항의 경우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변수명이 부여된다. 추후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법이 모색된다면 변수명 부여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표 II-4-1> 변수명 부여 규칙 예시

예: 어머니 우울(MPSY01_A_01)

M	PSY	01	-	A	-	01	-	
조사 대상 코드	카테고리 코드			척도 및 정책 코드		문항 번호 코드		옵션 코드
	대/중분류	소분류						

(1) 조사 대상 코드

데이터 세트의 기본 구성에 따라 조사의 대상을 기준으로 주양육자의 경우 'P', 어머니의 경우 'M', 아버지의 경우 'F', 교육·보육기관 및 교사의 경우 'T'로 분류하였으며, 설문지의 응답자와 설문 내용의 중심이 되는 대상이 다르고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한 변수에 대해서는 설문 내용의 중심이 되는 대상으로 코드를 부여한다.

<표 II-4-2> 조사 대상별 시작 변수 코드

조사 대상	주양육자	아동	어머니	아버지	가구	교사
변수 코드	P	C	M	F	H	T

예를 들어, '아동 연령'의 경우 주양육자(P)가 설문지에 응답하지만, 주양육자의 특성과 구분이 필요하므로 설문 내용의 대상인 'C'로 시작한다. 또한, '가구소득'의 경우 주양육자(P)가 설문지에 응답하지만, 부모의 소득과 혼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패널 가구와 관련된 내용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의 조사 대상 코드는 'H'로 시작한다.

(2) 카테고리 코드

카테고리 코드의 경우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조사에 수행되는 조사 영역의 분류체계 내용을 약자로 변화하여 제시한다. 일차적으로 대분류 및 중분류 내용의 약자를 사용하고 소분류 목록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척도 문항이나 고정변수 등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소분류의 약자를 활용한다.

(3) 척도 코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의 설문 문항에는 대상의 심리·정서·발달 등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문항들이 존재한다. 척도 문항의 경우 동일한 개념을 측정함에도 측정 도구를 개발한 연구자마다 그 내용이 다르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패널 아동의 월령에 적합한 측정 도구가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 차수별로 처음 조사된 척도의 경우 'A'로 시작하며, 다른 척도를 사용 시 'B, C, D...'순으로 부여한다.

예: 어머니 조사의 부부갈등 → MMAR02_A_01

(4) 문항 번호 코드 및 옵션 코드

문항 번호 코드는 해당 변수의 문항 수(다중응답 포함)에 따른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옵션 코드는 주관식 응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수, 양, 횟수 등 수량적 응답은 '_a'로, 문자로 기입하는 주관식 응답은 '_t'로 구분한다.

예: 어머니 조사의 음주 횟수 → MHLT12_a

(5) 규칙 미적용 코드

조사 문항에 있어 성별(GENDER), 생년월일(BIRTH), 최종 학력(SCHOOL)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매년 조사되는 변수로 위의 변수명 부여 규칙 내에서 카테고리 코드 없이 변수명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또한 년(Y), 월(M), 주(W), 일(D) 단위로 조사되는 문항들은 영문의 앞 글자를 활용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아동의 생년월일(연도) → CBIRTH_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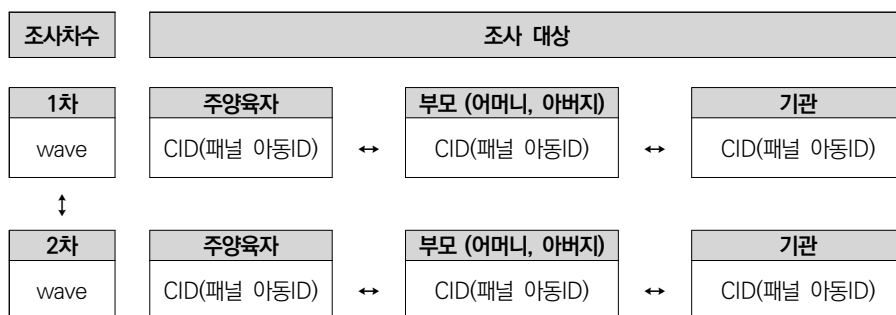
〈표 II-4-3〉 변수명 예시

조사 대상	카테고리	소분류 코드	척도	문항번호	변수명
어머니 (M)	심리적 특성(PSY)	우울(01)	A	1~10	MPSY01_A_01 ~ MPSY01A_10
어머니 (M)	부모 건강(HLT)	음주횟수(12)	-	-	MHLT12_a
아동 (C)	인구사회적 특성 -생년월일(BIRTH)	생년월일	-	-	FBIRTH_Y(년) / FBIRTH_M(월)
가구 (H)	가구 특성 -소득(INCOME)	월평균가구소득	-	-	HINCOME

나) 키(KEY) 변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각 차수에 조사된 설문 내용을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파일 형태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종류별로 데이터 세트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축한다. 단, 기초조사 I 과 II는 규모가 크지 않고 유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생성한다. 따라서 분리된 데이터 세트 간 결합을 위해 키(key) 변수를 제공하여 횡단 및 종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II-4-1] 키 변수를 활용한 데이터 세트 간 결합



3) 사용자 지침서 개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공개와 함께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지침서

를 개발한다. 사용자 지침서(User's Guide)는 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한다. 본 연구는 현재 기초조사 및 1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 시기와 데이터 공개하는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용자 지침서를 수정·보완하여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자 지침서는 사용자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이해 및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 대한 소개(조사 배경 및 목적, 조사의 이론적 모형, 조사 대상, 데이터 구축 현황), 표본 설계에 따른 가중치 관련 내용(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 과정, 가중치 부여방식), 조사 영역별 조사내용(아동, 부모, 가구, 기관 등), 자료 분석 방법(데이터베이스 구성, 데이터 클리닝 개요, 변수명 부여 규칙, 키 변수 및 데이터 파일 통합 방법, 데이터 활용 시 유의사항) 등 패널 데이터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표 II-4-4〉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사용자 지침서 목차

구분	사용자 지침서
목차	I.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소개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의 이론적 모형 3. 조사 대상 4. 데이터 구축 현황
	II. 표본 설계 및 가중치 1.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 과정 2. 가중치 부여방식
	III. 조사내용 1. 아동 특성 2. 부모 특성 3. 가구 특성 4. 기관 특성 5. 다문화 특성 6. 취약계층 특성
	IV. 자료 분석 방법 1. 데이터베이스(DB) 구성 2. 데이터 클리닝 개요 3. 변수명 부여 규칙 4. 키(KEY) 변수 및 데이터 파일 통합 방법 5. 데이터 활용 시 유의사항
	V. 참고문헌

나. 패널 유지 관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패널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다음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1) 각 조사별 사례비 지급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진행되는 본조사 및 심층조사의 답례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문화와 저소득 가구의 패널 유지를 위해 다문화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각 조사별 사례비는 다른 일반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하였다.

2) 기념일 선물 및 경품 이벤트 제공

첫째, 조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일 선물을 제공한다. 작년 1차 조사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선물을 발송하였으며, 올해는 연하장과 패널 아동의 첫돌을 기념하여 선물과 축하카드를 발송하였다. 내년부터는 생일축하카드(온라인)와 더불어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5월 가정의 달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그림 II-4-2] 첫돌 기념 선물



둘째, 다문화와 저소득 가구 패널의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가구에게만 추석 명절 선물을 지급하였다(아동용 장난감).

셋째, 조사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할 것이다(2024년 1월 예정).

3) 리플렛 및 홈페이지 홍보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올해 조사 개요를 담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패널 모집 현황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다. 또한 패널 조사에 대한 홍보와 조사의 배경 및 목적을 소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간물을 안내하며, 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홈페이지(<https://panel.kicce.re.kr/kececp/index.do>)를 운영하고 있다.

4)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전달

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올해의 K-DST 검사 데이터를 1개월 주기로 선 취합·분석하여 검사 결과 보고서(온라인)를 부모에게 전달한다. K-DST 검사 결과 보고서는 관련 전문가인 연구협력진에게 검토를 받은 후 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부모에게는 문자로 링크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4-3] K-DST 검사 결과 보고서 확인용 페이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조사 K-DST 결과표 확인

안녕하십니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023년도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그인하시면 K-DST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DST는 영유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습득하는 발달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달지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부모 보고식 검사입니다. 부모(보호자)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였기에 아동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며, 연구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 절차(전문가 면담)가 생략되어 자녀의 발달 수준에 대한 심도 깊은 결과를 얻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에 관한 상담은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또는 소아과 및 관련 전문가에게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K-DST 결과가 부모님께서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검사나 패널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10-7487-9472(문자·카카오톡), ececp@kicce.re.kr로 연락주시시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자녀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인증하기

III

1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

- 01 조사 개요
- 02 아동 특성
- 03 부모 및 가구 특성
- 04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05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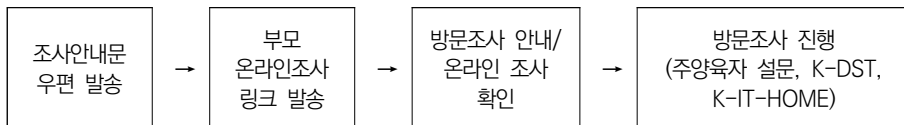
III. 1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절차 및 내용

2022년도에 실시한 1차년도 조사는 패널 아동이 생후 4개월 된 시점부터 시작하였다. 전체 모집 임부 3,372명을 표본으로 삼고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모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양육자 조사는 가구방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쌍생아를 포함하여 아동 기준 3,445명이 조사 대상이었으며, 그 중 80.7%인 2,775명의 아동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어머니 조사에는 2,516명, 아버지는 1,653명이 참여하였다.¹³⁾

[그림 III-1-1] 1차년도(2022년) 조사 절차



자료: 이정림 외(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육아정책연구소. p. 133.

1차년도 조사내용은 <표 III-1-1>과 같다. 조사 분야는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으로 나누어지며, 1차년도 조사에서는 출산 이후 조사임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산후지원, 모유수유 등 출산 초기의 경험이나 신생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하였다.

13) 쌍생아가 모두 조사에 참여한 경우, 아동 각각에 대한 주양육자 조사를 실시하고, 어머니/아버지 데이터는 두 번씩 입력함. 1차년도에 주양육자 조사와 어머니/아버지 조사에 모두 참여한 수는 어머니 2,435명, 아버지 1,630명이며, 쌍생아를 포함하면 어머니 2,499명, 아버지 1,680명임.

〈표 III-1-1〉 1차년도 조사 영역 및 변인

분야	구분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아동 특성	일상생활	수면	수면환경, 수면시간, 수면습관	○
		실내외활동	배변/씻기 특성	○
	아동건강	신생아 건강	신생아 검사 및 결과 이상 유무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치료 여부	○
		장애	장애판정 여부, 장애 유형 및 정도	○
		예방접종 및 검진	예방접종 여부, 건강검진 수검 여부	○
		질병 및 치료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질환 진단 여부	○
		건강 일반	평소 건강상태	○
	신체발달	신체 특성	체중, 신장, 두위	○
		운동능력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
	인지 및 언어발달	인지발달	인지	○
		언어발달	언어	○
	사회정서발달	정서	기질	○
		사회성	사회성	○
부모 특성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종교, 최종 학력, 혼인상태	●
		근로 특성	취업/학업 상태,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
	심리·정서적 특성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우울	●
		성격	그릿	●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
	양육	주양육자	시간대별 주양육자	○
		양육분담	양육/가사 분담 비율	○
			아버지의 양육 참여	●
		양육 특성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양육 신념	●
			자녀 가치	●
		양육 환경	가정환경의 질	○
		후속출산 계획	이상 자녀 수,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및 자녀 수,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후속 출산 계획의 주결정자	●
		모유수유 및 피부 접촉	모유수유 계획, 모유수유 준비 내용, 현재 모유수유 여부, 개월별 수유 방법, 모유수유 중단 시기, 모유수유 중단 이유, 출산 직후 모자 피부 접촉 여부, 출산 후 첫 모유수유 시점, 출산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 미수행 사유	●
	양육 지원	산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및 만족도, 산후도우미 이용 여부 및 만족도, 산후조리원 모자 동실 이용 여부,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인원, 사회적 지원	○
	부모건강	임신출산	분만 형태, 출산 직전 임부 몸무게, 임신 기간 신체적·정서적 활동	●

구분				응답자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변인명	
부모 특성	부모건강	부모건강	장애 여부 및 정도, 흡연 여부 및 습관, 임신 중 흡연 여부, 간접흡연, 음주 여부 및 습관, 임신 중 음주 여부	●
		생활습관	스마트폰 과의존	●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구원	가구원 수, 가구 구성 형태, 부모-아동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다문화가족 특성	출신국, 한국 거주 기간, 언어 구사 수준	●
		주양육자	주양육자-아동 관계, 성별, 연령, 최종 학력	○
	경제적 특성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
			근로(사업)소득	●
		지출	월평균 가구지출, 식비, 주거비, 의료비, 자녀 교육·보육비	○
		부채	부채 여부 및 부채액, 부채 월 상환액	○
		빈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물리적 환경 특성	주거환경	주택 점유형태, 주거 유형, 주거 공간, 주거 면적, 주거지 방 개수, 현거주지 거주 이유	○
		생활환경	반려동물 여부	○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소재지	시·도, 도시규모	○
		거주기간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 시기	○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	○
정책 특성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방향성	육아지원정책 방향 우선순위	●
		필요성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 필요도 평가	●
	육아지원 정책평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현금 지원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현물/바우처 지원	첫 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시간 지원	어머니 육아휴직, 아버지 육아휴직, 어머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버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주: ○ 주양육자, ① 아버지, ② 어머니, ●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료: 이정림 외(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육아정책연구소. pp. 31-33.

본 장은 1차년도에 실시한 2,775명 아동의 주양육자 조사, 어머니 및 아버지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다음의 조사 참여자 특성은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나 2절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나. 조사 참여자 특성

1차년도 어머니, 아버지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먼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45세이며, 30~35세 미만이 46.9%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5.72세이며, 35~40세 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학력의 분포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대학교 졸업이 53.7%, 54.4%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취업 여부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비율이 50.9%(휴직자 포함), 기초조사 II에서 임부의 취업 비율인 56.4%보다 5.5%p 낮게 나타났다(이정림 외, 2022: 79). 한편, 아버지는 96.3%가 취업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특성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2435)	전체	100.0(1630)
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1.9(47)	25세 미만	0.8(13)
25~30세 미만	12.9(314)	25~30세 미만	7.2(117)
30~35세 미만	46.9(1141)	30~35세 미만	32.1(524)
35~40세 미만	30.2(736)	35~40세 미만	40.9(666)
40세 이상	8.1(197)	40세 이상	18.4(300)
		무응답	0.6(10)
평균(표준편차)	33.45(4.16)	평균(표준편차)	35.72(4.84)
어머니 종교		아버지 종교	
없음	64.5(1571)	없음	71.0(1157)
불교	7.6(185)	불교	7.9(128)
기독교(개신교)	20.7(503)	기독교(개신교)	15.5(253)
천주교	6.9(168)	천주교	5.3(87)
원불교	-	원불교	0.1(1)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0.0(1)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0.1(2)
기타	0.3(7)	기타	0.1(2)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어머니 최종 학력		아버지 최종 학력	
중졸이하	0.9(23)	중졸이하	0.8(13)
고등학교	14.4(351)	고등학교	18.2(296)
전문대(기능대학)	21.5(524)	전문대(기능대학)	17.4(283)
대학교	53.7(1307)	대학교	54.4(886)
대학교 석사	8.5(206)	대학교 석사	8.2(134)
대학교 박사	1.0(24)	대학교 박사	1.1(18)
어머니 취업 여부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50.9(1240)	취업 중	96.3(1569)
출산 후 복직 및 취업	13.0(318)	육아휴직 이용	16.4(267)
휴직 중(육아휴직+기타휴직)	37.9(922)		
학업 중	1.0(24)	학업 중	0.6(9)
미취업/미취학	48.1(1171)	미취업/미취학	3.2(52)
어머니 근로소득		아버지 근로소득	
없음	49.1(1195)	없음	3.7(61)
100만원 이하	2.3(56)	100만원 이하	0.7(11)
101~300만원	34.2(833)	101~300만원	36.2(590)
301~500만원	12.0(292)	301~500만원	45.8(746)
501~700만원	1.3(32)	501~700만원	8.1(132)
701~900만원	0.4(9)	701~900만원	2.6(43)
901만원 이상	0.7(18)	901만원 이상	2.9(4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모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가 99.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0.5%에 이혼, 미혼, 별거, 사별이 포함되었다.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패널 가구의 49.7%는 맞벌이 중이며, 가구소득은 50.7%가 301~500만원에 해당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거나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비율은 전체 가구의 2.0%이며, 다문화 가구는 2.5%이었다. 그 외 특성은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2454)	전체	100.0(2454)
부모 결혼상태		부모 결혼기간*	
유배우	99.5(2442)	1년 이하	17.7(432)
별거	0.1(2)	2~3년	34.5(843)
이혼	0.2(5)	4~5년	25.4(620)
사별	0.0(1)	6년 이상	21.9(535)
미혼	0.2(4)	무응답	0.6(14)
전체	100.0(2775)	전체	100.0(2775)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저소득층 여부		지역규모	
저소득층 아님	98.0(2718)	대도시(광역시/동)	37.9(1051)
저소득층임	2.0(57)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7.5(1317)
다문화 가구 여부		읍·면	14.7(407)
다문화 가구 아님	97.5(2707)	가구소득	
다문화 가구임	2.5(68)	300만원 이하	22.2(615)
맞벌이 여부**		301~500만원	50.7(1406)
맞벌이	49.7(825)	501~700만원	17.2(477)
맞벌이 아님	50.3(836)	701만원 이상	10.0(27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및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가구 특성은 주양육자 조사 2,775명을 기준으로 제시함.

3) *유배우와 별거에 응답한 2,4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4)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어머니 조사에 모두 응답한 1,661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함.

주양육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총 2,775명의 아동 중 월령이 5개월 이하인 경우는 38.2%, 6~7개월은 35.4%, 8개월 이상인 경우는 26.4%이었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3%, 여아가 48.7%로, 본 패널은 남아가 여아보다 좀 더 많았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패널 아동이 첫째아라고 응답한 경우는 59.8%, 둘째아인 경우 32.6%, 셋째 이상인 경우는 7.6%이었다.

〈표 III-1-4〉 패널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2775)	아동 성별	
아동 월령		남	51.3(1423)
5개월 이하	38.2(1060)	여	48.7(1352)
6개월~7개월	35.4(983)	출생순위	
8개월 이상	26.4(732)	첫째	59.8(1659)
		둘째	32.6(906)
		셋째 이상	7.6(21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아동 특성¹⁴⁾

2절에서는 아동 특성 조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일상생활(수면 특성, 기본생활), 아동 건강(신생아 건강, 건강 상태, 장애,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발달 특성(신체 발달, K-DST 검사 결과, 영아 기질 척도 결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4) 2~4절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가. 일상생활

1) 수면 특성

아동의 수면 특성으로 수면환경, 수면시간, 수면습관을 알아보았다.

먼저, 수면환경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엎드려 재우지 않는다’ 3.91점,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 3.44점, ‘폭신한 매트리스나 이불 위에서 재우지 않는다’ 3.98점, ‘두껍거나 폭신한 이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4.22점, ‘방 안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4.41점, ‘자주 공갈 젖꼭지를 빨게 한다’ 2.87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5개월 이하인 경우 그 이상 개월 수의 아동보다 엎드려 재우지 않고 있었고, 부모와 같은 침대에 자지 않고 있었으며, 두껍거나 폭신한 이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는데, 출생순위가 첫째 혹은 둘째인 경우 좀 더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재우지 않으며, 두껍거나 폭신한 이불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비교적 폭신한 매트리스나 이불 위에서 재우지 않으며, 잘 때 방 안 온도를 적절하게(22~25℃) 유지하였다.

〈표 III-2-1〉 수면환경(1)

단위: 점(명)

구분	엎드려 재우지 않는다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		폭신한 매트리스나 이불 위에서 재우지 않는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1	1.30	3.44	1.58	3.98	1.21	(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4.15 ^b	1.26	3.56 ^b	1.57	4.00	1.26	(1060)
6개월~7개월	3.76 ^a	1.35	3.38 ^{ab}	1.58	3.95	1.23	(983)
8개월 이상	3.78 ^a	1.25	3.36 ^a	1.58	3.99	1.12	(732)
<i>F</i>	29.48***		4.91**		0.36		
출생순위							
첫째	3.90	1.31	3.65 ^b	1.53	4.03 ^b	1.18	(1659)
둘째	3.95	1.28	3.16 ^b	1.61	3.92 ^{ab}	1.24	(906)
셋째 이상	3.90	1.32	3.00 ^a	1.55	3.83 ^a	1.33	(210)
<i>F</i>	0.50		38.55***		4.3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2-2〉 수면환경(2)

단위: 점(명)

구분	두껍거나 폭신한 이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잘 때 방 안 온도를 적절하게(22~25℃) 유지한다		자주 공갈 젖꼭지를 빨게 한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2	1.08	4.41	0.72	2.87	1.41	(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4.31 ^b	1.09	4.44	0.73	2.87 ^{ab}	1.40	(1060)
6개월~7개월	4.17 ^a	1.10	4.39	0.71	2.97 ^b	1.42	(983)
8개월 이상	4.15 ^a	1.02	4.38	0.74	2.74 ^a	1.41	(732)
<i>F</i>	6.94***		1.55		5.90**		
출생순위							
첫째	4.26 ^b	1.04	4.45 ^b	0.70	2.99 ^b	1.39	(1659)
둘째	4.19 ^b	1.09	4.35 ^{ab}	0.76	2.73 ^a	1.44	(906)
셋째 이상	3.96 ^a	1.30	4.33 ^a	0.75	2.57 ^a	1.44	(210)
<i>F</i>	7.83***		7.21***		14.93***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 $p < .01$, *** $p < .001$.

아동의 낮잠 횟수를 조사한 결과, 50.6%의 아동이 하루 중 3회의 낮잠을 잔다고 응답하였으며, 2회 37.0%, 4회 8.0%, 1회 1.8% 등으로 나타났다. 5개월 이하인 아동의 경우 3회의 낮잠을 자는 비율이 63.5%이었으나, 6~7개월에는 52.8%로 줄어들고, 8개월 이상이 되면 2회의 낮잠을 자는 비율이 64.6%로 증가하였다.

〈표 III-2-3〉 수면시간: 낮잠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30분 보다 짧게 잔다	계(수)
전체	1.8	37.0	50.6	8.0	1.5	1.1	100.0(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0.6	17.3	63.5	14.1	3.1	1.4	100.0(1060)
6개월~7개월	1.4	37.6	52.8	6.2	0.7	1.3	100.0(983)
8개월 이상	4.1	64.6	28.8	1.7	0.3	0.5	100.0(732)
$\chi^2(df)$	519.31(1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밤잠 시간의 경우 10시간 이상 11시간 미만으로 잔다는 비율이 31.0%,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27.2%로 9시간에서 11시간 사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6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을 갖는 아동은 약 3%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2-4〉 수면시간: 밤잠 시간

단위: %(명)

구분	6시간 미만	6-8 시간 미만	8-9 시간 미만	9-10 시간 미만	10-11 시간 미만	11-12 시간 미만	12-13 시간 미만	13-14 시간 미만	14-15 시간 미만	15-16 시간 미만	16 시간 이상	계(수)
전체	2.8	7.8	17.9	27.2	31.0	10.1	2.7	0.3	0.1	0.1	0.0	100.0(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4.0	9.4	18.3	28.2	27.0	9.2	3.2	0.3	0.1	0.2	0.1	100.0(1060)
6개월~7개월	2.9	8.8	17.1	24.9	31.6	11.7	2.4	0.3	0.1	-	-	100.0(983)
8개월 이상	0.9	4.0	18.4	28.9	35.9	9.0	2.5	0.1	0.2	-	-	100.0(732)
$\chi^2(df)$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각종 수면습관 관련 내용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손가락을 빨려고 한다’ 4.06점, ‘잠이 들기 전에 혼자 웅얼이, 손장난 등의 놀이를 한다’ 3.92점, ‘밤중에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다’ 3.75점, ‘14~16시간동안 잠을 자며, 낮에는 간혹 2~3시간 동안 깨어있기도 하다’ 3.71점, ‘취침 전 수유를 마친 후 금방 잠이 든다’ 3.4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령 간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 월령이 8개월 이상인 경우보다 5개월 이하인 경우 ‘밤중에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다’, ‘14~16시간동안 잠을 자며, 낮에는 간혹 2~3시간 동안 깨어있기도 하다’, ‘잠이 들기 전에 혼자 웅얼이, 손장난 등의 놀이를 한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 월령이 어릴수록 자면서 손가락을 빨려고 하는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보다 여아가 좀 더 밤중에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표 III-2-5〉 수면습관

단위: 점(명)

구분	취침 전 수유를 마친 후 금방 잠이 든다		밤중에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다		14~16시간동안 잠을 자며, 낮에는 간혹 2~3시간 동안 깨어있기도 하다		손가락을 빨려고 한다		잠이 들기 전에 혼자 웅얼이, 손장난 등의 놀이를 한다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46	1.00	3.75	1.08	3.71	1.03	4.06	1.04	3.92	0.88	(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3.46	1.03	3.79 ^b	1.08	3.79 ^b	0.98	4.53 ^c	0.70	3.96	0.90	(1060)
6개월~7개월	3.50	0.99	3.78 ^{ab}	1.09	3.68 ^{ab}	1.07	4.08 ^b	0.94	3.94	0.88	(983)
8개월 이상	3.40	0.97	3.65 ^a	1.05	3.63 ^a	1.06	3.36 ^a	1.19	3.85	0.86	(732)
F	2.12		3.90 [*]		5.69 ^{**}		342.23 ^{***}		3.64		

구분	취침 전 수유를 마친 후 금방 잠이 든다		밤중에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다		14~16시간동안 잠을 자며, 낮에는 간혹 2~3시간 동안 깨어있기도 하다		손가락을 빨려고 한다		잠이 들기 전에 혼자 웅얼이, 손장난 등의 놀이를 한다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성별											
남	3.48	0.99	3.68	1.10	3.67	1.08	4.06	1.08	3.94	0.89	(1423)
여	3.44	1.01	3.82	1.06	3.74	0.98	4.07	1.01	3.91	0.88	(1352)
<i>t</i>	1.08		-3.29**		-1.80		-0.26		0.9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2) 기본생활

다음은 아동의 배변·목욕 활동에 관한 특성을 조사한 결과, ‘목욕시간을 좋아하는’ 4.29점, ‘하루에 1~2회 정도 대변을 본다’ 4.08점, ‘대변보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있다’ 3.37점으로 나타났다. 아동 월령에 따른 차이는 ‘대변보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있다’는 응답에서 나타났는데, 아동 월령이 높아질수록 대변보는 시간이 일정해지는 편으로 보인다.

〈표 III-2-6〉 배변/씻기 특성

단위: 점(명)

구분	하루에 1~2회 정도 대변을 본다		대변보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있다		목욕시간을 좋아한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08	0.99	3.37	1.01	4.29	0.79	(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4.05	1.05	3.19 ^a	1.03	4.30	0.82	(1060)
6개월~7개월	4.12	0.96	3.39 ^b	1.02	4.25	0.80	(983)
8개월 이상	4.07	0.92	3.62 ^c	0.92	4.31	0.73	(732)
<i>F</i>	1.46		40.92***		1.22		
아동 성별							
남	4.08	0.98	3.37	0.99	4.30	0.78	(1423)
여	4.08	0.99	3.38	1.04	4.27	0.80	(1352)
<i>t</i>	0.01		-0.26		1.1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 $p < .001$.

나. 아동 건강

아동의 건강 특성은 1차 본조사가 아동의 생후 4~6개월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출생 직후의 신생아 건강과 이후 1차 본조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아동의 의료기관 이용 및 관련 질환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다.

1) 신생아 건강

신생아 건강은 신생아 검사,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과 집중치료실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91.9%와 93.8%의 신생아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청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검사 수행을 통해 전체 아동 중 선천성 대사 이상 2.9%, 청력 2.7% 아동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와 청력 검사 이외의 기타 검사¹⁵⁾를 수행한 비율은 전체 아동의 2.1%로 적었다. 그러나 기타 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가 22.4%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와 청력검사에 비해 높은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표 III-2-7〉 신생아 검사 수행 여부 및 결과

단위: %(명)

구분	검사 수행			검사 결과 이상 유무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선천성 대사 이상	91.9	8.1	100.0(2775)	2.9	97.1	100.0(2551)
청력검사	93.8	6.2	100.0(2775)	2.7	97.3	100.0(2604)
기타	2.1	97.9	100.0(2775)	22.4	77.6	100.0(5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신생아시기에 집중치료실 입원 비율(표 III-2-8 참조)은 11.4%였으며, 입원 기간은 '5일 미만'과 '5일 이상~10일 미만'이 각각 29.8%의 비중으로 보였다.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도 17.8%로 2주 이상 장기 입원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사유(표 III-2-9 참조)는 '조산/저체중 출생'이 29.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황달 23.4%, 호흡기 질환 20.8%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입원의 기타 사유(13.4%)로는 저혈당, 산소포화도 수치 저하, 양수 흡입, 발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15) '기타' 검사의 경우 검사 항목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으며 본조사에서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청력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총칭하고 있음.

〈표 III-2-8〉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여부 및 입원 일수

단위: %(명), 일

구분	예	아니오	계(수)	5일 미만	5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15일 미만	15일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1.4	88.6	100.0(2775)	29.8	29.8	22.6	17.8	100.0(316)	11.0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2-9〉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사유

단위: %(명)

구분	조산/저체중 출생	황달	신경 질환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기타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29.8	23.4	0.4	20.8	4.6	5.2	2.2	13.4	0.2	100.0(31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건강 상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아동의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특성을 살펴보았다. 의료이용 주소는 호흡기계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으며 각 주소에 따른 아동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분포를 비교하였다.

가)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의료이용에 대한 주소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기타 사유를 포함하여 모두 9개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응급실 방문 여부와 입원 여부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급실 방문에 따른 주요 질환은 호흡기 질환(23.2%), 피부 질환(9.6%), 비뇨생식계통 질환(3.0%), 소화계통 질환(2.9%), 순환계통 질환(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 비뇨생식계통 질환(57.0%), 소화계통 질환(39.6%), 기타(36.7%), 호흡기 질환(26.8%), 신경계통 질환(16.8%)에서 이루어졌다. 입원의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은 황달, 중이염, 덩플 검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I-2-10〉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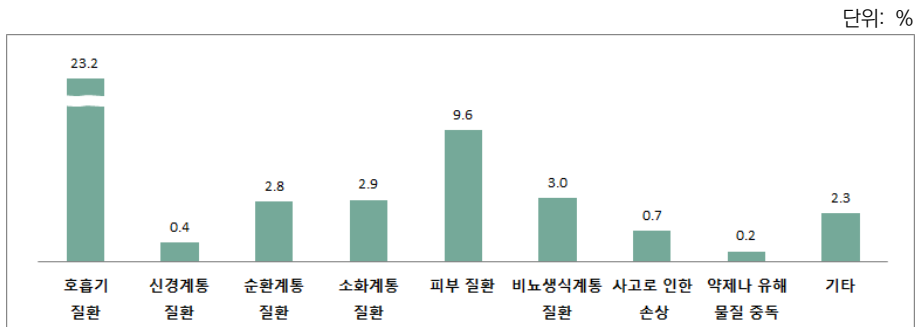
단위: %(명), 일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입원 일수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호흡기 질환	23.2	76.8	100.0 (2775)	26.8	73.2	100.0 (644)	5.82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입원 일수
	예	아니오	계 (수)	예	아니오	계 (수)	
신경계통 질환	0.4	99.6	100.0 (2775)	16.8	83.2	100.0 (10)	14.81
순환계통 질환	2.8	97.2	100.0 (2775)	8.8	91.2	100.0 (77)	11.13
소화계통 질환	2.9	97.1	100.0 (2775)	39.6	60.4	100.0 (81)	4.23
피부 질환	9.6	90.4	100.0 (2775)	4.7	95.3	100.0 (267)	3.51
비뇨생식계통 질환	3.0	97.0	100.0 (2775)	57.0	43.0	100.0 (84)	7.40
사고로 인한 손상	0.7	99.3	100.0 (2775)	14.2	85.8	100.0 (21)	4.74
약제나 유해 물질 중독	0.2	99.8	100.0 (2775)	-	100.0	100.0 (4)	-
기타	2.3	97.7	100.0 (2775)	36.7	63.3	100.0 (63)	10.4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1] 질환별 의료기관·응급실 방문 비율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에 대한 비중을 질환별로 비교해보았다(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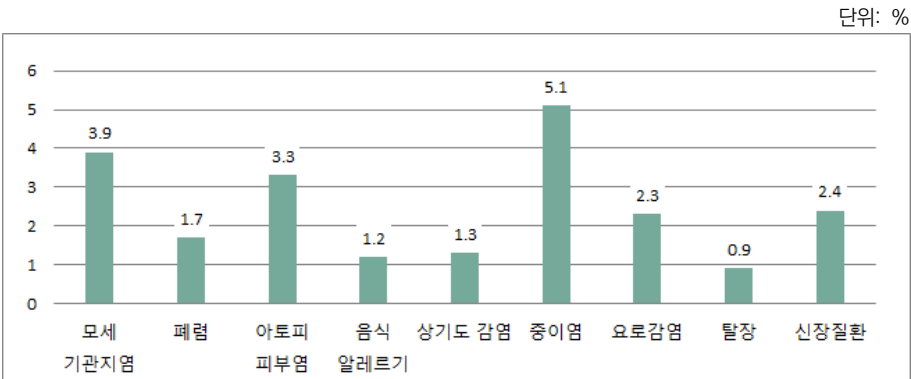
응급실 방문 중 호흡기 질환은 5개월 이하(15.3%), 6개월~7개월(23.9%), 8개월 이상(33.7%)로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응급실 방문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입원에서는 이러한 월령 차이가 없었다(부표 1 참조).

아동의 성별의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중은 여아(20.9%)보다 남아(25.4%)에서 비중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입원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부표 1 참조). 호흡기 질환 이외에 성별에 따른 응급실 방문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피부질환과 비뇨생식계통 질환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외 질환은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부표 2~8 참조).

나) 질환 진단

아동의 질환 진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한 세부 질환별 진단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아동 월령과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세부 질환은 호흡기 질환으로 모세기관지염, 폐렴, 상기도 감염, 중이염 질환 여부를 조사하였고, 알레르기성 질환에서 아토피피부염과 음식 알레르기를 살펴보았다. 이 외 질환으로 요로감염, 탈장, 심장 질환 진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기타 응답(2.7%)으로는 장염, 디플, 사경 등이 있었다.

[그림 III-2-2] 질환별 진단 비율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전반적으로 아동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질환별 진단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모세기관지염, 폐렴, 중이염, 음식 알레르기의 경우 월령 증가와 진단 비율간의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탈장의 경우 아동의 월령이 낮을수록 진단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질환 진단 여부와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폐렴, 아토피피부염, 탈장의 경우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 유의미하게 진단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2-11〉 질환 진단 여부(1)

단위: %(명)

구분	모세기관지염		폐렴		아토피피부염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3.9	96.1	1.7	98.3	3.3	96.7	100.0(2775)

구분	모세기관지염		폐렴		아토피피부염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2.3	97.7	0.9	99.1	2.6	97.4	100.0(1060)
6개월~7개월	4.5	95.5	1.7	98.3	3.8	96.2	100.0(983)
8개월 이상	5.3	94.7	3.0	97.0	3.8	96.2	100.0(732)
$\chi^2(df)$	12.55(2)**		11.85(2)**		3.16(2)		
아동 성별							
남	3.7	96.3	2.3	97.7	4.4	95.6	100.0(1423)
여	4.1	95.9	1.1	98.9	2.2	97.8	100.0(1352)
$\chi^2(df)$	0.32(1)		5.97(1)*		9.89(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표 III-2-12〉 질환 진단 여부(2)

단위: %(명)

구분	음식 알레르기		상기도 감염		중이염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2	98.8	1.3	98.7	5.1	94.9	100.0(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0.7	99.3	1.0	99.0	2.9	97.1	100.0(1060)
6개월~7개월	0.9	99.1	1.2	98.8	6.0	94.0	100.0(983)
8개월 이상	2.5	97.5	1.9	98.1	7.2	92.8	100.0(732)
$\chi^2(df)$	12.78(2)**		2.67(2)		19.59(2)***		
아동 성별							
남	1.4	98.6	1.6	98.4	5.8	94.2	100.0(1423)
여	1.0	99.0	1.0	99.0	4.4	95.6	100.0(1352)
$\chi^2(df)$	0.78(1)		1.41(1)		3.08(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II-2-13〉 질환 진단 여부(3)

단위: %(명)

구분	오로감염		탈장		심장 질환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2.3	97.7	0.9	99.1	2.4	97.6	100.0(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2.5	97.5	1.5	98.5	3.1	96.9	100.0(1060)
6개월~7개월	1.9	98.1	0.8	99.2	1.6	98.4	100.0(983)
8개월 이상	2.4	97.6	0.3	99.7	2.5	97.5	100.0(732)
$\chi^2(df)$	0.67(2)		7.37(2)*		5.01(2)		
아동 성별							
남	2.8	97.2	1.5	98.5	2.2	97.8	100.0(1423)
여	1.7	98.3	0.3	99.7	2.5	97.5	100.0(1352)
$\chi^2(df)$	3.85(1)		10.80(1)**		0.21(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아동의 평소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41.9%가 ‘대체로 좋음’으로 확인되었고 ‘대체로 나쁨’이 0.3%에 불과하여 1차년도 조사 시점의 아동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표 III-2-14〉 평소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대체로 나쁨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계(수)
전체	0.3	2.5	41.9	55.3	100.0(277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3) 장애

패널 아동 중에 장애를 가진 영아는 전체 중 0.1%로 장애 영아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패널 아동이 가진 장애는 경증에 해당하는 심장장애와 중증의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2-15〉 장애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중증	경증
지체장애	-	-	-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청각장애	-	-	-
언어장애	-	-	-
지적장애	-	-	-
정신장애	-	-	-
자폐성 장애	-	-	-
신장장애	-	-	-
심장장애	100.0(1)	-	100.0
호흡기장애	-	-	-
간장애	-	-	-
안면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	-
뇌전증장애	100.0(1)	100.0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4)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아동의 예방 접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출생 직후부터 1차 본조사 시점에 개별

아동 월령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하여 접종 여부를 조사하였다. ‘B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은 99.1% 이루어졌으며 2차 접종은 94.9% 접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B형 간염’ 2차 접종의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생후 1개월 시점에 권장되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아동에서는 접종 비율이 1차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B형 간염’을 포함하여 필수예방접종에 속하는 타 접종의 경우 1차 예방접종률이 91~99%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2차 접종도 90%에 가까운 접종률이 확인되었다. 반면 수막구균과 같이 선택형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률이 64.6%로 필수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다소 낮았다.

〈표 III-2-16〉 예방접종

단위: %(명)

구분	1차		2차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B형간염	99.1	0.9	94.9	5.1	100.0(2775)
결핵	96.0	4.0	-	-	100.0(2775)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97.8	2.2	89.3	10.7	100.0(2775)
폴리오	95.7	4.3	89.1	10.9	100.0(2775)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91.6	8.4	89.2	10.8	100.0(2775)
폐렴구균	98.3	1.7	89.8	10.2	100.0(2775)
로타 바이러스	95.3	4.7	89.7	10.3	100.0(2775)
수막구균	64.6	35.4	-	-	100.0(2775)
기타	1.9	98.1	62.6	37.4	100.0(277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2차의 경우 1차 접종을 완료한 자 중에서의 비율임.

아동의 생후 14~3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1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비율을 살펴보고 이를 아동 성별, 출생순위,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1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비율은 73.3%였으며 아동 성별, 출생순위, 가구소득에 따라 수검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출생순위나 가구소득에서 수검비율 증감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의 생후 4~6개월 시점에 이루어지는 2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비율은 70.2%로 출생순위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비율은 패널 아동이 ‘첫째’인 경우 75.5%로 가장 높았으며 ‘셋째 이상’인 경우 60.5%로 낮았다. 또한 건강검진 수검비율은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 301~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75.5%로 수검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01만원 이상 가구에서 63.0%로 가장 저조한 수검비율을 보였다.

〈표 III-2-17〉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단위: %(명)

구분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6개월)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73.3	26.7	70.2	29.8	100.0(2775)
아동 성별					
남	71.3	28.7	69.8	30.2	100.0(1423)
여	75.5	24.5	70.6	29.4	100.0(1352)
$\chi^2(df)$	6.21(1)*		0.20(1)		
출생순위					
첫째	75.9	24.1	75.5	24.5	100.0(1659)
둘째	68.4	31.6	62.7	37.3	100.0(906)
셋째 이상	74.0	26.0	60.5	39.5	100.0(210)
$\chi^2(df)$	16.89(2)***		56.55(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0.1	29.9	65.4	34.6	100.0(615)
301~500만원	76.5	23.5	75.5	24.5	100.0(1406)
501~700만원	73.7	26.3	65.1	34.9	100.0(477)
701만원 이상	63.3	36.7	63.0	37.0	100.0(277)
$\chi^2(df)$	25.38(3)***		38.25(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01$.

다. 발달 특성

1) 신체 발달

1차년도 아동의 평균 체중을 살펴보면 8kg 미만인 경우는 32.5%, 8kg 이상~9kg 미만인 경우는 34.3%, 9kg 이상~10kg 미만인 경우 21.5%, 10kg 이상인 경우는 11.7%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중은 8.35kg이었다. 여아보다 남아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8〉 체중

단위: %(명), kg

구분	8kg 미만	8kg 이상 9kg 미만	9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모름/ 무응답	계 (수)	평균
전체	32.5	34.3	21.5	11.7	0.1	100.0 (2775)	8.3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56.7	33.9	8.0	1.2	0.2	100.0 (1060)	7.64 ^a
6개월~7개월	24.8	39.8	27.0	8.3	0.1	100.0 (983)	8.44 ^b
8개월 이상	7.7	27.4	33.5	31.4	-	100.0 (732)	9.26 ^c
$\chi^2(df)/F$			n.a.				611.09***
아동 성별							
남	23.3	35.1	25.2	16.4	0.0	100.0 (1423)	8.63
여	42.2	33.5	17.5	6.7	0.2	100.0 (1352)	8.05
$\chi^2(df)/t$			n.a.				13.5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아동의 신장의 경우 65cm 이상 70cm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0% 이상이었으며, 70cm 이상 75cm 이하인 경우는 약 29%, 65cm 미만인 경우는 20.5%로 나타났다. 평균 신장의 경우 68.12cm이었으며, 여아보다 남아의 경우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9〉 신장

단위: %(명), cm

구분	65cm 미만	65cm 이상 70cm 미만	70cm 이상 75cm 미만	75cm 이상	모름/ 무응답	계 (수)	평균
전체	20.5	42.2	28.8	7.6	0.9	100.0 (2775)	68.12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38.2	48.3	11.3	1.4	0.8	100.0 (1060)	65.64 ^a
6개월~7개월	12.5	50.6	31.8	4.7	0.4	100.0 (983)	68.41 ^b
8개월 이상	5.7	22.1	50.2	20.4	1.7	100.0 (732)	71.36 ^c
$\chi^2(df)/F$			831.56(8)***				508.37***
아동 성별							
남	16.4	40.5	33.6	8.8	0.7	100.0 (1423)	68.67
여	24.9	43.9	23.9	6.2	1.2	100.0 (1352)	67.54
$\chi^2(df)/t$			56.96(4)***				6.9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아동의 머리둘레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위가 42cm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2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3cm 이상 44cm 미만인 경우가 전

체의 22.7%로 나타났다. 평균 두위는 42.77cm이었으며, 여아보다는 남아의 두위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0〉 두위

단위: %(명), cm

구분	42cm 미만	42cm 이상 43cm 미만	43cm 이상 44cm 미만	44cm 이상 45cm 미만	45cm 이상	모름/무응답	계 (수)	평균
전체	24.1	20.9	22.7	13.0	16.7	2.7	100.0 (2775)	42.77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35.0	24.5	18.6	9.5	10.5	1.9	100.0 (1060)	42.11 ^a
6개월~7개월	21.3	21.6	26.6	13.1	14.8	2.6	100.0 (983)	42.85 ^b
8개월 이상	12.1	14.7	23.5	17.8	28.1	3.8	100.0 (732)	43.63 ^c
$\chi^2(df)/F$			247.69(10)***					132.60***
아동 성별								
남	17.9	20.0	22.1	14.3	22.7	3.0	100.0 (1423)	43.16
여	30.7	21.9	23.4	11.5	10.3	2.2	100.0 (1352)	42.36
$\chi^2(df)/t$			117.93(5)***					10.5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2) K-DST 검사 결과

다음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인 K-DST(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결과이다. K-DST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의 총 5개의 핵심적인 발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K-DST 각 영역별 점수 분포는 4~5개월 아동과 6~7개월 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팔, 다리와 고개, 몸통 등을 움직이는 행동, 즉 목 가누기, 기기, 걷기, 달리기, 차기 등의 대근육운동을 평가한 결과이다. 4~5개월 아동의 대근육운동 영역 평균 점수는 19.16점이었으며, 또래보다 빠른 수준은 52.8%, 또래 수준은 37.8%이었다. 여아가 남아보다 대근육운동 영역이 더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1〉 대근육운동 영역: 4-5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	7.7	37.8	52.8	0.4	100.0 (1046)	19.16	3.91
아동 성별								
남	1.5	9.2	40.0	48.5	0.8	100.0 (522)	18.82	3.99
여	1.1	6.3	35.5	57.1	0.0	100.0 (524)	19.49	3.81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chi^2(df)/t$	8.20*(3)						-2.7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6~7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은 54.0%, 빠른 수준은 36.4%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8.04점이었다. 이 월령의 아동들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22〉 대근육운동 영역: 6~7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8.0	54.0	36.4	1.0	100.0 (805)	18.04	4.60
아동 성별								
남	0.3	6.3	53.9	38.3	1.3	100.0 (384)	18.15	4.58
여	1.0	9.5	54.2	34.7	0.7	100.0 (421)	17.94	4.62
$\chi^2(df)/t$	n.a.						0.6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다음은 팔과 손, 손가락을 사용하는 미세한 운동과 사물의 조작능력, 협응 운동 발달을 알 수 있는 잡기, 블록 쌓기, 쓰기, 그리기, 자르기 등의 미세운동을 평가하는 소근육운동 영역에 대한 점수이다. 4~5개월 아동의 경우 평균 점수는 21.29점이었으며, 또래 수준은 59.8%, 빠른 수준은 33.7%이었다.

〈표 III-2-23〉 소근육운동 영역: 4~5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	5.4	59.8	33.7	0.1	100.0 (1046)	21.29	3.13
아동 성별								
남	1.3	5.6	60.5	32.4	0.2	100.0 (522)	21.14	3.20
여	0.6	5.2	59.2	35.1	0.0	100.0 (524)	21.44	3.04
$\chi^2(df)/t$	2.36(3)						-1.5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6~7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은 47.1%, 빠른 수준은 40.2%였으며, 평균 점

수는 21.8점이었다. 남아와 여아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24〉 소근육운동 영역: 6~7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	11.1	47.1	40.2	0.0	100.0 (805)	21.80	2.85
아동 성별								
남	1.0	10.9	49.2	38.8	0.0	100.0 (384)	21.82	2.79
여	2.1	11.2	45.1	41.6	0.0	100.0 (421)	21.79	2.91
$\chi^2(df)/t$			2.60(3)				0.1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시청각적, 통합적 지각, 사고, 추리, 비교와 분류, 기억 및 모방, 수 개념, 공간 개념, 문제해결 등과 관련된 행동을 평가하는 인지 영역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보다 빠른 수준은 61.1%, 또래 수준은 35.6%이었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20.03점이었다. 여아의 점수가 남아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2-25〉 인지 영역: 4~5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3.2	35.6	61.1	0.1	100.0 (1046)	20.03	3.09
아동 성별								
남	0.2	3.8	37.5	58.4	0.0	100.0 (522)	19.80	3.11
여	0.0	2.5	33.6	63.7	0.2	100.0 (524)	20.25	3.05
$\chi^2(df)/t$			n.a.				-2.3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6~7개월 아동의 경우 인지 영역의 점수에 있어 또래 수준은 54.4%, 빠른 수준은 35.3%로 나타났다. 평균은 20.71점이었으며, 남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26〉 인지 영역: 6~7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9	9.4	54.4	35.3	0.0	100.0 (805)	20.71	3.03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점수 산출 불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	0.8	9.1	55.2	34.9	0.0	100.0 (384)	20.61	3.07
여	1.0	9.7	53.7	35.6	0.0	100.0 (421)	20.79	3.00
$\chi^2(df)/t$			n.a.				-0.8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용알이, 말하기, 듣기 등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언어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언어 영역에 있어서 4~5개월 아동의 평균 점수는 19.0점이었고, 또래 수준은 59.8%, 빠른 수준은 22.0%이었다. 평균에 있어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27〉 언어 영역: 4~5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17.2	59.8	22.0	100.0 (1046)	19.00	3.83
아동 성별							
남	0.4	17.8	62.6	19.2	100.0 (522)	18.84	3.73
여	1.7	16.6	56.9	24.8	100.0 (524)	19.17	3.93
$\chi^2(df)/t$		9.91*(3)				-1.4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6~7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은 65.7%, 빠른 수준은 22%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19.95점이었다. 4~5개월 아동과 마찬가지로 성별에서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28〉 언어 영역: 6~7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	11.3	65.7	22.0	100.0 (805)	19.95	3.58
아동 성별							
남	1.0	10.7	65.6	22.7	100.0 (384)	19.99	3.63
여	1.0	11.9	65.8	21.4	100.0 (421)	19.92	3.53
$\chi^2(df)/t$			n.a.			0.2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타인과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기술로 눈 맞춤, 공동주시(joint attention), 모방 행동, 타인의 감정 파악, 규칙이 있는 놀이하기, 상상놀이 등의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성 영역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은 60.6%이었으며, 빠른 수준은 27.8%이었다. 평균 점수는 19.02점이었고,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9〉 사회성 영역: 4-5개월 아동

단위: %(명), 점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	9.9	60.6	27.8	100.0 (1046)	19.02	3.47
아동 성별							
남	1.7	12.6	60.0	25.7	100.0 (522)	18.72	3.57
여	1.5	7.3	61.3	30.0	100.0 (524)	19.31	3.35
$\chi^2(df)/t$		9.51*(3)					-2.7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6~7개월 아동의 경우 또래 수준은 62.0%이었으며, 빠른 수준은 30.7%이었다. 사회성 영역의 평균 점수는 19.57점이었고,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30〉 사회성 영역: 6-7개월 아동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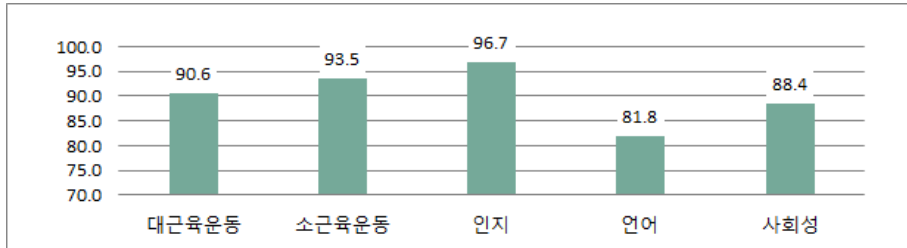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	5.3	62.0	30.7	100.0 (805)	19.57	3.24
아동 성별							
남	2.1	5.2	64.6	28.1	100.0 (384)	19.45	3.16
여	1.9	5.5	59.6	33.0	100.0 (421)	19.68	3.31
$\chi^2(df)/t$		2.42(3)					-1.0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4~5개월 및 6~7개월 아동의 결과 중 양호(또래 수준 + 빠른 수준)한 수준으로 나타난 비율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림 III-2-3]과 같다.

[그림 III-2-3] 4~5개월 아동 K-DST 검사 결과: 양호 수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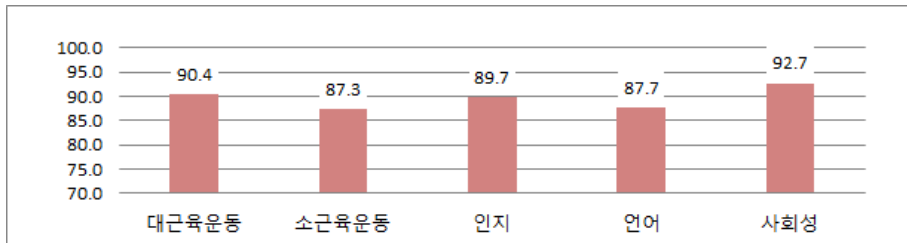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2-4] 6~7개월 아동 K-DST 검사 결과: 양호 수준 비율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K-DST는 발달장애 선별검사로서 각 발달 영역별로 또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지연이 의심될 때 선별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에 여러 항목들을 통해 발달이 지연되었는지는 파악하고 있으나, 일부 발달사항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6~7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의 추가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질문: 한쪽 손만 주로 사용한다). 그 결과 심화평가가 권고되는 아동의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표 III-2-31〉 추가질문 결과(6~7개월용)

단위: %(명)

구분	정상	심화평가 권고	계 (수)
전체	99.6	0.4	100.0 (80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3) 영아 기질 척도 결과

다음은 영아 기질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외향성 점수는 5.48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동 월령이 높아질수록 외향성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른 변수(아동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평균 4.61점으로 나타나 중간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아동 월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지향/조절 점수의 경우에는 평균 5.56점이었는데, 이 영역의 경우 6~7개월 아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2〉 영아 기질

단위: 점(명)

구분	외향성		부정적 정서		지향/조절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48	0.75	4.61	1.10	5.56	0.64	(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5.18 ^a	0.77	4.24 ^a	1.05	5.55 ^{ab}	0.63	(1060)
6개월~7개월	5.59 ^b	0.68	4.72 ^b	1.08	5.59 ^b	0.65	(983)
8개월 이상	5.75 ^c	0.64	5.01 ^c	1.03	5.52 ^a	0.64	(732)
<i>F</i>	160.96***		121.96***		3.21*		
아동 성별							
남	5.49	0.74	4.58	1.11	5.56	0.64	(1423)
여	5.46	0.75	4.65	1.09	5.55	0.64	(1352)
<i>t</i>	1.18		-1.80		0.55		
출생순위							
첫째	5.49	0.71	4.59	1.12	5.55	0.63	(1659)
둘째	5.46	0.78	4.64	1.06	5.56	0.64	(906)
셋째 이상	5.43	0.85	4.63	1.11	5.56	0.72	(210)
<i>F</i>	1.21		0.60		0.0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7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항상 그렇다).

* $p < .05$, *** $p < .001$.

3. 부모 및 가구 특성

가. 부모 건강

부모 건강에 대한 자료는 1차년도 조사의 아버지와 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부모의 장애여부, 흡연 및 음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장애

아버지 장애 보유 비중은 1.7%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증 0.4%, 경증 1.3%에 해당하였다. 아동의 어머니 장애 보유는 전체 0.8%로 중증과 경증이 각각 0.4%로 확인되었다.

〈표 Ⅲ-3-1〉 부모 장애 여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중증	경증	해당없음	계(수)	중증	경증	해당없음	계(수)
전체	0.4	1.3	98.3	100.0(1571)	0.4	0.4	99.2	100.0(247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흡연 및 음주

부모의 흡연 행태에 대해 ‘현재 흡연 여부’, ‘임신 중 흡연 여부’, ‘7일 내 간접흡연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현재 흡연 여부’는 29.7%로 어머니의 ‘현재 흡연 여부’ 2.6%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현재 흡연하고 있는 아버지 중에서 65.0%, 어머니 중에서 24.2%가 임신 중에도 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7일 내 간접흡연 여부’는 각각 12.5%, 12.8%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경우 최근 ‘7일 내 간접흡연 여부’는 연령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어머니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7일 내 간접흡연 경험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구간은 ‘300만원 이하’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17.2%로 가장 높았다(부표 9 참조).

〈표 Ⅲ-3-2〉 부모 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현재 흡연 여부	29.7	70.3	100.0(1571)	2.6	97.4	100.0(2471)
임신 중 흡연 여부	19.3	80.7	100.0(1571)	0.6	99.4	100.0(2471)
임신 중 흡연 여부 (현재 흡연자 중)	65.0	35.0	100.0(467)	24.2	75.8	100.0(65)
7일 내 간접흡연 여부	12.5	87.5	100.0(1571)	12.8	87.2	100.0(247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모 음주행태의 경우, 아버지의 음주 비중은 66.4%로 어머니의 음주 비중 48.0%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버지의 음주 빈도는 ‘월 2~4회’가 46.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거의 매일’도 7.9%에 달하였다. 어머니의 음주빈도 또한 ‘월 2~4회’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은 5.7%이었다.

〈표 III-3-3〉 음주 습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마셨음	마시지 않았음	계(수)	마셨음	마시지 않았음	계(수)
전체	66.4	33.6	100.0(1571)	48.0	52.0	100.0(247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3-4〉 음주 습관: 음주량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월 1회 이하	월 2~4회	월 주 2~4회	거의 매일	계(수)	월 1회 이하	월 2~4회	월 주 2~4회	거의 매일	계(수)
전체	13.4	46.7	32.0	7.9	100.0(1043)	16.8	50.6	27.0	5.7	100.0(118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한편 임신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주 여부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마셨음’은 57.5%로 높았으나 어머니의 경우 동일 응답 항목이 1.2%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임신 후 음주 양상이 매우 다름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임신 초기에 모르고 마셨음’의 경우는 18.5%에 해당하였다.

〈표 III-3-5〉 임신 중 부모 음주 여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혀 마시지 않았음	모르고 초기에 마셨음	임신 사실 안 이후에도 마셨음	계(수)	전혀 마시지 않았음	모르고 초기에 마셨음	임신 사실 안 이후에도 마셨음	계(수)
전체	32.2	10.2	57.5	100.0(1043)	80.3	18.5	1.2	100.0(118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3)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이용시간 조절과 이용에 따른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에 대해 10개의 문항을 활용해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여 아동 부모의 연령 및 최종 학력,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학력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취업 여부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 정도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3-6〉 스마트폰 과의존: 아버지

단위: %(명), 점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7.1	10.4	2.5	100.0(1571)	17.08	5.32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100.0	-	-	100.0(13)	16.30	5.19
25~30세 미만	91.7	4.6	3.7	100.0(102)	15.91	5.60
30~35세 미만	85.2	12.2	2.6	100.0(492)	17.06	5.39
35~40세 미만	87.7	9.8	2.6	100.0(627)	17.26	5.32
40세 이상	86.8	11.4	1.8	100.0(331)	17.19	5.13
$\chi^2(df)/F$	n.a.				1.53	
아버지 최종 학력						
고졸이하	86.2	11.2	2.6	100.0(293)	16.82	5.52
전문대(기능대학)	82.8	12.0	5.2	100.0(280)	17.56	5.74
대학교	88.2	10.2	1.6	100.0(841)	17.03	5.18
대학원 이상	90.8	7.3	2.0	100.0(157)	16.99	4.95
$\chi^2(df)/F$	16.08(6)*				1.04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87.3	10.3	2.4	100.0(1509)	17.09 ^a	5.29
학업 중	63.7	21.6	14.8	100.0(12)	20.95 ^b	7.59
미취업/미취학	86.7	10.5	2.8	100.0(49)	15.79 ^a	5.33
$\chi^2(df)/F$	n.a.				4.7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 $p < .01$.

어머니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연령과 학력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스마트폰 의존 고위험군에서 연령과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연령 특성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점수의 평균값 비교에서도 연령별로 평균값이 서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이 알 수 있었다.

〈표 III-3-7〉 스마트폰 과의존: 어머니

					단위: %(명), 점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3.7	12.6	3.7	100.0(2471)	18.30	5.30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86.0	6.5	7.5	100.0(51)	18.05 ^a	6.72
25~30세 미만	81.3	12.8	5.9	100.0(297)	18.30 ^a	5.69
30~35세 미만	82.6	14.1	3.3	100.0(1127)	18.54 ^a	5.11
35~40세 미만	85.2	11.0	3.7	100.0(787)	18.26 ^a	5.28
40세 이상	86.7	11.6	1.7	100.0(209)	17.24 ^a	5.29
$\chi^2(df)/F$		16.38(8)*				2.72*
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이하	82.0	10.5	7.5	100.0(400)	18.57	5.84
전문대(기능대학)	81.8	14.4	3.8	100.0(501)	18.43	5.47
대학교	84.8	12.5	2.8	100.0(1301)	18.15	5.13
대학원 이상	84.5	13.0	2.5	100.0(269)	18.41	4.89
$\chi^2(df)/F$		22.71(6)**				0.83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84.0	13.1	2.9	100.0(1284)	18.48	5.05
학업 중	88.6	2.7	8.7	100.0(25)	16.57	6.16
미취업/미취학	83.2	12.2	4.6	100.0(1161)	18.14	5.53
$\chi^2(df)/F$		n.a				2.6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다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 $p < .01$.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문제를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아버지의 경우, 현저성에서 연령과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문제적 결과에서는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저성에 따른 값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III-3-8〉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 아버지

단위: 점(명)

구분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44	2.51	(1571)	5.07	2.02	(1571)	5.57	1.88	(1571)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5.73	2.23	(13)	4.72 ^a	1.50	(13)	5.84	1.94	(13)
25~30세 미만	6.00	2.74	(102)	4.39 ^a	1.88	(102)	5.52	2.11	(102)

구분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30~35세 미만	6.33	2.50	(492)	5.09 ^a	2.06	(492)	5.65	1.95	(492)
35~40세 미만	6.60	2.52	(627)	5.11 ^a	1.99	(627)	5.55	1.86	(627)
40세 이상	6.49	2.44	(331)	5.21 ^a	2.04	(331)	5.50	1.72	(331)
<i>F</i>	1.97			3.47**			0.43		
아버지 최종 학력									
고졸이하	6.38	2.47	(293)	4.84	2.05	(293)	5.60	2.01	(293)
전문대(기능대학)	6.70	2.62	(280)	5.15	2.18	(280)	5.71	1.97	(280)
대학교	6.37	2.52	(841)	5.10	1.95	(841)	5.55	1.84	(841)
대학원 이상	6.47	2.33	(157)	5.21	1.99	(157)	5.31	1.62	(157)
<i>F</i>	1.26			1.74			1.61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6.44	2.51	(1509)	5.08 ^a	2.01	(1509)	5.57 ^{ab}	1.87	(1509)
학업 중	7.93	2.91	(12)	6.40 ^b	2.51	(12)	6.62 ^b	2.91	(12)
미취업/미취학	6.11	2.48	(49)	4.57 ^a	1.98	(49)	5.11 ^a	1.71	(49)
<i>F</i>	2.59			4.18*			3.43*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어머니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하위영역 중에서 조절실패는 연령과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문제적 결과에서 최종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조절실패는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평균값 7.52점으로 ‘미취업/미취학’인 경우 평균값 7.14점과 ‘학업 중’인 평균값 6.52점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III-3-9〉 스마트폰 과의존 하위영역: 어머니

단위: 점(명)

구분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34	2.54	(2471)	5.63	2.21	(2471)	5.34	1.76	(2471)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6.73 ^a	2.67	(51)	5.45	2.74	(51)	5.87	2.32	(51)
25~30세 미만	7.31 ^{ab}	2.77	(297)	5.68	2.38	(297)	5.30	1.79	(297)
30~35세 미만	7.59 ^b	2.45	(1127)	5.66	2.16	(1127)	5.29	1.72	(1127)
35~40세 미만	7.23 ^{ab}	2.54	(787)	5.66	2.20	(787)	5.37	1.76	(787)
40세 이상	6.57 ^a	2.42	(209)	5.29	2.08	(209)	5.38	1.76	(209)
<i>F</i>	8.75***			1.44			1.49		
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이하	7.41	2.68	(400)	5.61	2.43	(400)	5.55 ^a	2.00	(400)
전문대(기능대학)	7.40	2.59	(501)	5.61	2.25	(501)	5.42 ^a	1.95	(501)

구분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대학교	7.26	2.51	(1301)	5.63	2.15	(1301)	5.26 ^a	1.62	(1301)
대학원 이상	7.47	2.36	(269)	5.66	2.08	(269)	5.28 ^a	1.58	(269)
<i>F</i>	0.88			0.04			3.23 [*]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7.52 ^a	2.45	(1284)	5.70	2.16	(1284)	5.26	1.61	(1284)
학업 중	6.52 ^a	2.70	(25)	4.95	2.50	(25)	5.09	1.63	(25)
미취업/미취학	7.14 ^a	2.62	(1161)	5.57	2.25	(1161)	5.43	1.91	(1161)
<i>F</i>	8.15 ^{***}			2.23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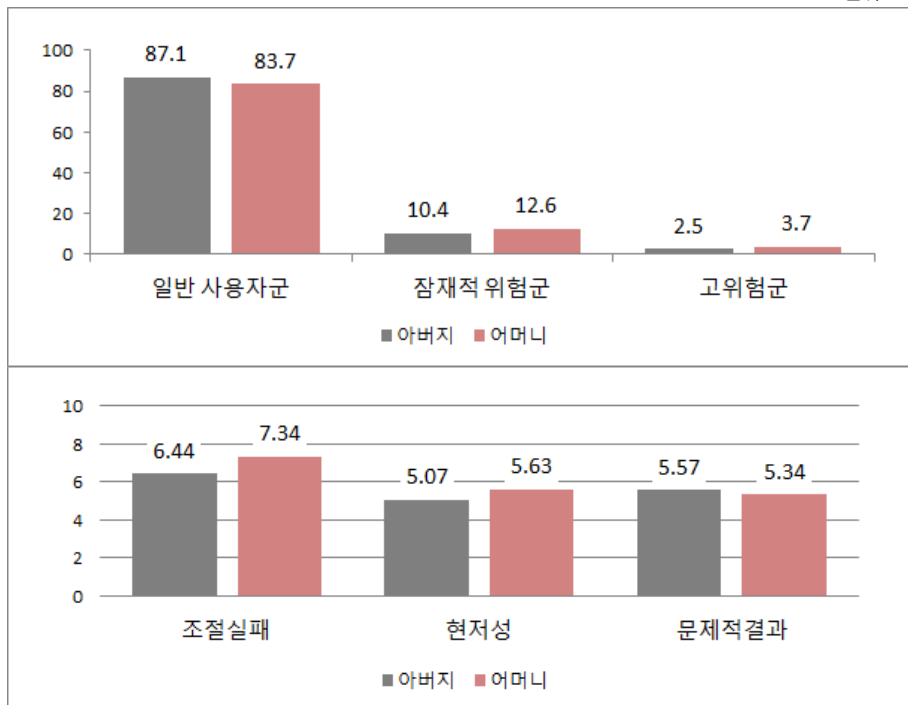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그림 III-3-1]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나. 부모 심리적 및 관계적 특성

1) 심리적 특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림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그림은 3.45점, 어머니의 그림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최종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 3.62점으로 대학원 미만 최종 학력을 가진 아버지보다 그림이 높았다. 어머니는 연령, 최종 학력,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림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미취업/미취학인 경우에 취업 중/학업 중인 경우보다 그림이 낮게 나타났다.

〈표 Ⅲ-3-10〉 부모의 그림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45	0.56	(1571)	3.21	0.54	(2471)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43	0.56	(13)	3.09 ^a	0.46	(51)
25~30세 미만	3.47	0.58	(102)	3.18 ^a	0.60	(297)
30~35세 미만	3.46	0.56	(492)	3.19 ^a	0.54	(1127)
35~40세 미만	3.45	0.53	(627)	3.24 ^a	0.53	(787)
40세 이상	3.43	0.58	(331)	3.28 ^a	0.52	(209)
<i>F</i>	0.26			2.64 [*]		
아버지/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이하	3.43 ^a	0.52	(293)	3.09 ^a	0.53	(400)
전문대(기능대학)	3.39 ^a	0.57	(280)	3.14 ^{ab}	0.52	(501)
대학교	3.45 ^a	0.55	(841)	3.23 ^b	0.53	(1301)
대학원 이상	3.62 ^b	0.62	(157)	3.40 ^c	0.57	(269)
<i>F</i>	6.21 ^{***}			22.03 ^{***}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3.45	0.55	(1509)	3.28 ^a	0.55	(1284)
학업 중	3.37	0.63	(12)	3.29 ^a	0.63	(25)
미취업/미취학	3.45	0.58	(49)	3.14 ^a	0.53	(1161)
<i>F</i>	0.15			21.08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42	0.61	(355)	3.13 ^a	0.54	(545)
301~500만원	3.44	0.54	(768)	3.20 ^{ab}	0.54	(1239)
501~700만원	3.47	0.52	(286)	3.24 ^{bc}	0.54	(434)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701만원 이상 <i>F</i>	3.55	0.54	(162)	3.34 ^c	0.53	(253)
	2.33			9.26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18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3.02점이었다. 아버지는 연령, 최종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는 연령이 25~35세인 경우, 그리고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어머니는 연령, 최종 학력,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는 연령이 30~40세 미만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 취업 여부에서는 미취업/미취학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업 중인 경우 가장 높았다.

〈표 III-3-11〉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18	0.45	(1571)	3.02	0.49	(2471)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90 ^a	0.40	(13)	2.82 ^a	0.48	(51)
25~30세 미만	3.20 ^b	0.51	(102)	2.96 ^{ab}	0.54	(297)
30~35세 미만	3.25 ^b	0.46	(492)	3.06 ^b	0.49	(1127)
35~40세 미만	3.16 ^{ab}	0.42	(627)	3.01 ^b	0.48	(787)
40세 이상	3.14 ^{ab}	0.45	(331)	3.03 ^b	0.47	(209)
<i>F</i>	5.36 ^{***}			4.90 ^{***}		
아버지/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이하	3.11 ^a	0.45	(293)	2.82 ^a	0.49	(400)
전문대(기능대학)	3.16 ^a	0.43	(280)	2.97 ^b	0.45	(501)
대학교	3.20 ^{ab}	0.45	(841)	3.06 ^b	0.49	(1301)
대학원 이상	3.28 ^b	0.44	(157)	3.22 ^c	0.48	(269)
<i>F</i>	5.31 ^{**}			43.67 ^{***}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3.18	0.45	(1509)	3.10 ^{ab}	0.48	(1284)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학업 중	3.16	0.49	(12)	3.20 ^b	0.50	(25)
미취업/미취학	3.21	0.51	(49)	2.93 ^a	0.49	(1161)
<i>F</i>	0.08			39.8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15 ^a	0.43	(355)	2.97 ^a	0.52	(545)
301~500만원	3.16 ^{ab}	0.46	(768)	2.98 ^a	0.48	(1239)
501~700만원	3.25 ^{bc}	0.42	(286)	3.09 ^b	0.48	(434)
701만원 이상	3.28 ^c	0.44	(162)	3.22 ^c	0.44	(253)
<i>F</i>	6.67***			22.7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부모의 우울은 최근 7일 동안의 감정 상태를 4점 척도, 10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0~9점은 비우울군, 10~12점은 상담이 필요한 경도우울군, 13점 이상을 치료가 필요한 주요우울군에 속한다.

먼저, 아버지의 우울은 평균 5.99점이며, 비우울군 78.5%, 경도우울군 10.6%, 주요우울군 10.9%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우울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5세 미만의 아버지의 우울은 7.61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도우울군이 36.0%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이상 집단에서도 우울 점수가 비교적 높았다. 어머니와는 달리 연령 이외의 다른 특성에 따라서는 우울 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12〉 아버지의 우울

구분					단위: %(명), 점	
	비우울군	경도우울군	주요우울군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8.5	10.6	10.9	100.0(1571)	5.99	4.72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64.0	36.0	-	100.0(13)	7.61 ^a	3.54
25~30세 미만	77.8	7.1	15.1	100.0(102)	6.05 ^a	5.16
30~35세 미만	81.7	9.4	8.9	100.0(492)	5.42 ^a	4.60
35~40세 미만	79.3	9.8	10.9	100.0(627)	6.12 ^a	4.53
40세 이상	72.8	14.5	12.7	100.0(331)	6.52 ^a	5.08
$\chi^2(df)/F$	24.74(8)**				3.37**	
아버지 최종 학력						

구분	비우울군	경도우울군	주요우울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고졸이하	74.6	10.2	15.2	100.0 (293)	6.55	4.98
전문대(기능대학)	75.9	13.2	10.9	100.0 (280)	6.11	4.84
대학교	79.9	9.9	10.2	100.0 (841)	5.86	4.67
대학원 이상	82.6	11.0	6.3	100.0 (157)	5.43	4.24
$\chi^2(df)/F$		11.57(6)			2.41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78.4	10.8	10.8	100.0(1509)	6.00	4.73
학업 중	92.8	7.2	-	100.0(12)	4.65	2.71
미취업/미취학	78.3	7.6	14.0	100.0(49)	6.04	5.08
$\chi^2(df)/F$		n.a.			0.5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7.4	11.4	11.2	100.0(355)	6.12	4.61
301~500만원	78.2	11.2	10.5	100.0(768)	5.91	4.77
501~700만원	79.6	10.1	10.3	100.0(286)	6.01	4.62
701만원 이상	80.2	7.2	12.6	100.0(162)	6.05	4.99
$\chi^2(df)/F$		2.78(6)			0.1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0~9점: 비우울군, 10~12점: 경도우울군, 13점 이상: 주요우울군).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4)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어머니의 우울은 평균 7.81점이며, 비우울군 66.6%, 경도우울군 11.5%, 주요우울군 21.9%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은 연령, 최종 학력,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우울이 10.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치료가 필요한 주요우울군의 비율이 30.2%로 매우 높았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경도우울군도 25세 미만에서 18.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서는 미취업/미취학에서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 중인 경우 가장 낮았다.

〈표 III-3-13〉 어머니의 우울

단위: %(명), 점

구분	비우울군	경도우울군	주요우울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6.6	11.5	21.9	100.0(2471)	7.81	5.60
어머니 연령						

구분	비우울군	경도우울군	주요우울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25세 미만	51.8	18.0	30.2	100.0(51)	10.21 ^b	6.00
25~30세 미만	63.3	10.0	26.7	100.0(297)	8.46 ^{ab}	6.10
30~35세 미만	68.9	10.0	21.1	100.0(1127)	7.49 ^a	5.62
35~40세 미만	66.0	12.1	21.8	100.0(787)	7.90 ^a	5.38
40세 이상	64.3	17.6	18.1	100.0(209)	7.62 ^a	5.29
$\chi^2(df)/F$	21.28(8)**				4.41*	
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이하	55.3	13.1	31.6	100.0(400)	9.40 ^c	6.03
전문대(기능대학)	61.8	12.3	26.0	100.0(501)	8.26 ^b	5.76
대학교	69.5	12.0	18.5	100.0(1301)	7.36 ^{ab}	5.44
대학원 이상	78.1	5.2	16.8	100.0(269)	6.75 ^a	4.80
$\chi^2(df)/F$	58.00(6)***				18.17***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70.0	11.3	18.7	100.0(1284)	7.26 ^{ab}	5.38
학업 중	84.1	6.1	9.9	100.0(25)	6.05 ^a	4.91
미취업/미취학	62.4	11.8	25.8	100.0(1161)	8.45 ^b	5.78
$\chi^2(df)/F$	22.91(4)***				15.0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9.0	11.4	29.7	100.0(545)	8.73 ^c	6.09
301~500만원	65.3	12.1	22.6	100.0(1239)	7.91 ^{bc}	5.48
501~700만원	73.7	10.2	16.1	100.0(434)	7.10 ^{ab}	5.52
701만원 이상	77.0	11.0	12.0	100.0(253)	6.53 ^a	4.80
$\chi^2(df)/F$	47.51(6)***				11.8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점 척도임. 0~9점: 비우울군, 10~12점: 경도우울군, 13점 이상: 주요우울군

* $p < .05$, ** $p < .01$, *** $p < .001$.

2) 관계적 특성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7점 척도, 4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6.11점,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5.54점으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연령,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0~35세 미만까지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는 미취업/미취학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학업 중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14〉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11	0.91	(1561)	5.54	1.21	(2457)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6.39 ^a	0.78	(13)	5.28 ^a	1.27	(51)
25~30세 미만	6.21 ^a	1.08	(102)	5.50 ^{ab}	1.27	(295)
30~35세 미만	6.22 ^a	0.83	(491)	5.73 ^b	1.10	(1123)
35~40세 미만	6.10 ^a	0.88	(625)	5.38 ^{ab}	1.30	(783)
40세 이상	5.94 ^a	1.00	(324)	5.21 ^a	1.17	(205)
<i>F</i>	5.33 ^{***}			15.20 ^{***}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6.11	0.91	(1502)	5.62 ^{ab}	1.17	(1282)
학업 중	6.10	0.45	(12)	6.01 ^b	0.90	(25)
미취업/미취학	6.14	0.96	(47)	5.45 ^a	1.25	(1150)
<i>F</i>	0.02			8.14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04	0.97	(351)	5.37 ^a	1.35	(533)
301~500만원	6.11	0.91	(764)	5.56 ^{ab}	1.20	(1238)
501~700만원	6.18	0.83	(283)	5.59 ^b	1.11	(433)
701만원 이상	6.18	0.89	(162)	5.74 ^b	1.07	(253)
<i>F</i>	1.54			6.35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7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7. 매우 만족한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부부갈등을 5점 척도, 8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1.86점,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1.94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연령,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25세 미만인 경우 2.33점으로 부부갈등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30~35세 미만까지는 부부갈등이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취업 여부에서는 미취업/미취학인 경우 부부갈등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 중인 경우 가장 낮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15〉 부부갈등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86	0.79	(1561)	1.94	0.87	(2457)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04	0.74	(13)	2.33 ^b	1.09	(51)
25~30세 미만	1.88	0.99	(102)	1.96 ^a	0.98	(295)
30~35세 미만	1.82	0.79	(491)	1.82 ^a	0.81	(1123)
35~40세 미만	1.89	0.75	(625)	2.04 ^{ab}	0.89	(783)
40세 이상	1.89	0.78	(324)	2.11 ^{ab}	0.83	(205)
<i>F</i>	0.80			12.64 ^{***}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1.87	0.79	(1502)	1.88 ^b	0.84	(1282)
학업 중	1.92	0.37	(12)	1.43 ^a	0.47	(25)
미취업/미취학	1.82	0.73	(47)	2.03 ^b	0.91	(1150)
<i>F</i>	0.11			13.54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89	0.77	(351)	2.03 ^b	0.91	(533)
301~500만원	1.88	0.80	(764)	1.96 ^b	0.89	(1238)
501~700만원	1.82	0.77	(283)	1.88 ^{ab}	0.81	(433)
701만원 이상	1.80	0.78	(162)	1.78 ^a	0.78	(253)
<i>F</i>	0.87			5.72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01$.

다. 임신 및 출산

어머니 조사를 통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임신 및 출산 특성은 임신 중에 태교와 출산·양육 준비, 출산과 산후조리, 후속 출산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1) 태교 및 출산·양육 준비

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태교와 출산·양육 준비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임신 기간 중 건강과 안정을 위해 수행했던 활동을 보기항목으로 제시하고 제시된 활동의 빈도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임신 기간 중 수행했던 활동은 ‘음식조절, 영양제 섭취, 커피제한 등’이 4.01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한 활동으로 확인되었으며 ‘좋은 생각하기, 좋은 말하기, 미워하지 않기 등’도 3.68점으로 임신

기간 중에 자주 하는 활동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십자수, 퀼트 등’의 활동은 1.89점으로 보기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빈도로 수행된 활동으로 나타났다.

〈표 III-3-16〉 임신 기간 중 건강과 안정을 위해 활동 여부: 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하지 않았다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계(수)	평균
1) 책읽기, 태아에게 말하기 등	1.3	8.5	35.1	36.6	18.5	100.0(2471)	3.62
2) 음악감상, 동요 듣고 부르기 등	3.6	11.7	32.8	34.4	17.6	100.0(2471)	3.51
3) 음식조절, 영양제 섭취, 커피제한 등	0.8	6.5	18.6	39.2	34.8	100.0(2471)	4.01
4) 아기모습 상상하기, 레고놀이, 공작 등	7.8	25.0	37.7	21.6	7.9	100.0(2471)	2.97
5) 좋은 그림 보기, 전시회 관람 등	19.3	34.1	30.0	12.2	4.4	100.0(2471)	2.48
6) 요가, 산책 등	4.1	13.2	35.7	34.2	12.9	100.0(2471)	3.39
7) 좋은 생각하기, 좋은 말하기, 미워하 지 않기 등	1.8	8.2	28.9	42.1	19.1	100.0(2471)	3.68
8) 외국어, 숫자 공부 등	26.0	31.4	23.5	13.8	5.4	100.0(2471)	2.41
9) 기도, 명상 등	27.1	26.6	23.3	15.3	7.8	100.0(2471)	2.50
10) 십자수, 퀼트 등	52.5	22.4	12.7	8.3	4.0	100.0(2471)	1.8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임신 중에 출산 및 양육관련 교육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참여하였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육 참여 내용은 ‘신생아 돌봄’,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 및 예방’으로 구분하고 참여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제공한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를 살펴보았다.

‘신생아 돌봄’ 교육의 경우 ‘조산원/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참여한 경우가 63.9%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과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학습’도 각각 13.7%와 9.4%로 나타났다. ‘산모 건강관리’의 경우 ‘병원’ 31.5%, ‘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학습’ 15.2%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운 적 없음’도 14.0%로 나타났다.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의 경우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학습’(38.2%)과 ‘조산원/산후조리원’(29.6%)을 통해서 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 및 예방’ 교육은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학습’(39.5%),

‘조산원/산후조리원’(23.6%), ‘병원’(16.9%), ‘배운 적 없음’(11.8%)순으로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과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 및 예방’은 주로 비대면 방식의 학습도구나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III-3-17〉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참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신생아 돌봄	13.7	63.9	1.2	0.1	4.6	0.9	3.6	0.4	0.2	9.4	1.9	100.0 (2471)
산모 건강관리	31.5	30.0	1.4	0.0	3.3	0.7	3.1	0.3	0.4	15.2	14.0	100.0 (2471)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7.7	29.6	2.4	0.1	6.6	1.2	4.7	0.1	0.8	38.2	8.5	100.0 (2471)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 및 예방	16.9	23.6	3.2	0.3	2.0	0.3	1.7	0.1	0.4	39.5	11.8	100.0 (2471)

주: 1) ① 병원,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③ 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⑤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공공 산후도우미), ⑥ 민간 산후도우미, ⑦ 친정 부모님, ⑧ 시부모님, ⑨ 형제·자매, ⑩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학습, ⑪ 배운 적 없음.

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임신 중에 출산 및 양육관련 교육에 배우자 동반여부를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생아 돌봄’ 교육의 배우자 동반 여부는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 및 예방’에서도 유의미하였다. 특히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둘째’ 혹은 ‘셋째 이상’ 아동에 비해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에 배우자 동반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III-3-18〉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참여: 배우자 동반 여부

단위: %(명)

구분	신생아 돌봄	산모 건강 관리	신생아 상호작용	영아 돌연사	계(수)
전체	44.3	41.0	47.8	47.6	100.0(2471)
출생순위					
첫째	47.0	44.4	52.5	51.5	100.0(1488)
둘째	40.6	35.4	40.2	41.6	100.0(807)
셋째 이상	37.9	39.1	40.7	41.1	100.0(177)
$\chi^2(df)$	11.30(2)**	15.19(2)**	32.37(2)***	20.96(2)***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53.8	55.0	51.2	47.1	100.0(51)
25~30세 미만	50.5	51.3	56.1	59.7	100.0(297)
30~35세 미만	47.1	44.8	51.8	51.4	100.0(1127)

구분	신생아 돌봄	산모 건강 관리	신생아 상호작용	영아 돌연사	계(수)
35~40세 미만	41.0	33.9	43.0	40.9	100.0(787)
40세 이상	30.4	30.6	31.3	35.9	100.0(209)
$\chi^2(df)$	29.46(4)***	43.10(4)***	41.14(4)***	42.79(4)***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44.6	39.9	46.8	47.1	100.0(1284)
학업 중	24.9	29.6	28.0	24.2	100.0(25)
미취업/미취학	44.3	42.5	49.3	48.5	100.0(1161)
$\chi^2(df)$	3.13(2)	2.54(2)	4.60(2)	3.88(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7.4	43.8	50.5	51.0	100.0(545)
301~500만원	42.5	40.6	47.6	47.9	100.0(1239)
501~700만원	44.5	39.8	45.5	44.4	100.0(434)
701만원 이상	46.2	39.7	46.9	44.6	100.0(253)
$\chi^2(df)$	3.99(3)	1.95(3)	2.45(3)	4.57(3)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2.7	40.1	47.0	43.1	100.0(95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6.6	43.5	48.1	50.8	100.0(1160)
읍·면	40.8	35.5	48.9	49.2	100.0(362)
$\chi^2(df)$	5.30(2)	6.72(2)*	0.44(2)	11.31(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출산 및 산후조리

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어머니의 출산 전 몸무게, 분만형태, 산후조리원 이용여부와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이용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공공과 민간 산후도우미 이용여부와 기간, 만족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출산 전 몸무게 평균은 68.16kg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만형태는 계획된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이 각각 40.5%, 39.3%로 나타나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 20.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분만형태는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자연분만 비중이 더 높았으며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는 ‘첫째’인 경우 29.4%로 뚜렷하게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개별 분만형태는 어머니의 연령과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계획된 제왕절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9〉 출산 직전 임부 몸무게

단위: %, kg(명)

구분	~50kg	~60kg	~70kg	~80kg	80kg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1	21.4	32.2	25.5	16.7	100.0(2471)	68.1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3-20〉 분만 형태

단위: %(명)

구분	자연분만	계획된 제왕절개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	계(수)
전체	39.3	40.5	20.1	100.0(2471)
출생순위				
첫째	35.4	35.2	29.4	100.0(1488)
둘째	43.6	49.6	6.8	100.0(807)
셋째 이상	52.8	43.8	3.4	100.0(177)
$\chi^2(df)$		203.24(4)***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69.9	8.8	21.3	100.0(51)
25~30세 미만	42.8	33.6	23.6	100.0(297)
30~35세 미만	39.5	38.1	22.4	100.0(1127)
35~40세 미만	37.4	45.2	17.4	100.0(787)
40세 이상	33.7	53.3	13.0	100.0(209)
$\chi^2(df)$		60.02(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어머니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여부와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 모자동실 이용 여부, 모자동실 시간을 살펴보았다.

산후조리원 이용은 전체 중 86.2%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출생 순위에서 ‘첫째’인 경우 91.8%로 전체 이용비율에 비해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율도 유의미하게 늘었다.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 87.4%, 중소도시 87.1%의 비율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79.9%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이용한 비율은 67.4%로 하루 중 모자동실 이용시간은 평균 3.61시간이었다. 모자동실 이용은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자동실 이용은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줄어드는 경향이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이였다. 한편 어머니가

학업중인 경우 모자동실 평균시간은 7.4시간으로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으나 사례 수가 적어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표 III-3-21〉 산후조리원 및 모자동실 이용

단위: %(명), 시간

구분	산후조리원		계(수)	모자동실		아기와 모자동실에 있었던 시간	계(수)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전체	86.2	13.8	100.0(2471)	67.4	32.6	3.61	100.0(2130)
출생순위							
첫째	91.8	8.2	100.0(1488)	70.7	29.3	3.72 ^a	100.0(1365)
둘째	80.4	19.6	100.0(807)	62.7	37.3	3.37 ^a	100.0(649)
셋째 이상	65.6	34.4	100.0(177)	55.9	44.1	3.47 ^a	100.0(116)
$\chi^2(df)/F$	125.32(2)***			20.22(2)***		3.75*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59.0	41.0	100.0(51)	45.0	55.0	4.00	100.0(30)
25~30세 미만	81.6	18.4	100.0(297)	67.5	32.5	3.87	100.0(242)
30~35세 미만	89.9	10.1	100.0(1127)	71.6	28.4	3.51	100.0(1013)
35~40세 미만	86.1	13.9	100.0(787)	64.1	35.9	3.61	100.0(678)
40세 이상	79.4	20.6	100.0(209)	59.9	40.1	3.85	100.0(166)
$\chi^2(df)/F$	58.63(4)***			23.08(4)***		1.36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91.3	8.7	100.0(1284)	68.3	31.7	3.58 ^a	100.0(1173)
학업 중	85.7	14.3	100.0(25)	58.3	41.7	7.40 ^b	100.0(22)
미취업/미취학	80.5	19.5	100.0(1161)	66.6	33.4	3.57 ^a	100.0(935)
$\chi^2(df)/F$	60.07(2)***			1.39(2)		19.5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8.4	21.6	100.0(545)	64.1	35.9	3.87 ^{ab}	100.0(427)
301~500만원	87.1	12.9	100.0(1239)	66.3	33.7	3.48 ^a	100.0(1080)
501~700만원	90.3	9.7	100.0(434)	71.6	28.4	3.37 ^a	100.0(392)
701만원 이상	91.5	8.5	100.0(253)	72.0	28.0	4.10 ^b	100.0(232)
$\chi^2(df)/F$	41.07(3)***			8.23(3)*		6.13***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87.4	12.6	100.0(950)	69.0	31.0	3.77 ^b	100.0(83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87.1	12.9	100.0(1160)	69.9	30.1	3.58 ^b	100.0(1010)
읍·면	79.9	20.1	100.0(362)	54.2	45.8	3.10 ^a	100.0(289)
$\chi^2(df)/F$	14.46(2)**			27.19(2)***		5.8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출산 후 산후도우미 이용여부와 이용기간,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산후도우미의 경우 공공 산후도우미, 민간 산후도우미, 기타로 구분하였으

며 ‘기타’ 서비스의 경우 가족(친모/시모 등),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공공 산후도우미 이용은 전체의 52.7%로 이용 주수는 평균 2.88주로 나타났다. 공공 산후도우미 이용 비율은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용 주수의 경우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아동의 출생순위가 후순위 일수록 공공 산후도우미 이용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이용에 따른 기간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공공 산후도우미 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95점으로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22〉 공공 산후도우미 이용 주수 및 만족도

단위: %(명), 주, 점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이용 주수	만족도	(수)
전체	52.7	47.3	100.0(2471)	2.88	3.95	(1302)
출생순위						
첫째	54.6	45.4	100.0(1488)	2.68 ^a	3.91	(812)
둘째	50.6	49.4	100.0(807)	3.23 ^b	4.02	(408)
셋째 이상	46.0	54.0	100.0(177)	3.16 ^b	3.93	(81)
$\chi^2(df)/F$	6.72(2) [*]			38.70 ^{***}	1.76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9.4	60.6	100.0(51)	2.28 ^a	3.90	(20)
25~30세 미만	46.2	53.8	100.0(297)	2.74 ^{ab}	3.93	(137)
30~35세 미만	55.2	44.8	100.0(1127)	2.75 ^{ab}	3.98	(622)
35~40세 미만	53.9	46.1	100.0(787)	3.12 ^b	3.94	(424)
40세 이상	46.9	53.1	100.0(209)	3.03 ^b	3.81	(98)
$\chi^2(df)/F$	14.93(4) ^{**}			9.93 ^{***}	0.72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56.1	43.9	100.0(1284)	2.88	3.96	(720)
학업 중	25.0	75.0	100.0(25)	3.47	4.55	(6)
미취업/미취학	49.6	50.4	100.0(1161)	2.88	3.93	(576)
$\chi^2(df)/F$	18.42(2) ^{***}			0.89	1.3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1.1	48.9	100.0(545)	2.84	3.90	(279)
301~500만원	50.9	49.1	100.0(1239)	2.84	3.97	(631)
501~700만원	57.0	43.0	100.0(434)	2.98	3.92	(247)
701만원 이상	57.3	42.7	100.0(253)	3.00	3.99	(145)
$\chi^2(df)/F$	7.31(3)			1.54	0.45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이용 주수	만족도	(수)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57.3	42.7	100.0(950)	2.84	4.02	(544)
중소도시(비광역시/동)	50.0	50.0	100.0(1160)	2.94	3.89	(580)
읍·면	49.2	50.8	100.0(362)	2.86	3.92	(178)
$\chi^2(df)/F$	13.34(2)**			1.27	2.4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출산 후 민간 산후도우미 이용은 전체의 7.5%로 이용 주수는 평균 5.09주로 공공 산후도우미 이용기간(2.88주)에 비해 더 길었다. 민간 산후도우미 이용 여부와 이용 기간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기간도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민간 산후도우미 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92점으로 공공 산후도우미 만족도 3.95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23〉 민간 산후도우미 이용 주수 및 만족도

단위: %(명), 주, 점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이용 주수	만족도	(수)
전체	7.5	92.5	100.0(2471)	5.09	3.92	(184)
출생순위						
첫째	7.4	92.6	100.0(1488)	5.04	4.00	(110)
둘째	7.9	92.1	100.0(807)	5.23	3.85	(64)
셋째 이상	6.1	93.9	100.0(177)	4.74	3.58	(11)
$\chi^2(df)/F$	0.66(2)			0.04	1.38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4.4	95.6	100.0(51)	3.12	4.00	(2)
25~30세 미만	5.7	94.3	100.0(297)	3.04	4.09	(17)
30~35세 미만	8.6	91.4	100.0(1127)	5.42	3.98	(97)
35~40세 미만	6.2	93.8	100.0(787)	4.12	3.69	(48)
40세 이상	9.7	90.3	100.0(209)	7.71	4.08	(20)
$\chi^2(df)/F$	7.84(4)			1.96	1.18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9.0	91.0	100.0(1284)	5.95 ^a	4.01	(115)
학업 중	15.4	84.6	100.0(25)	8.73 ^a	4.21	(4)
미취업/미취학	5.6	94.4	100.0(1161)	3.35 ^a	3.75	(65)
$\chi^2(df)/F$	12.65(2)**			4.88**	2.04	
가구소득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이용 주수	만족도	(수)
300만원 이하	7.2	92.8	100.0(545)	2.89 ^a	3.72	(39)
301~500만원	5.8	94.2	100.0(1239)	4.26 ^a	4.05	(72)
501~700만원	8.8	91.2	100.0(434)	5.05 ^a	3.94	(38)
701만원 이상	13.8	86.2	100.0(253)	9.30 ^b	3.87	(35)
$\chi^2(df)/F$	20.92(3)	***		9.05***	1.23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9.1	90.9	100.0(950)	6.52 ^b	3.96	(86)
중소도시(비광역시/동)	7.3	92.7	100.0(1160)	4.02 ^{ab}	3.95	(85)
읍·면	3.7	96.3	100.0(362)	2.62 ^a	3.50	(13)
$\chi^2(df)/F$	11.43(2)	**		5.17**	1.5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3) 후속 출산에 대한 의견

어머니를 대상으로 후속 출산과 관련하여 이상 자녀 수,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및 자녀 수, 계획 시기, 미계획 사유, 후속 출산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준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2명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3명 11.6%, 1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32.6%로 후속 출산 자녀 수는 1명이 86.3%로 가장 높았다.

후속 출산 계획 여부는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후속 출산을 계획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3-24〉 이상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무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1.2	10.4	70.1	11.6	0.7	0.0	6.0	100.0(247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3-25〉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및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후속 출산 계획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날것음	날지 않겠음	계(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전체	32.6	67.4	100.0(2471)	86.3	10.6	2.7	0.4	100.0(806)

구분	후속 출산 계획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날것음	날지 않았음	계(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아동 성별								
남	31.9	68.1	100.0(1269)	87.1	9.0	3.9	-	100.0(405)
여	33.4	66.6	100.0(1202)	85.6	12.2	1.4	0.8	100.0(401)
$\chi^2(df)$	0.61(1)			n.a.				
출생순위								
첫째	48.9	51.1	100.0(1488)	86.9	11.3	1.5	0.2	100.0(727)
둘째	8.9	91.1	100.0(807)	82.4	4.8	10.5	2.3	100.0(72)
셋째 이상	4.1	95.9	100.0(177)	63.3	-	36.7	-	100.0(7)
$\chi^2(df)$	450.40(2)***			n.a.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53.0	47.0	100.0(51)	75.3	17.0	7.7	-	100.0(27)
25~30세 미만	51.0	49.0	100.0(297)	83.1	12.9	4.0	-	100.0(151)
30~35세 미만	39.0	61.0	100.0(1127)	87.8	11.1	1.1	-	100.0(440)
35~40세 미만	21.1	78.9	100.0(787)	86.7	6.3	5.1	2.0	100.0(166)
40세 이상	10.3	89.7	100.0(209)	89.7	10.3	-	-	100.0(21)
$\chi^2(df)$	171.73(4)***			n.a.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35.6	64.4	100.0(1284)	86.7	10.9	1.6	0.7	100.0(457)
학업 중	57.6	42.4	100.0(25)	77.6	13.7	8.7	-	100.0(15)
미취업/미취학	28.8	71.2	100.0(1161)	86.2	10.0	3.8	-	100.0(334)
$\chi^2(df)$	20.35(2)***			n.a.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2.7	67.3	100.0(545)	81.9	12.1	4.1	1.9	100.0(178)
301~500만원	32.7	67.3	100.0(1239)	87.4	10.0	2.6	-	100.0(406)
501~700만원	33.2	66.8	100.0(434)	86.2	11.7	2.1	-	100.0(144)
701만원 이상	30.9	69.1	100.0(253)	90.9	8.4	0.7	-	100.0(78)
$\chi^2(df)$	0.44(3)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후속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후속 출산 계획 시기는 ‘1년~2년 이내’가 34.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2년~3년 이내’에 대한 응답도 31.7%이었다. 한편 후속 출산을 계획하고 있어도 시기가 미정인 경우는 19.9%를 차지하였다.

〈표 III-3-26〉 후속 출산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1년 이내 (또는 현재 임신 중)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 이후	미정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5.8	34.7	31.7	7.8	19.9	100.0(80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후속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미계획 사유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중)’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24.9%,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13.4%, ‘나이가 많아서’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사유로 응답한 1.8%의 경우, ‘남편의 육아 참여 저조’ 28.8%, ‘지금 아이가 아파서/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아프게 태어날까봐 걱정되어서’ 22.1%, ‘건강이 안 좋아서’ 22.0%, ‘총체적/모두 해당’ 19.8%, ‘아이 성별 문제’ 4.1%, ‘배우자와 의견 불일치’ 3.2%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27〉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5.3	5.7	24.9	9.4	27.2	10.3	13.4	1.9	1.8	0.1	100.0(1665)

주: 1) ①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② 직장/학업 때문에, ③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④ 나이가 많아서, 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⑥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기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⑦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보육시설/학교 등의 기관 이용 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 비용 등), ⑧ 난임(인공수정 및 시험관 수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 이어서, ⑨ 기타
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후속 출산결정에 주 영향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남편’ 21.5%, ‘다른 자녀’ 2.9%, ‘본인의 형제·자매’ 2.6%, ‘친정 부모님’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28〉 후속 출산결정의 주 영향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⑬	계(수)
전체	63.5	21.5	1.9	0.9	2.6	-	0.1	0.1	0.6	2.9	4.8	1.0	100.0(2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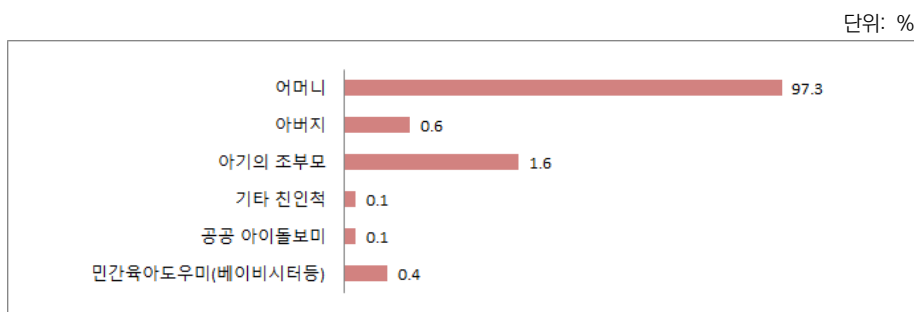
주: 1) ① 본인, ② 남편, ③ 친정 부모님, ④ 시부모님, ⑤ 본인의 형제·자매, ⑥ 남편의 형제·자매, ⑦ 본인의 친인척, ⑧ 남편의 친인척, ⑨ 친구, 동료 및 이웃, ⑩ 다른 자녀, ⑪ 없음, ⑬ 기타
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라. 양육 특성

1) 주양육자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97.3%) 어머니였으며, 아버지는 0.6%, 아기의 조부모는 1.6% 등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III-3-2] 아동의 주양육자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동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의 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97.9%는 여자이며, 연령대는 60대가 56.3%로 가장 많았고 50대 20.8%, 30대와 70대가 각각 6.3% 등의 순이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3%, 대학교 졸업(전문대학 포함)이 20.8% 등이었다.

〈표 III-3-29〉 (부모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48)	연령	100.0(48)
성별		30대	6.3(3)
남자	2.1(1)	40대	4.2(2)
여자	97.9(47)	50대	20.8(10)
학력		60대	56.3(27)
중학교	8.3(4)	70대	6.3(3)
고등학교	56.3(27)	80세 이상	2.1(1)
전문대학(기능대학)	2.1(1)	모름	4.2(2)
대학교	20.8(10)		
모름	12.5(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하였음.

평범한 하루 중 7~23시 동안 시간대별로 주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높으므로 모든 시간대에서 어머니가 아동을 돌본다는 응답 비율이 51.3~90.1%로 가장 높았다. 아버지는 주로 18시부터 저녁시간대에 아동을 돌보았으며, 19~20시는 46.1%, 20~21시는 44.8%로 나타났다. 조부모 등 그 외의 돌봄 인력은 주로 낮 시간대에 돌봄을 담당하였다.

〈표 III-3-30〉 시간대별 주양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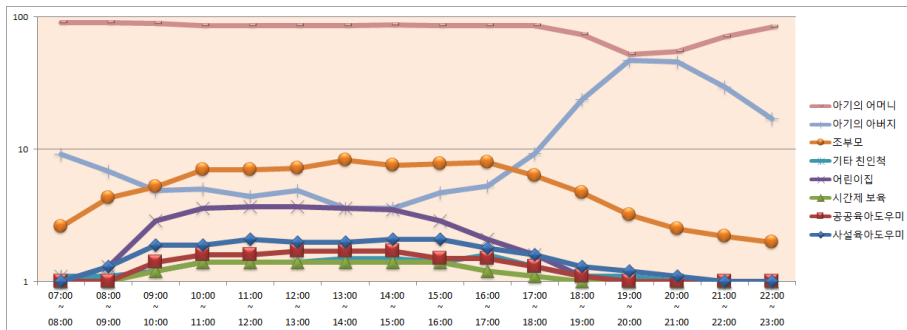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아기의 어머니	아기의 아버지	조부모	기타 친인척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비혈연 육아 인력 (공공 육아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혈연 육아 인력 (사설 육아 도우미 배아비서터 등)	계(수)
07:00~08:00	90.1	8.2	1.6	0.1	-	-	-	0.0	100.0(2775)
08:00~09:00	90.1	5.8	3.3	0.1	0.3	0.0	0.0	0.3	100.0(2775)
09:00~10:00	88.2	3.9	4.2	0.2	1.9	0.2	0.4	0.9	100.0(2775)
10:00~11:00	84.9	4.0	6.0	0.4	2.6	0.4	0.6	0.9	100.0(2775)
11:00~12:00	85.3	3.4	6.0	0.4	2.7	0.4	0.6	1.1	100.0(2775)
12:00~13:00	84.7	3.9	6.2	0.4	2.7	0.4	0.7	1.0	100.0(2775)
13:00~14:00	84.9	2.6	7.3	0.5	2.6	0.4	0.7	1.0	100.0(2775)
14:00~15:00	85.6	2.6	6.6	0.5	2.5	0.4	0.7	1.1	100.0(2775)
15:00~16:00	85.2	3.7	6.8	0.4	1.9	0.4	0.5	1.1	100.0(2775)
16:00~17:00	85.5	4.3	7.0	0.6	1.1	0.2	0.5	0.8	100.0(2775)
17:00~18:00	84.5	8.3	5.3	0.3	0.6	0.1	0.3	0.6	100.0(2775)
18:00~19:00	72.8	22.8	3.7	0.1	0.1	-	0.1	0.3	100.0(2775)
19:00~20:00	51.3	46.1	2.2	0.1	0.0	0.0	0.0	0.2	100.0(2775)
20:00~21:00	53.6	44.8	1.5	0.0	-	-	0.0	0.1	100.0(2775)
21:00~22:00	70.3	28.5	1.2	0.0	-	-	-	0.0	100.0(2775)
22:00~23:00	82.9	16.1	1.0	0.0	-	-	-	0.0	100.0(277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III-3-3〕 시간대별 주양육자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하루 중 7~23시 동안에 어머니의 평균 돌봄 시간은 12.83시간이었으며, 맞벌이가 아닌 어머니의 경우 13.23시간으로 맞벌이 어머니에 비해 좀 더 길었다. 아버지는 평균 3.08시간이었으며, 아동의 월령이 낮을수록 돌봄 시간이 더 길었다. 조

부모의 평균 돌봄 시간은 5.18시간이었으며, 아동 월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 돌봄 시간이 더 길었다. 친인척은 5.27시간, 어린이집 이용 시 6.97시간, 시간제 보육은 4.85시간을 이용하였으며, 아이돌보미는 4.24시간, 사설육아도우미는 6.83시간을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31〉 주양육자별 돌봄 시간(1)

단위: 시간(명)

구분	어머니 (수)	아버지 (수)	조부모 (수)	친인척 (수)
전체	12.83 (2769)	3.08 (1886)	5.18 (374)	5.27 (22)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12.65 ^a (1060)	3.23 ^b (744)	4.62 ^a (166)	5.62 (8)
6개월~7개월	12.96 ^c (982)	2.95 ^a (683)	5.35 ^{ab} (118)	4.79 (8)
8개월 이상	12.91 ^{ab} (727)	3.01 ^a (459)	6.00 ^b (89)	5.44 (6)
<i>F</i>	3.10 [*]	4.80 ^{**}	5.59 ^{**}	0.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24 (785)	3.24 (556)	5.46 (143)	5.80 (6)
맞벌이 아님	13.23 (764)	3.05 (518)	3.97 (79)	5.10 (6)
<i>t</i>	-6.67 ^{***}	1.77	4.15 ^{***}	0.4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32〉 주양육자별 돌봄 시간(2)

단위: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수)	시간제 보육 (수)	아이 돌보미 (수)	사설육아도우미 (수)
전체	6.97 (76)	4.85 (17)	4.24 (35)	6.83 (39)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6.79 (12)	4.73 (9)	4.18 (16)	8.13 (19)
6개월~7개월	7.21 (22)	3.63 (6)	3.80 (11)	5.44 (15)
8개월 이상	6.89 (42)	7.98 (3)	5.05 (7)	6.03 (6)
<i>F</i>	0.27	2.64	0.96	2.9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38 (27)	4.72 (9)	4.24 (14)	5.36 (13)
맞벌이 아님	7.05 (12)	5.39 (3)	4.97 (11)	7.43 (5)
<i>t</i>	-0.99	-0.43	-0.97	-1.4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모 이외의 사람이 돌봄을 담당하거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3-33〉과 같다. 조부모와 친인척의 경우 33.7%,

39.9%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은 29.2%, 시간제 보육은 63.4%, 아이돌보미는 88.9%, 사설육아도우미는 97.9%가 비용을 지불하였다. 월 평균 비용은 어린이집 약 22만1천원에서부터 조부모 88만2천원, 사설육아도우미 188만3천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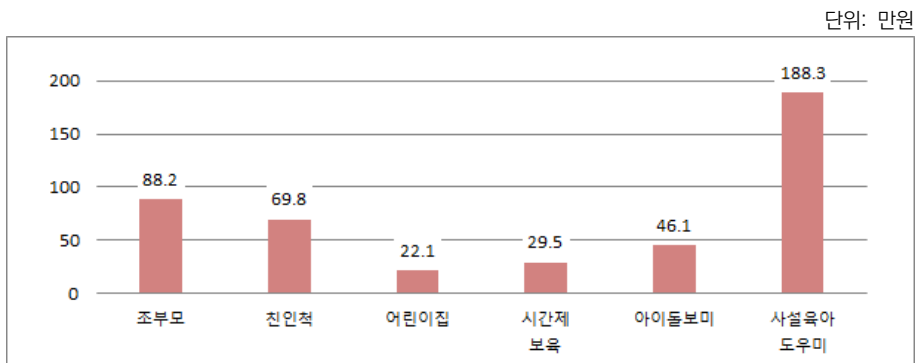
〈표 Ⅲ-3-33〉 보육·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발생 여부 및 월평균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예	아니오	계(수)	(비용 발생 시)	
				평균	(수)
조부모	33.7	66.3	100.0(374)	88.2	(126)
친인척	39.9	60.1	100.0(22)	69.8	(9)
어린이집	29.2	70.8	100.0(76)	22.1	(22)
시간제 보육	63.4	36.6	100.0(17)	29.5	(11)
아이돌보미	88.9	11.1	100.0(35)	46.1	(31)
사설육아도우미	97.9	2.1	100.0(39)	188.3	(3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3-4] 보육·육아지원서비스 월평균 비용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부모 양육행동 및 신념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 양육 신념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평균 3.84점, 어머니는 평균 3.92점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패널 아동이 첫째일수록 좀 더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으며, 어머니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비교적 더 그러하였다.

〈표 III-3-34〉 부모 양육행동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4	0.58	(1571)	3.92	0.52	(2471)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3.83	0.54	(698)	3.89	0.51	(984)
6개월~7개월	3.87	0.60	(568)	3.93	0.49	(894)
8개월 이상	3.83	0.64	(305)	3.94	0.57	(593)
<i>F</i>	0.85			2.11		
출생순위						
첫째	3.89 ^b	0.56	(965)	3.97 ^b	0.51	(1488)
둘째	3.79 ^{ab}	0.60	(497)	3.84 ^a	0.52	(807)
셋째 이상	3.69 ^a	0.63	(109)	3.78 ^a	0.55	(177)
<i>F</i>	9.02 ^{***}			23.21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0	0.59	(355)	3.86 ^a	0.57	(545)
301~500만원	3.83	0.59	(768)	3.92 ^{ab}	0.50	(1239)
501~700만원	3.88	0.52	(286)	3.94 ^{ab}	0.50	(434)
701만원 이상	3.90	0.58	(162)	3.99 ^b	0.51	(253)
<i>F</i>	1.72			4.42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 평균 2.14점, 어머니 평균 2.56점이었다. 아버지지와 어머니는 패널 아동이 첫째인 가구보다는 둘째나 셋째인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으며, 어머니는 맞벌이가 아니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 수준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3-35〉 부모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14	0.68	(1571)	2.56	0.73	(2471)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2.14	0.68	(698)	2.58	0.75	(984)
6개월~7개월	2.12	0.69	(568)	2.54	0.70	(894)
8개월 이상	2.18	0.68	(305)	2.57	0.73	(593)
<i>F</i>	0.84			0.60		
출생순위						
첫째	2.08 ^a	0.66	(965)	2.49 ^{ab}	0.72	(1488)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둘째	2.23 ^b	0.69	(497)	2.65 ^b	0.72	(807)
셋째 이상	2.33 ^b	0.72	(109)	2.78 ^c	0.73	(177)
<i>F</i>	12.69***			21.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4	0.68	(786)	2.51	0.72	(787)
맞벌이 아님	2.14	0.68	(765)	2.60	0.75	(765)
<i>t</i>	0.03			-2.3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15	0.71	(355)	2.69 ^c	0.74	(545)
301~500만원	2.16	0.67	(768)	2.56 ^{bc}	0.73	(1239)
501~700만원	2.13	0.71	(286)	2.49 ^{ab}	0.72	(434)
701만원 이상	2.07	0.61	(162)	2.42 ^a	0.68	(253)
<i>F</i>	0.76			10.40***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가치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정서적 가치에 대해 아버지는 4.47점, 어머니는 4.27점, 도구적 가치에 대해 아버지는 2.70점, 어머니는 2.20점으로 정서적 가치에 대해 더 높게 응답하였다. 아버지는 아동의 월령이 낮을수록, 혹은 여아인 경우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도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의 월령이 8개월 이상인 경우, 남아인 경우, 그리고 셋째 이상인 경우 도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는 도구적 가치를,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정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차이가 있었다.

〈표 Ⅲ-3-36〉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가치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47	0.59	(1571)	2.70	0.99	(1571)	4.27	0.63	(2471)	2.20	0.91	(2471)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4.51 ^a	0.57	(698)	2.61 ^a	0.96	(698)	4.26	0.67	(984)	2.19 ^{ab}	0.91	(984)
6개월~7개월	4.44 ^a	0.62	(568)	2.71 ^{ab}	1.00	(568)	4.26	0.61	(894)	2.15 ^a	0.90	(894)
8개월 이상	4.42 ^a	0.59	(305)	2.87 ^b	1.02	(305)	4.28	0.61	(593)	2.29 ^b	0.94	(593)
<i>F</i>	3.23*			7.02***			0.23			3.88*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아동 성별												
남	4.43	0.60	(807)	2.71	0.99	(807)	4.27	0.63	(1269)	2.25	0.95	(1269)
여	4.51	0.59	(764)	2.68	0.99	(764)	4.27	0.64	(1202)	2.15	0.87	(1202)
<i>t</i>	-2.46*			0.46			-0.20			2.61**		
출생순위												
첫째	4.50	0.58	(965)	2.69	1.01	(965)	4.27	0.63	(1488)	2.13 ^a	0.91	(1488)
둘째	4.43	0.60	(497)	2.70	0.97	(497)	4.27	0.63	(807)	2.27 ^a	0.91	(807)
셋째 이상	4.42	0.64	(109)	2.77	0.95	(109)	4.29	0.65	(177)	2.46 ^b	0.95	(177)
<i>F</i>	2.72			0.30			0.11			13.4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46	0.62	(355)	2.81 ^b	1.03	(355)	4.18 ^a	0.67	(545)	2.27 ^b	1.01	(545)
301~500만원	4.44	0.62	(768)	2.69 ^{ab}	0.99	(768)	4.26 ^{ab}	0.62	(1239)	2.24 ^{ab}	0.90	(1239)
501~700만원	4.54	0.53	(286)	2.64 ^{ab}	0.96	(286)	4.33 ^b	0.61	(434)	2.07 ^a	0.83	(434)
701만원 이상	4.52	0.52	(162)	2.55 ^a	0.98	(162)	4.36 ^b	0.63	(253)	2.08 ^a	0.85	(253)
<i>F</i>	2.52			3.07*			6.55***			6.48***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에게 자녀를 위한 헌신과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의 신념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진술에 아버지는 53.1%, 어머니는 43.1%가 동의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에 동의하였다.

〈표 III-3-37〉 부모 양육 신념(1)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됨	계(수)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됨	계(수)
전체	53.1	46.9	100.0 (1571)	43.1	56.9	100.0 (247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양육 신념 중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들 중에서 부모는 예의바른 생활습관(부 86.7%, 모 89.9%), 책임감(부 83.3%, 모 81.6%),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부 72.6%, 모 78.2%)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제시된 12가지의 자질과 특성 외에도 경제관념, 기본 생활습관, 자신감(자존감)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표 III-3-38〉 부모 양육 신념(2)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모름/ 무응답	(수)
아버지	86.7	46.0	42.2	83.3	30.9	72.6	23.6	28.6	44.5	5.6	17.7	17.1	0.9	0.4	(1571)
어머니	89.9	56.1	36.4	81.6	28.5	78.2	19.2	22.8	42.9	7.7	16.1	19.2	1.4	0.1	(2471)

주: 1)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② 독립심, ③ 근면함, ④ 책임감, ⑤ 상상력,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⑧ 결단력, ⑨ 끈기, ⑩ 종교적 신념, ⑪ 이타심, ⑫ 어른 말씀 잘 듣기, ⑬ 기타
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3) 양육 분담 및 지원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해 네 문항의 5점 척도로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 평균 4.10점이었다. 패널 아동이 첫째인 경우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 참여 정도가 좀 더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3-39〉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어머니 인식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10	0.79	(2461)
출생순위			
첫째	4.16 ^b	0.78	(1478)
둘째	4.07 ^b	0.76	(807)
셋째 이상	3.82 ^a	0.93	(176)
<i>F</i>		15.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2	0.70	(786)
맞벌이 아님	4.09	0.81	(764)
<i>t</i>		3.5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01$.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분담을 조사하였다. 분담 비율의 합이 10이 되도록 응답하였을 때, 양육은 어머니:아버지 평균 점수가 7.59 : 2.41이었으며, 가사는 6.83 : 3.17이었다.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보다는 둘째나 셋째가 될수록 어머니의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이 높아졌으며, 맞벌이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이 높아졌다.

〈표 III-3-40〉 어머니: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단위: 점(명)

구분	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전체	7.59	2.41	6.83	3.17	(2764)
출생순위					
첫째	7.50 ^a	2.50 ^b	6.54 ^a	3.46 ^c	(1653)
둘째	7.71 ^b	2.29 ^a	7.18 ^b	2.82 ^b	(902)
셋째 이상	7.77 ^b	2.23 ^a	7.53 ^c	2.47 ^a	(209)
<i>F</i>	10.62***	10.62***	53.66***	10.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36	2.64	6.33	3.67	(786)
맞벌이 아님	7.71	2.29	6.98	3.02	(764)
<i>t</i>	-5.37***	-5.37***	-6.95***	-5.3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어머니:아버지 비율의 합이 10이 되도록 응답함.

*** $p < .001$.

부모 이외에 자녀양육을 직접 도와주는 지원자가 있는지에 대해 49.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수는 평균 1.64명이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양육 지원자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III-3-41〉 양육 지원자 유무 및 인원

단위: %(명),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9.4	50.6	100.0(2775)	53.1	35.4	11.5	100.0(1370)	1.64
출생순위								
첫째	48.9	51.1	100.0(1659)	54.5	34.3	11.2	100.0(811)	1.61
둘째	50.4	49.6	100.0(906)	50.1	37.6	12.3	100.0(457)	1.71
셋째 이상	49.0	51.0	100.0(210)	55.6	34.3	10.1	100.0(103)	1.58
$\chi^2(df)/F$		0.58(2)			2.72(4)			1.9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9.8	40.2	100.0(787)	50.4	37.3	12.3	100.0(470)	1.65

구분	예	아니오	계(수)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
맞벌이 아님	46.4	53.6	100.0(765)	51.1	37.4	11.5	100.0(355)	1.72
$\chi^2(df)/t$	27.92(1)***			0.12(2)				-1.0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사회적 지원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지지를 4.12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사교적 지지는 3.98점, 도구적 지지는 3.96점, 정보적 지지는 3.91점 순이었다. 정서적 지지는 아동 월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첫째인 경우 더 높았으며, 도구적 지지는 아동 월령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전체 사회적 지원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맞벌이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42〉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수)
전체	3.98	4.12	3.96	3.98	3.91	(277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4.00	4.16 ^b	4.00 ^b	3.99	3.91	(1060)
6개월~7개월	3.99	4.13 ^{ab}	3.97 ^{ab}	4.00	3.93	(983)
8개월 이상	3.93	4.06 ^a	3.88 ^a	3.95	3.88	(732)
F	2.62	3.94 [*]	5.44 ^{**}	1.17	0.77	
출생순위						
첫째	4.00	4.15 ^b	3.98	4.00	3.91	(1659)
둘째	3.97	4.08 ^{ab}	3.95	3.97	3.91	(906)
셋째 이상	3.89	4.01 ^a	3.84	3.91	3.85	(210)
F	2.37	5.24 ^{**}	2.97	1.33	0.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0	4.25	4.07	4.10	4.02	(787)
맞벌이 아님	3.89	4.07	3.83	3.91	3.82	(765)
t	5.82 ^{***}	4.77 ^{***}	6.05 ^{***}	4.94 ^{***}	4.82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4) 양육 환경

가정의 양육 환경 측정을 위해 K-IT-HOME 척도(Caldwell & Bradley, 2003; 연세대학교 K-IT-HOME 연구실, 2012)를 활용하였다. 가정환경의 질이 상위

10% 집단은 62.3%, 상위 25% 집단은 19.4%, 중위 50% 집단은 17.1% 등이었다. 가정환경의 질은 아동 월령이 높을수록, 첫째나 둘째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어서 301~500만원인 경우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 외에 의미 있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영역별 분석에서도 유사하였다.

〈표 III-3-43〉 가정환경의 질

구분	하위 10% 집단	하위 25% 집단	중위 50% 집단	상위 25% 집단	상위 10% 집단	계(수)	단위: %(명), 점	
							대푯값 - 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1.1	17.1	19.4	62.3	100.0(2246)	39.79	4.16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0.3	1.8	25.6	22.5	49.7	100.0(921)	38.51 ^a	4.63
6개월~7개월	0.0	0.7	14.3	20.6	64.4	100.0(747)	40.11 ^b	3.76
8개월 이상	0.0	0.3	7.3	12.8	79.6	100.0(578)	41.43 ^c	3.08
$\chi^2(df)/F$			n.a.				98.50***	
출생순위								
첫째	0.1	0.8	15.5	19.3	64.2	100.0(1351)	40.00 ^b	4.04
둘째	0.0	0.8	19.5	18.7	60.9	100.0(732)	39.72 ^b	4.12
셋째 이상	0.6	4.3	20.2	22.7	52.1	100.0(163)	38.37 ^a	5.00
$\chi^2(df)/F$			n.a.				11.40***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0.8	19.2	17.4	62.6	100.0(730)	39.81	4.09
맞벌이 아님	0.4	2.0	18.1	20.6	58.9	100.0(767)	39.49	4.65
$\chi^2(df)/t$			n.a.				1.4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6	1.6	20.5	20.1	57.3	100.0(513)	39.15 ^a	4.81
301~500만원	0.0	0.9	13.7	19.1	66.4	100.0(1159)	40.21 ^b	3.83
501~700만원	0.0	1.1	23.2	19.4	56.3	100.0(371)	39.35 ^a	4.19
701만원 이상	0.0	1.0	17.2	19.2	62.6	100.0(203)	39.82 ^{ab}	3.94
$\chi^2(df)/F$			n.a.				9.5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5문항을 예(1)와 아니오(0)로 채점함.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하위영역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주양육자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성’은 상위 10% 집단이 59.0%이었으며, ‘영아의 행동에 대한 수용성’은 상위 10% 집단이 11.3%, 상위 25% 집단이 66.3%이었다. ‘물리적 환경의 조직성’은 상위 25% 이상

집단이 48.0%이었으며,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과 학습자료 구비 상태’에 대해서는 상위 10% 집단이 60.0%이었다. ‘개입’ 즉, 발달과 학습에 참여하는 정도는 상위 10% 집단이 58.1%이었고,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은 상위 25% 이상 집단이 49.3%이었다.

〈표 Ⅲ-3-44〉 가정환경의 질: 하위영역

단위: %(명), 점

구분	하위 10% 집단	하위 25% 집단	중위 50% 집단	상위 25% 집단	상위 10% 집단	계(수)	대푯값 - 점	
							평균	표준 편차
반응성	0.4	1.3	21.3	17.9	59.0	100.0(2246)	10.09	1.46
수용성	0.4	0.4	21.6	66.3	11.3	100.0(2246)	6.85	0.70
조직성	1.2	4.7	46.2	48.0		100.0(2246)	5.18	0.96
학습자료	0.6	2.2	19.7	17.5	60.0	100.0(2246)	8.15	1.37
개입	0.7	1.7	13.5	26.0	58.1	100.0(2246)	5.33	1.00
다양성	1.2	4.5	44.9	49.3		100.0(2246)	4.20	0.9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45문항을 예(1)와 아니오(0)로 채점함.

5) 모유수유

1차년도 조사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유수유 계획 여부, 준비 내용, 출산 직후 모자 피부 접촉 여부, 첫 모유수유 시점, 개월별 수유 방법, 모유수유 중단 시기 및 이유 등이다.

먼저, 모유수유 계획 여부에 대해 모유수유를 계획했다는 응답은 24.9%이었고, 혼합 수유는 50.1%, 분유는 20.7%이었다. 첫째일수록 계획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분유 수유를 계획하였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Ⅲ-3-45〉 모유수유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모유수유	혼합 수유 (모유+분유)	분유	계획하지 않음	계(수)
전체	24.9	50.1	20.7	4.3	100.0(2471)
출생순위					
첫째	25.8	49.9	18.6	5.7	100.0(1488)
둘째	22.5	51.2	23.8	2.5	100.0(807)

구분	모유수유	혼합 수유 (모유+분유)	분유	계획하지 않음	계(수)
셋째 이상 $\chi^2(df)$	28.5	46.6	24.0	1.0	100.0(177)
		28.31(6)***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0.3	27.7	42.0	-	100.0(51)
25~30세 미만	25.7	48.9	22.4	3.0	100.0(297)
30~35세 미만	23.9	52.2	19.1	4.8	100.0(1127)
35~40세 미만	24.7	48.8	22.1	4.4	100.0(787)
40세 이상 $\chi^2(df)$	28.7	50.8	16.4	4.0	100.0(209)
		29.96(12)**			
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이하	19.3	45.5	33.6	1.6	100.0(400)
전문대(기능대학)	25.4	50.0	20.2	4.4	100.0(501)
대학교	26.2	51.7	17.3	4.8	100.0(1301)
대학원 이상 $\chi^2(df)$	26.5	49.2	18.7	5.7	100.0(269)
		57.10(9)***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23.6	53.4	18.3	4.7	100.0(1284)
학업 중	43.0	46.5	10.4	-	100.0(25)
미취업/미취학 $\chi^2(df)$	26.0	46.5	23.6	3.9	100.0(1161)
		21.98(6)**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모유수유 준비 내용으로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가 95.2%로 가장 많고, 정보 수집 74.2%, 유방 관리 53.1%, 인증 병원 탐색 50.1%, 교육 참여 38.6%이었다. 이 외에 2.7%가 기타 응답을 하였는데, 식단/영양 관리(42.3%),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한다(24.8%), 주변인에게 조언을 구한다(15.8%) 등이 있었다.

〈표 III-3-46〉 모유수유 준비 내용

단위: %(명)

구분	정보 수집		교육 참여		물품 구입		유방 관리		인증 병원 탐색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74.2	25.8	38.6	61.4	95.2	4.8	53.1	46.9	50.1	49.9	100.0(185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출산직후 엄마와 아기의 피부접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47.8%가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47〉 출산직후 모자 피부 접촉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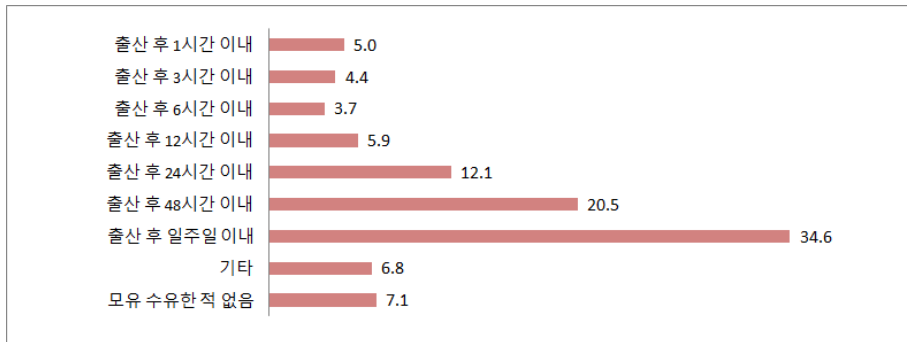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47.8	52.2	100.0 (247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또한 첫 모유수유 시점은 출산 후 48시간 이내가 20.5%, 출산 후 일주일 이내가 34.6% 등으로 보고되어 출산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시행한 비율은 약 31% 정도였다.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아기와 함께 있지 않아서 37.8%, 출산직후 모유가 생성되지 않아서 19.2%, 아기의 건강상 문제로 인해 14.7% 등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12.6%)으로는 ‘제왕절개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규정 때문에’ 등이 있었다.

〔그림 III-3-5〕 출산 후 모유수유 시점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 III-3-48〉 출산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 미수행 사유

단위: %(명)

구분	출산직후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로	출산직후에는 모유가 생성되지 않아서	적절한 모유수유의 방법을 몰라서	아기의 건강상의 문제로	아기와 함께 있지 않아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14.2	19.2	1.3	14.7	37.8	12.6	0.2	100.0(119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0개월부터 조사 시점까지 개월별 수유 방법을 알아보았다. 0개월에는 모유 24.5%, 혼합수유 63.3%, 분유 12.2%이었으며, 이후에는 모유와 혼합수유는 점차

줄어들고 분유 수유는 점차 늘어나서 4개월에는 모유 17.1%, 혼합수유 12.4%, 분유 70.5%이었다.

〈표 III-3-49〉 개월별 수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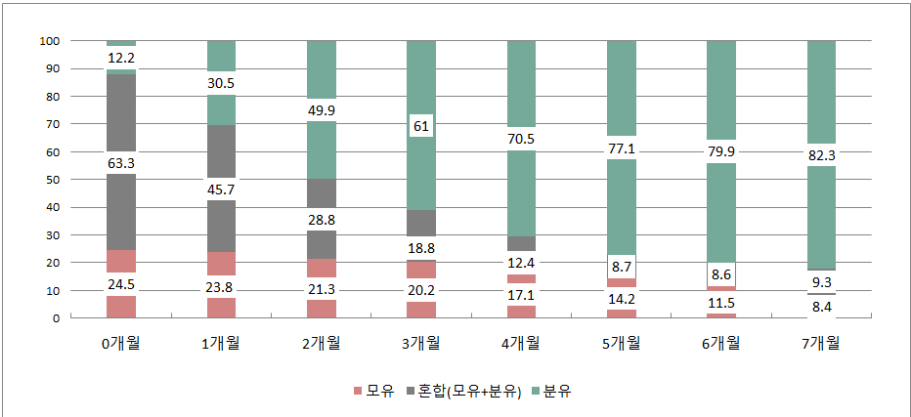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모유	혼합(모유+분유)	분유	계(수)
0개월	24.5	63.3	12.2	100.0(2471)
1개월	23.8	45.7	30.5	100.0(2471)
2개월	21.3	28.8	49.9	100.0(2471)
3개월	20.2	18.8	61.0	100.0(2471)
4개월	17.1	12.4	70.5	100.0(2376)
5개월	14.2	8.7	77.1	100.0(1291)
6개월	11.5	8.6	79.9	100.0(751)
7개월	8.4	9.3	82.3	100.0(51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조사 시점까지의 수유 방법을 조사하였으나 주요 조사 기간이었던 7개월까지 제시하였으며, 2024년도 보고서에서는 이후 개월 수의 응답 결과도 제공하게 될 것임.

〔그림 III-3-6〕 개월별 수유 방법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조사 시점에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24.0%이었으며, 이미 중단한 경우 중단 시점은 출생 후 평균 55.94일이었다.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 모유수유하지 않은 비율이 22.2%로 높았고, 어머니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모유수유를 3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가 26.5%이었다. 한편 어머니 취업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모유수유 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Ⅲ-3-50〉 모유수유 여부 및 하지 않는 경우 중단 시기

단위: %(명), 일

구분	현재 모유수유 중	모유수유 중단 시점 기간						평균	계(수)
		처음부터 하지 않음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이상			
전체	24.0	10.8	29.0	27.6	13.4	19.3		55.94	100.0 (2471)
출생순위									
첫째	21.5	8.9	30.7	26.1	14.4	19.9		57.02	100.0 (1488)
둘째	25.7	12.5	26.4	30.9	11.6	18.7		54.76	100.0 (807)
셋째 이상	37.6	22.2	24.3	25.2	12.5	15.8		50.84	100.0 (177)
$\chi^2(df)/F$				28.33(8)***				1.16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32.0	11.9	27.9	45.3	2.7	12.2		47.01	100.0 (51)
25~30세 미만	22.4	15.9	29.2	23.0	14.0	17.9		52.86	100.0 (297)
30~35세 미만	22.2	8.8	30.3	29.7	13.1	18.2		55.06	100.0 (1127)
35~40세 미만	24.7	11.1	28.4	26.1	14.4	20.0		58.02	100.0 (787)
40세 이상	31.9	14.1	23.0	23.8	12.6	26.5		59.86	100.0 (209)
$\chi^2(df)/F$				30.91(16)*				1.17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22.5	9.8	31.5	26.6	13.4	18.7		55.08	100.0 (1284)
학업 중	44.3	9.2	12.8	26.0	20.4	31.6		68.75	100.0 (25)
미취업/미취학	25.3	12.0	26.4	28.7	13.3	19.7		56.72	100.0 (1161)
$\chi^2(df)/F$				n.a				0.8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4.4	13.5	25.6	26.4	14.5	19.9		56.19	100.0 (545)
301~500만원	24.7	10.5	28.6	29.6	13.2	18.1		54.43	100.0 (1239)
501~700만원	23.4	9.2	28.7	26.1	13.1	22.9		61.41	100.0 (434)
701만원 이상	21.1	9.6	38.0	23.1	12.2	17.1		53.38	100.0 (253)
$\chi^2(df)/F$				18.75(12)				2.0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5$, *** $p < .001$.

모유수유 중단 이유로는 젖의 양이 적어서 39.1%,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21.2%,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14.8% 등이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병원 치료 등 아기의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자녀 육아 때문에(자녀의 질투 포함) 등이 있었다.

〈표 III-3-51〉 모유수유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젖의 양이 적어서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 동안 수유가 어려워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질병, 약 복용 등으로	모유를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39.1	14.8	4.9	21.2	9.4	3.5	6.4	0.6	100.0(187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마. 부모 근로 특성

부모의 취업상태를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취업 중이 96.1%, 학업 중이 0.8%, 미취업/미취학이 3.2%였으며, 어머니는 취업 중이 52.0%, 학업 중이 1.0%, 미취업/미취학이 47.0%였다.

〈표 III-3-52〉 부모 취업 상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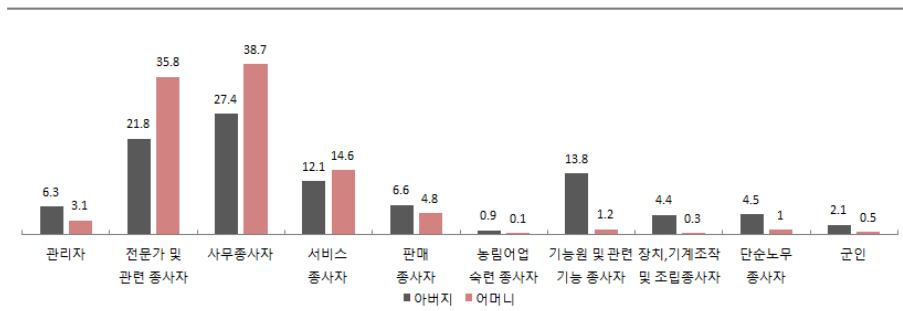
구분	취업 중	학업 중	미취업/미취학	계(수)
아버지	96.1	0.8	3.2	100.0(1571)
어머니	52.0	1.0	47.0	100.0(247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27.4%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3.8%, 서비스 종사자 12.1%, 판매종사자 6.6%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아버지에 비해 사무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편중된 양상을 나타냈다. 사무종사자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8%, 서비스 종사자 14.6%, 판매종사자 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7] 아버지·어머니의 직업 분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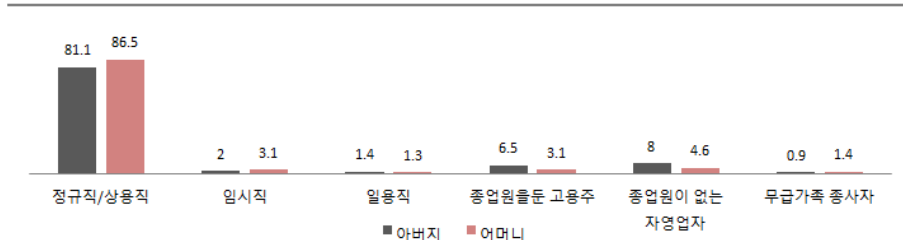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취업중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상용직이 81.1%로 가장 많았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가 8.0%,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6.5%, 임시직 2.0%, 일용직 1.4% 순이었다.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상용직이 86.5%로 가장 많았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6%, 임시직과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각각 3.1%, 일용직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8] 아버지·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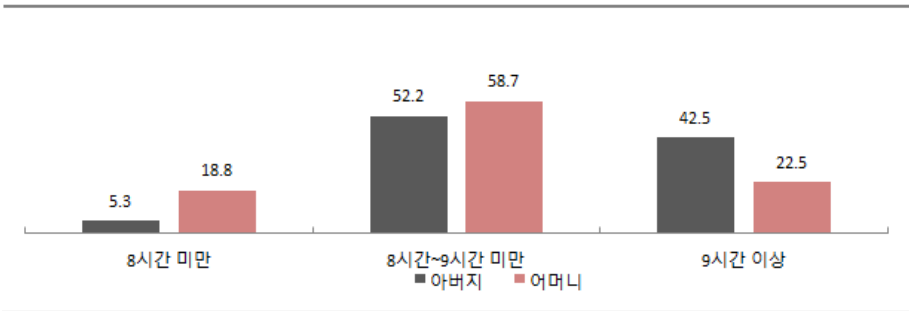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루 근무시간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80시간이며, 8시간~9시간 미만이 52.2%로 가장 많았고, 9시간 이상도 42.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7.75시간이며, 8시간~9시간 미만이 58.7%로 가장 많았고, 9시간 이상이 22.5%, 8시간 미만이

18.8%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9] 아버지·어머니의 근무시간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루 출퇴근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하루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1.21시간이며, 1시간이 56.2%로 가장 많고, 1시간 초과가 27.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하루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1.19시간이며, 1시간이 57.5%로 가장 많고, 1시간 초과가 26.1% 순이었다.

〈표 III-3-53〉 아버지·어머니의 출퇴근 소요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1시간 초과	평균(시간)	계(수)
아버지	16.1	56.2	27.7	1.21	100.0(1509)
어머니	16.4	57.5	26.1	1.19	100.0(1284)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택근무 여부와 주당 재택근무 일수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재택근무 사용 비율이 11.0%, 어머니는 21.3%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주당 재택근무 일수는 3.07일이며, 어머니의 주당 재택근무 일수는 3.60일이었다.

〈표 III-3-54〉 아버지·어머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여부 및 일수

단위: %(명), 일

구분	재택근무 여부		계(수)	재택근무 주당 일수
	함	하지 않음		
아버지	11.0	89.0	100.0(166)	3.07
어머니	21.3	78.7	100.0(273)	3.60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전체 아버지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399만원이다. 201~300만원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301~400만원이 29.2%, 401~500만원이 16.4%, 501~600만원 6.7%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과 최종 학력에 따라 월평균 근로소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전문대 졸업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학교 졸업 이상은 학력이 증가할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대학원 졸업 이상인 아버지의 경우에 월평균 근로소득이 월 493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3-55〉 아버지의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응답 시	무응답 시											(수)
	평균 소득	100 만원 이하	101~ 200 만원	201~ 300 만원	301~ 400 만원	401~ 500 만원	501~ 600 만원	601~ 700 만원	701~ 800 만원	801~ 900 만원	901~ 1000 만원	1001 만원 이상	
전체	398.76	1.4	4.8	30.5	29.2	16.4	6.7	3.0	2.1	1.2	-	4.7	(1509)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242.66 ^a	-	100.0	-	-	-	-	-	-	-	-	-	(12)
25~30세 미만	319.21 ^{ab}	-	3.4	48.7	23.0	19.8	2.1	3.1	-	-	-	-	(99)
30~35세 미만	388.03 ^{bc}	2.4	3.0	26.1	34.5	15.6	8.2	2.0	0.5	-	-	7.7	(469)
35~40세 미만	408.85 ^{bc}	-	5.9	37.3	27.3	16.0	6.6	0.8	1.7	0.7	-	3.6	(608)
40세 이상	429.82 ^c	2.7	5.3	20.2	26.1	18.3	5.8	8.3	5.9	4.1	-	3.3	(316)
F	9.70 ^{***}						n.a.						
아버지 최종 학력													
고졸이하	355.76 ^a	1.3	10.4	40.9	23.9	17.1	2.4	2.0	-	-	-	2.0	(266)
전문대(기능대학)	355.47 ^a	-	5.6	26.6	31.4	14.4	1.0	8.9	5.8	-	-	6.2	(273)
대학교	408.31 ^b	2.1	3.2	29.5	31.8	17.1	6.1	1.5	0.8	2.1	-	5.7	(817)
대학원 이상	493.68 ^c	-	-	21.3	20.5	15.1	31.9	2.0	7.6	-	-	1.6	(153)
F	23.31 ^{***}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전체 어머니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299만원으로 아버지와 1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201~300만원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만원이 19.9%, 301~400만원이 19.2%, 100만원 이하가 6.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40세 미만은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 따라 월평균 근로소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56〉 어머니의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응답 시	무응답 시												(수)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800만원	801~900만원	9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전체	298.61	6.5	19.9	40.1	19.2	6.1	2.6	2.1	0.3	-	1.0	2.2	(1284)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226.03	30.5	-	69.5	-	-	-	-	-	-	-	-	(5)	
25~30세 미만	260.77	4.3	45.3	21.6	11.9	9.2	6.2	-	-	-	-	1.5	(129)	
30~35세 미만	298.98	6.0	13.1	53.0	20.9	3.2	2.7	-	-	-	-	1.1	(610)	
35~40세 미만	308.21	7.4	17.5	37.3	20.4	7.2	1.0	2.8	0.7	-	2.5	3.2	(436)	
40세 이상	301.78	6.9	16.1	29.4	21.1	8.7	3.4	10.9	-	-	-	3.4	(104)	
F	1.80	n.a.												
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이하	233.14 ^a	8.9	54.2	19.6	12.6	3.2	1.4	-	-	-	-	-	(112)	
전문대(기능대학)	268.48 ^{ab}	4.7	12.9	48.7	15.0	6.9	5.0	2.3	1.6	-	-	2.7	(205)	
대학교	299.07 ^{bc}	6.7	12.8	48.4	21.0	5.2	1.5	2.1	-	-	-	2.3	(762)	
대학원 이상	349.20 ^c	5.0	8.6	25.7	27.5	12.6	5.1	4.8	-	-	7.1	3.7	(205)	
F	11.68 ^{***}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바. 가구 특성

1) 가구 형태 및 가구원

가구유형을 질문한 결과, ‘부모+자녀’ 가구가 94.4%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부모+자녀’ 가구가 3.0%, ‘한조부모+부모+자녀’ 가구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57〉 가구 형태

단위: %(명)

구분	부모 +자녀	어머니 +자녀	조부모 +부모 +자녀	조부모 +어머니 +자녀	한조부모+ 부모 +자녀	한조부모 +어머니 +자녀	기타	계(수)
전체	94.4	0.1	3.0	0.0	1.7	0.1	0.6	100.0(277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녀와 자녀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를 질문한 결과, 평균 가구원 수는 3.61명이었으며, 3명 이하가 55.0%로 가장 많고, 4명이 33.1%, 5명 이상이 11.9%였다.

〈표 III-3-58〉 가구원 수

단위: %(명), 명

구분	3명 이하	4명	5명 이상	계(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전체	55.0	33.1	11.9	100.0(2775)	3.61	2	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모와 자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부모와 아이가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아버지가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응답이 3.1%, 어머니는 0.3%로 나타났다.

〈표 III-3-59〉 부모-자녀 동거 여부

단위: %(명)

구분	아기와 함께 살고 있음	아기와 떨어져 살고 있음	계(수)
아버지	96.9	3.1	100.0(2775)
어머니	99.7	0.3	100.0(277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주 4일 이상 동거 여부임.

부모와 자녀의 비동거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우는 타지역에서 근무 중인 경우가 81.3%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13.5%, 타지역에서 학업 중인 3.6%, 군 복무 중 1.6% 순이었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타지역에서 근무 중인 45.2%로 가장 높았고, 타지역에서 학업 중인 35.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아버지에 비하면 근무로 인한 자녀와의 비동거는 낮고 학업으로 인한 자녀와의 비동거 비율이 높았다.

〈표 III-3-60〉 부모-자녀 비동거 사유

단위: %(명)

구분	타지역 (또는 해외)에 근무 중	타지역 (또는 해외)에 학업 중	군 복무 중	기타	계(수)
아버지	81.3	3.6	1.6	13.5	100.0(86)
어머니	45.2	35.4	-	19.5	100.0(7)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다문화 가정¹⁶⁾

부모에게 국적과 귀화여부를 질문하였다. 전체 어머니 중 귀화자는 1.3%, 외국인 인은 3.7%이며, 전체 아버지 중 귀화자는 0.5%, 외국인은 0.1%로 나타났다.

〈표 III-3-61〉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및 귀화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귀화자)	외국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귀화자)	외국인
비율	95.0	1.3	3.7	99.4	0.5	0.1
(수)	(2349)	(32)	(91)	(1562)	(8)	(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현재 국적을 묻고,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을 질문 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41.8%가 베트남 출신이었으며, 중국이 23.1%, 일본이 15.7%, 중국(한국계)이 6.0%, 캄보디아가 2.1% 순이었다. 아버지의 경우는 중국 이 8.9%, 베트남이 2.0%로 나타났다.

〈표 III-3-62〉 다문화 가구 부모의 국적

단위: %(명)

구분	대한 민국	중국	중국 (한국계)	필리핀	베트남	캄보 디아	일본	계
어머니	1.2	23.1	6.0	10.2	41.8	2.1	15.7	100.0 (124)
아버지	89.1	8.9	-	-	2.0	-	-	100.0 (8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다문화 가구 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평균 6.95년이며, 아 버지는 평균 11.64년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평균 한국 거주 기간이 더 길었다.

16)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이므로 〈표 III-1-3〉의 수와 차이가 있음.

〈표 III-3-63〉 다문화 가구 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단위: 년(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한국 거주 기간	6.95	4.94	(122)	11.64	3.16	(9)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귀화하거나 외국인인 다문화 부모에게 본인의 한국어 구사 수준과 배우자가 다문화 부모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을 ‘전혀 못함’에서 ‘매우 유창함’까지 5단계로 질문하였다.

아버지의 한국어 구사 수준을 보면, ‘매우 유창함’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이 36.1%, ‘유창한 편임’이 10.1%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수준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이 50.6%로 절반 이상이었고, ‘유창한 편임’이 29.9%, ‘매우 유창함’이 16.4%, 전혀 못하거나 거의 못하는 경우도 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다문화 부모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 부모인 아버지의 배우자가 외국 출신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은 ‘매우 유창함’이 81.5%로 매우 높은 반면, 다문화 부모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외국 출신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이 ‘전혀 못함’이 23.4%, ‘거의 못함’이 32.0%로 나타났다. 남성 배우자가 이주한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64〉 다문화 부모의 언어 구사 수준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구사 수준						배우자가 귀화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					
	전혀 못함	거의 못함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	유창한 편임	매우 유창함	(수)	전혀 못함	거의 못함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함	유창한 편임	매우 유창함	해당 없음 (수)
아버지	-	-	36.1	10.1	53.8	(9)	-	-	8.4	10.1	81.5	- (9)
어머니	0.8	2.3	50.6	29.9	16.4	(122)	23.4	32.0	14.1	15.9	13.3	1.3 (12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3) 가구 경제적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을 구간을 질문한 결과, 301~400만원이 28.7%로 가장 많았고,

401~500만원이 22.0%, 201~300만원이 18.7%, 501~600만원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65〉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800만원	801~900만원	901~1000만원 미만	1001만원 이상	계(수)
전체	0.4	3.0	18.7	28.7	22.0	11.3	5.9	3.5	1.9	0.5	4.0	100.0(277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가구의 부채액을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약 9,271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채 없음’이 39.6%로 가장 높고,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1.4%, 1억원 미만이 20.4%, 3억원 이상 8.7%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가구 부채액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인 경우 부채액이 평균 1억원 이상으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 부채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채가 없는 비율이 52.9%로 과반수 이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거나 가구 소득이 높을 경우 일정한 소득이 확보됨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표 III-3-66〉 가구 부채액

단위: %(명), 만원

구분	부채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9.6	20.4	31.4	8.7	100.0(2170)	9271.17
출생순위						
첫째	38.8	21.4	31.8	8.1	100.0(1286)	9195.60
둘째	40.5	19.8	29.4	10.2	100.0(729)	9552.95
셋째 이상	41.7	15.1	37.2	6.0	100.0(154)	8568.06
$\chi^2(df)/F$			10.10(6)			0.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7	18.5	37.3	10.6	100.0(632)	10809.72
맞벌이 아님	35.8	28.3	30.5	5.3	100.0(580)	7878.12
$\chi^2(df)/t$			27.31(3)***			4.0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2.9	22.8	22.8	1.5	100.0(498)	5080.97 ^a
301~500만원	36.7	23.2	33.6	6.6	100.0(1058)	8681.30 ^b

구분	부채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수)	평균
501~700만원	33.4	13.9	37.5	15.3	100.0(386)	12866.04 ^c
701만원 이상	34.3	13.6	29.5	22.6	100.0(227)	15098.02 ^c
$\chi^2(df)/F$			171.56(9) ^{***}			41.14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가구 부채에는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됨.

*** $p < .001$.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가구지출을 항목별로 질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월평균 가구 총 지출을 살펴보면, 201~300만원 이하가 38.9%로 가장 많고, 301~400만원 이하가 28.0%, 401만원 이상이 16.7%, 200만원 미만이 1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67〉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단위: %(명)

구분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계(수)
전체	16.3	38.9	28.0	16.7	100.0(277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월평균 가구지출의 전체 평균은 278만4천원이며, 월평균 가구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비가 약 106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주거비가 약 38만원, 자녀교육 및 보육비는 약 17만원, 보건의료비가 10만원이었으며, 그 외 항목을 합친 지출이 월 108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3-68〉 월평균 가구 지출

단위: 만원(명)

구분	전체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자녀 교육·보육비	그 외	(수)
전체	278.4	106.0	37.9	9.7	16.7	108.0	(2318)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0.6%,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1.0%,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0.9%, 교육급여 수급 가구도 0.9%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0.8%였다.

〈표 III-3-6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차상위계층	계(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비율	0.6	1.0	0.9	0.9	0.8	100.0(277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우리사회 구조를 10단계 사다리로 제시하여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았다. 10점 척도에서 주양육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은 5.58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에 31.8%, 6점 25.1%, 7점 16.5%, 4점 10.9%가 응답하였다.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비해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평균
전체	0.5	1.5	5.2	10.9	31.8	25.1	16.5	7.2	1.2	0.2	100.0(2775)	5.58
맞벌이 여부												
맞벌이	0.3	0.4	3.4	7.5	30.5	25.5	19.6	9.9	2.4	0.3	100.0(787)	5.89
맞벌이 아님	0.2	1.2	7.1	14.9	33.3	23.0	13.6	5.8	0.7	0.2	100.0(765)	5.38
$\chi^2(df)/t$	n.a.											7.3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3	2.4	12.1	16.4	39.5	16.1	8.2	3.3	0.5	0.2	100.0(615)	4.92 ^a
301~500만원	0.2	1.6	3.6	11.2	33.8	27.4	15.4	6.2	0.4	0.2	100.0(1406)	5.55 ^b
501~700만원	-	1.1	2.8	6.6	26.5	28.4	21.6	10.8	2.1	-	100.0(477)	5.97 ^c
701만원 이상	0.7	-	2.1	4.2	13.6	27.2	31.8	14.9	4.9	0.6	100.0(277)	6.47 ^d
$\chi^2(df)/F$	n.a.											103.59***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0.5	1.4	4.0	8.4	29.3	28.3	17.6	8.9	1.5	0.2	100.0(1051)	5.74 ^c
중소도시(비광역시/동)	0.2	1.6	5.1	12.7	33.1	22.3	17.0	6.5	1.2	0.3	100.0(1317)	5.53 ^b
읍·면	1.0	1.6	8.6	11.2	34.4	25.7	12.3	4.9	0.3	-	100.0(407)	5.29 ^a
$\chi^2(df)/F$	n.a.											1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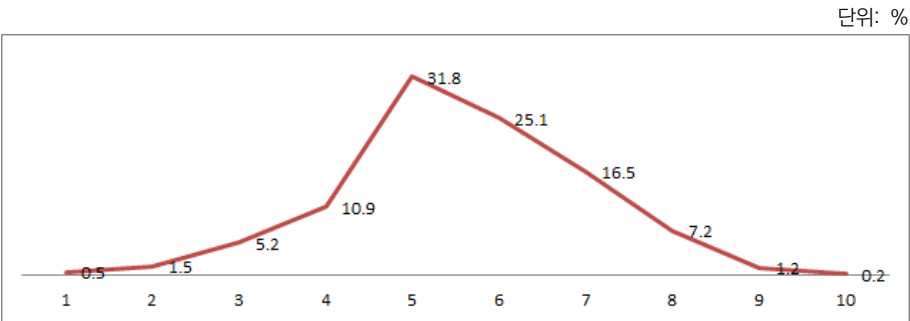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숫자가 커질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

3)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01$.

[그림 III-3-1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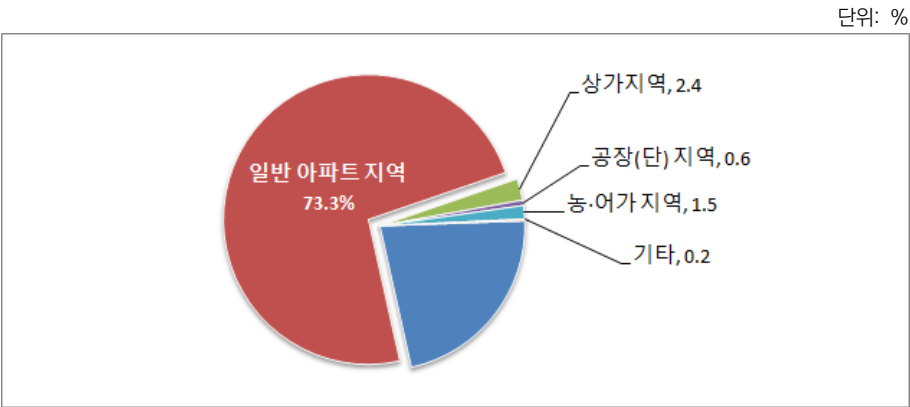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4) 주거 환경

현재 거주지역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반 아파트 지역이 73.3%, 일반주택지역이 22.1%, 상가지역 2.4%, 농·어가 지역 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1] 거주지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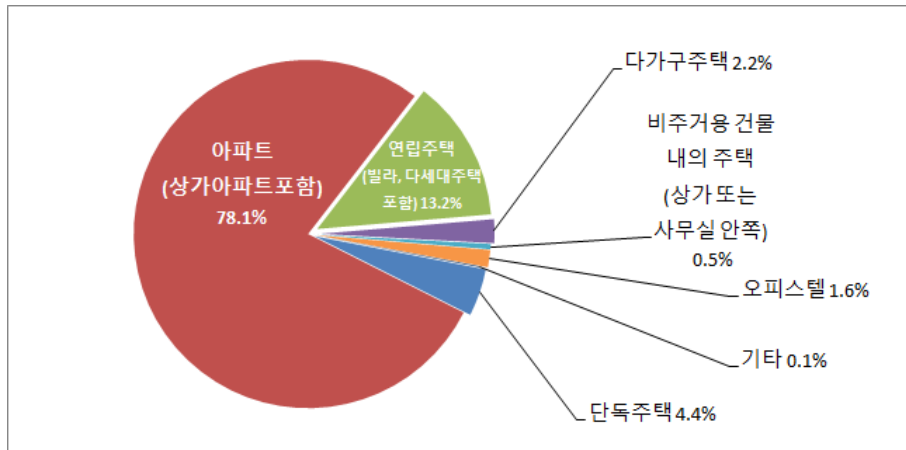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가 78.1%로 가장 많았으며, 연립주택이 13.2%, 단독주택 4.4%, 다가구 주택 2.2%, 오피스텔 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2] 주거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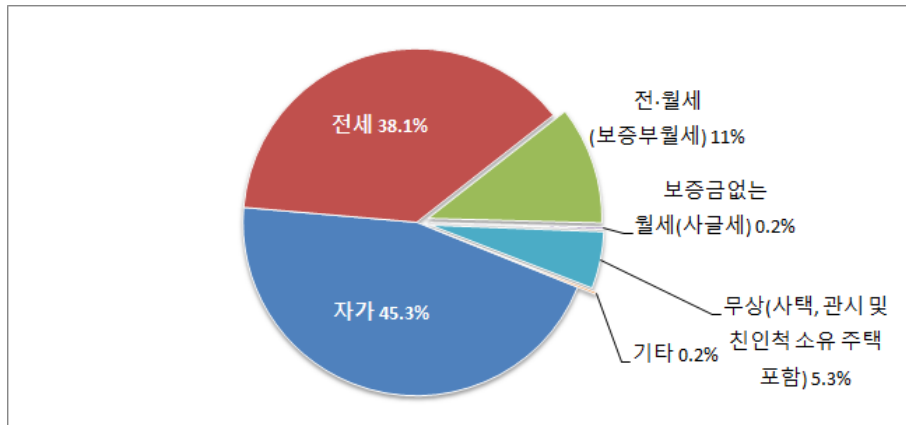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자가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는 38.1%, 전·월세 11.0%, 무상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3]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현재 거주지로 전입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21년이 23.0%, 2020년이 24.2%, 2018년 이전이 22.2%, 2019년이 16.6%, 2022년이 14.0%로 고르게 분포하여 나타났다.

〈표 III-3-71〉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시기(연도)

단위: %(명)

구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수)
전체	22.2	16.6	24.2	23.0	14.0	100.0(277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현재 거주지를 정할 때 가장 고려한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무지와의 거리’가 45.5%로 가장 많았고, ‘주거 비용’이 20.9%, ‘돌봄 제공자와의 접근성’이 17.1%, 보육 시설 및 환경이 14.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 거주 이유는 출생순위,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패널 아동의 출생순위가 먼저일수록(첫째인 경우) ‘근무지와의 거리’가 주된 이유인 비율이 높았으며, 아동이 나중 출생순위일수록 보육시설 및 환경이 거주지 선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 ‘근무지와의 거리’, ‘돌봄 제공자와의 접근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거 비용’이 거주지 선택의 이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육 시설 및 환경’ 요인의 비율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컸다.

〈표 III-3-72〉 현거주지 거주 이유

단위: %(명)

구분	근무지와의 거리	돌봄 제공자와의 접근성	주거 비용	보육시설 및 환경	기타	계(수)
전체	45.5	17.1	20.9	14.0	2.5	100.0(2775)
출생순위						
첫째	49.9	16.7	20.6	10.4	2.4	100.0(1659)
둘째	39.5	17.5	21.2	18.6	3.1	100.0(906)
셋째 이상	36.8	18.9	21.4	22.0	0.8	100.0(210)
$\chi^2(df)$			61.0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4	19.1	21.5	12.9	3.2	100.0(787)
맞벌이 아님	40.3	15.2	22.2	20.4	1.9	100.0(765)
$\chi^2(df)$			20.02(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9.3	16.4	28.5	12.4	3.5	100.0(615)
301~500만원	48.1	14.8	20.6	14.2	2.3	100.0(1406)
501~700만원	45.0	24.0	17.3	11.7	2.1	100.0(477)
701만원 이상	47.2	18.6	11.5	20.2	2.4	100.0(277)
$\chi^2(df)$			70.90(1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면적을 살펴본 결과, 평균 90.94m²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120m²미만이 30.1%로 가장 많고, 80~100m²미만이 28.5%, 60~80m²미만이 22.4%, 60m²미만이 1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73〉 주거 면적(m²)

단위: %(명), m²

구분	60㎡ 미만	60~80㎡ 미만	80~100㎡ 미만	100~120㎡ 미만	120㎡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2.9	22.4	28.5	30.1	6.0	100.0(2775)	90.94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평 응답값과 제곱미터 응답값 통합
3)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을 제외하고 건물의 연면적 기입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2.89개였으며, 3개가 76.3%로 가장 많고, 2개가 15.5%, 4개 이상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74〉 주거지 방 개수

단위: %(명), 개

구분	1개 이하	2개	3개	4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5	15.5	76.3	6.7	100.0(2775)	2.8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방의 수는 거실(대청마루), 부엌, 식당을 제외한 수임.

아동의 개인 방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아동 개인 방이 있는 가구는 36.6%이었다.

〈표 III-3-75〉 아동 개인 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개인 방이 있음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계(수)
전체	36.6	63.4	100.0(277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혼자만 사용하는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는 16.7%로 나타났다.

〈표 III-3-76〉 반려동물 여부

단위: %(명)

구분	키움	키우지 않음	계(수)
전체	16.7	83.3	100.0(2775)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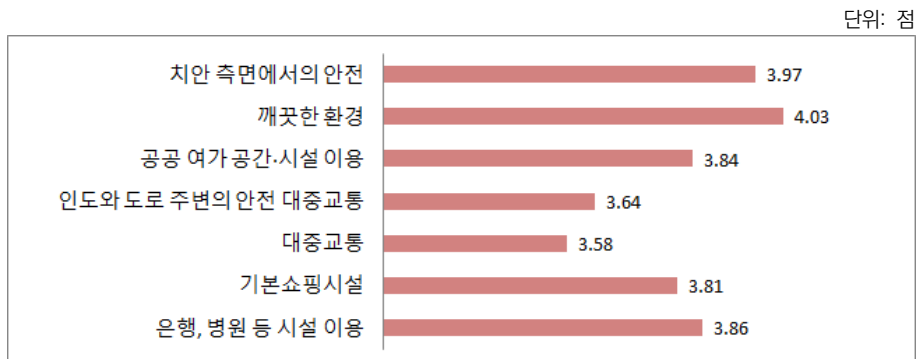
4.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다음은 패널 아동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육아정책 관련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에 대한 인식 등 지역사회 관련 내용과 육아정책에 대한 패널 가구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환경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깨끗하다는 응답한 정도는 4.03점,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 안전하다는 응답이 3.9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은행 및 병원 같은 기본 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3.86점, 놀이터, 공원, 산책로, 도서관 등 공공 여가 공간 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3.84점, 시장, 마트, 슈퍼마켓 같은 기본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3.81점, 인도와 도로 주변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3.64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3.58점이었다.

[그림 III-4-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 청결, 각종 시설 및 기관 등 인프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대

체로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와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안전, 청결, 인프라 모든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1)

단위: 점(명)

구분	치안 측면에서의 안전		깨끗함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인도와 도로 주변의 안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97	0.78	4.03	0.80	3.84	1.03	3.64	0.98	(277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6 ^a	0.85	3.93 ^a	0.81	3.73 ^a	1.07	3.56 ^a	1.00	(615)
301~500만원	3.96 ^{ab}	0.76	4.02 ^{ab}	0.80	3.81 ^{ab}	1.02	3.64 ^{ab}	0.97	(1406)
501~700만원	4.10 ^b	0.74	4.15 ^b	0.76	4.00 ^c	0.96	3.77 ^b	0.93	(477)
701만원 이상	4.04 ^b	0.79	4.08 ^b	0.88	3.91 ^{bc}	1.07	3.59 ^{ab}	1.05	(277)
<i>F</i>	9.26***		6.98***		7.36***		4.24**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95 ^b	0.79	3.99 ^a	0.85	3.87 ^b	1.00	3.60 ^b	1.01	(105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04 ^b	0.78	4.10 ^b	0.78	3.96 ^b	0.99	3.74 ^c	0.94	(1317)
읍·면	3.80 ^a	0.77	3.89 ^a	0.72	3.36 ^a	1.11	3.42 ^a	0.99	(407)
<i>F</i>	15.15***		12.71***		54.89***		18.8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표 III-4-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2)

단위: 점(명)

구분	대중교통		기본 쇼핑시설		은행, 병원 등 시설 이용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8	1.10	3.81	1.00	3.86	0.98	(277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42 ^a	1.11	3.71 ^a	1.03	3.71 ^a	1.02	(615)
301~500만원	3.56 ^{ab}	1.08	3.80 ^{ab}	0.95	3.83 ^a	0.96	(1406)
501~700만원	3.74 ^{bc}	1.15	3.90 ^b	1.03	4.01 ^b	0.91	(477)
701만원 이상	3.80 ^c	1.07	3.91 ^b	1.12	4.06 ^b	0.97	(277)
<i>F</i>	11.63***		4.28**		13.32***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89 ^c	0.97	3.94 ^b	0.96	4.01 ^b	0.85	(105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52 ^b	1.13	3.85 ^b	0.98	3.90 ^b	0.96	(1317)
읍·면	2.99 ^a	1.08	3.35 ^a	1.05	3.30 ^a	1.11	(407)
<i>F</i>	110.17***		55.09***		86.1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 좋다는 응답이 54.3%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다는 응답이 14.6%, 보통 23%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의 경우에도 3.75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소득과 지역규모 간의 평가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읍·면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III-4-3〉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좋지 않음	대체로 좋지 않음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9	7.1	23.0	54.3	14.6	100.0(2775)	3.75	0.8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1	9.6	27.1	48.9	12.3	100.0(615)	3.60 ^a	0.90
301~500만원	0.5	6.4	22.7	55.7	14.6	100.0(1406)	3.78 ^b	0.79
501~700만원	0.7	3.8	21.5	58.4	15.7	100.0(477)	3.85 ^b	0.75
701만원 이상	1.0	10.4	18.3	52.6	17.7	100.0(277)	3.76 ^b	0.90
<i>F</i>			47.84(12) ^{***}					9.85 ^{***}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1.1	6.7	23.5	54.6	14.2	100.0(1051)	3.74 ^b	0.82
중소도시(비광역시/동)	0.9	5.6	20.2	56.4	16.8	100.0(1317)	3.83 ^b	0.80
읍·면	0.8	12.6	31.0	47.0	8.5	100.0(407)	3.50 ^a	0.85
<i>F</i>			57.06(8) ^{***}					25.18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01$.

다음은 패널 아동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패널 아동 가구들은 지역 내에 어린이집 충분성은 4.01점, 유치원은 3.72점, 기타 사교육 기관은 3.63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독립변수 간 차이가 일부 나타났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소득 구간이 501~700만원인 집단에서 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은 지역 내 유치원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었다. 또한 일관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 거주자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사교육 기관을 충분함을 다소 낮게 보고하였다.

〈표 III-4-4〉 유치원·어린이집·기타 기관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사교육 기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01	1.03	(2700)	3.72	1.12	(2569)	3.63	1.14	(261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9 ^{ab}	1.07	(599)	3.54 ^a	1.16	(569)	3.53 ^{ab}	1.21	(569)
301~500만원	4.06 ^{bc}	0.98	(1375)	3.79 ^b	1.08	(1312)	3.66 ^b	1.09	(1336)
501~700만원	4.10 ^c	1.00	(458)	3.80 ^b	1.12	(435)	3.72 ^b	1.14	(447)
701만원 이상	3.86 ^a	1.20	(267)	3.60 ^b	1.23	(253)	3.49 ^a	1.23	(266)
<i>F</i>	6.75 ^{***}			8.01 ^{***}			4.06 ^{**}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06 ^b	1.06	(1027)	3.76 ^b	1.11	(969)	3.70 ^b	1.13	(982)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05 ^b	0.99	(1271)	3.79 ^b	1.10	(1205)	3.73 ^b	1.11	(1243)
읍·면	3.77 ^a	1.05	(402)	3.40 ^a	1.18	(395)	3.13 ^a	1.12	(393)
<i>F</i>	12.85 ^{***}			19.32 ^{***}			45.52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나. 정책 특성

정책 특성으로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현금, 현물/바우처, 시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다음은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이다. 해당 질문에서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기 다른 응답 경향성을 보였는데 아동의 아버지의 경우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있어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원하는 반면, 아동의 어머니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취업 중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다른 지원보다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원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4-5〉 육아지원정책 방향 1순위 응답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가능 강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수)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가능 강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수)
전체	27.2	43.1	29.7	(1571)	23.3	36.6	40.1	(2471)
출생순위								
첫째	26.1	44.1	29.8	(965)	22.5	36.6	40.9	(1488)
둘째	29.5	38.3	32.2	(497)	23.5	36.0	40.5	(807)
셋째 이상	26.5	56.5	17.0	(109)	28.9	39.4	31.7	(177)
$\chi^2(df)$		15.72(4)**				6.65(4)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27.7	42.8	29.6	(1509)	25.0	26.3	48.7	(1284)
학업 중	15.5	55.7	28.8	(12)	15.9	58.0	26.1	(25)
미취업/미취학	15.9	50.2	33.9	(49)	21.5	47.6	30.9	(1161)
$\chi^2(df)$		n.a.				131.06(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2.9	52.1	25.0	(355)	20.9	46.6	32.4	(545)
301~500만원	24.1	45.3	30.6	(768)	21.7	38.0	40.3	(1239)
501~700만원	33.5	35.7	30.8	(286)	25.3	30.4	44.3	(434)
701만원 이상	40.3	26.1	33.6	(162)	32.9	18.9	48.2	(253)
$\chi^2(df)$		45.49(6)***				68.79(6)***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 $p < .001$.

마찬가지로 영아 자녀 양육 시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질문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영아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 보육료 지원-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순서로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영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3가지를 동일한 필요성 정도로 응답하였다.

어머니 응답에서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 첫째인 경우보다 초등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고, 취업 중인 경우에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응답 모두에서 소득이 7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그 이상의 집단보다 ‘영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Ⅲ-4-6〉 영아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영아 보육료	유아학비 및 유아 보육료	방과후 과정 연장반	초등 돌봄	(수)	영아 보육료	유아학비 및 유아 보육료	방과후 과정 연장반	초등 돌봄	(수)
전체	4.74	4.72	4.65	4.57	(1571)	4.70	4.70	4.70	4.64	(2471)
출생순위										
첫째	4.74	4.73	4.66	4.57	(965)	4.69	4.68	4.69	4.60 ^a	(1488)
둘째	4.74	4.71	4.65	4.60	(497)	4.68	4.71	4.70	4.69 ^{ab}	(807)
셋째 이상	4.76	4.78	4.59	4.53	(109)	4.78	4.78	4.78	4.73 ^b	(177)
<i>F</i>	0.10	0.56	0.54	0.45		1.58	2.06	1.64	4.99 ^{**}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4.74	4.72	4.65	4.57	(1509)	4.68	4.68	4.76 ^b	4.69 ^a	(1284)
학업 중	4.96	4.96	4.65	4.58	(12)	4.60	4.79	4.42 ^a	4.55 ^a	(25)
미취업/미취학	4.76	4.68	4.62	4.58	(49)	4.72	4.72	4.64 ^{ab}	4.59 ^a	(1161)
<i>F</i>	0.82	1.08	0.06	0.00		1.74	1.29	11.48 ^{***}	5.83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75	4.72 ^b	4.62	4.50	(355)	4.77 ^b	4.74 ^b	4.69	4.61	(545)
301~500만원	4.77	4.78 ^b	4.65	4.60	(768)	4.71 ^b	4.73 ^b	4.71	4.65	(1239)
501~700만원	4.71	4.70 ^b	4.69	4.63	(286)	4.68 ^b	4.68 ^b	4.69	4.63	(434)
701만원 이상	4.63	4.52 ^a	4.65	4.53	(162)	4.49 ^a	4.49 ^a	4.68	4.66	(253)
<i>F</i>	2.53	8.70 ^{***}	0.62	2.06		11.31 ^{***}	11.11 ^{***}	0.19	0.63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매우 불필요하다 ~ 5. 매우 필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2) 육아지원제도(현금)의 이용 및 인식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현금 및 현물/바우처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양육수당은 패널 가구 모두 지급받았으며, 아동수당은 94.3%, 영아수당(현금) 92.1%로 90% 이상이 해당 제도를 수혜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급여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30.8%가 이 제도를 이용한 적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용시 만족도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는 실 이용자가 적긴 했지만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이었으며 4.03점이었다. 출산급여가 3.95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근로장려세제가 동일하게 3.94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제도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영아수당으로 4.61점으로 그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양육수당과 출산급여 역시

4.60점으로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표 III-4-7〉 육아지원제도(현금)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종합

단위: %, 점(명)

구분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1) 아동수당	94.3	3.78	4.53	(2775)
2-1) 영아수당(현금)	92.1	3.88	4.61	(2775)
2-2) 보육료(이용권)	3.3	3.86		(2775)
2-3)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	1.0	4.03		(2775)
3) 양육수당	100.0	-	4.60	(2775)
4) 출산급여	56.1	3.95	4.60	(2775)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0.8	3.94	4.51	(2775)
6) 근로장려세제	5.4	3.94	4.35	(2775)
7) 자녀장려세제	5.7	3.76	4.36	(277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각 제도의 만족도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4-8〉과 같다. 아동수당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서, 대도시 지역 거주 가구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아수당의 경우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가 첫째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만족도를 높게 나타냈다.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의 경우는 아동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보다 첫째와 둘째인 경우에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출산급여의 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의 만족도가 701만원 이상 집단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집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8〉육아지원제도(현금) 이용 만족도(1)

단위: 점(명)

구분	아동수당			영아수당(현금)			보육료(이용권)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78	0.91	(2616)	3.88	0.90	(2557)	3.86	0.85	(91)	4.03	0.93	(28)
출생순위												
첫째	3.75	0.93	(1547)	3.84 ^a	0.92	(1549)	3.74	0.82	(33)	4.28 ^b	0.62	(14)
둘째	3.81	0.90	(863)	3.92 ^{ab}	0.89	(826)	3.91	0.88	(48)	4.37 ^b	0.66	(8)
셋째 이상	3.86	0.82	(206)	4.01 ^b	0.79	(182)	4.04	0.79	(10)	3.09 ^a	1.24	(6)
<i>F</i>	1.87			4.12 [*]			0.62			5.76 ^{**}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4	0.95	(758)	3.94	0.95	(722)	4.06	0.95	(35)	3.89	0.67	(7)
맞벌이 아님	3.70	0.91	(736)	3.81	0.89	(720)	3.58	0.79	(17)	4.36	0.56	(4)
<i>t</i>	3.04 ^{**}			2.63 ^{**}			1.83			-1.14		

구분	아동수당			영아수당(현금)			보육료(이용권)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76	0.88	(582)	3.88	0.89	(559)	3.88	0.89	(21)	4.31	0.85	(6)
301~500만원	3.79	0.89	(1298)	3.90	0.87	(1312)	3.86	0.82	(30)	3.67	0.96	(14)
501~700만원	3.76	0.97	(462)	3.84	0.97	(435)	3.85	0.98	(22)	4.14	0.84	(5)
701만원 이상	3.78	0.99	(274)	3.82	0.96	(251)	3.85	0.73	(18)	5.00	-	(3)
<i>F</i>	0.19			0.90			0.00			2.36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84 ^c	0.94	(975)	3.91	0.92	(970)	4.04	0.79	(29)	4.36	0.60	(12)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76 ^{ab}	0.92	(1256)	3.86	0.91	(1212)	3.88	0.89	(45)	3.91	1.09	(15)
읍·면	3.70 ^a	0.81	(384)	3.84	0.80	(375)	3.51	0.75	(17)	3.00	-	(2)
<i>F</i>	3.91 [*]			1.45			2.16			2.1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 $p < .05$, ** $p < .01$.

〈표 III-4-9〉 육아지원제도(현금) 이용 만족도(2)

단위: 점(명)

구분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95	0.96	(1556)	3.94	1.00	(854)	3.94	0.73	(150)	3.76	0.78	(158)
출생순위												
첫째	3.93	0.97	(959)	3.92	1.02	(539)	4.09	0.74	(64)	3.80	0.77	(60)
둘째	4.02	0.95	(482)	4.00	0.95	(271)	3.79	0.74	(63)	3.75	0.84	(77)
셋째 이상	3.83	0.90	(116)	3.77	0.99	(43)	3.98	0.64	(22)	3.68	0.57	(21)
<i>F</i>	2.38			1.19			2.71			0.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4.01	0.94	(593)	3.95	1.03	(329)	4.07	0.76	(29)	3.81	0.78	(45)
맞벌이 아님	3.88	0.93	(279)	3.89	1.01	(200)	3.87	0.75	(46)	3.69	0.82	(41)
<i>t</i>	1.88			0.70			1.15			0.6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05 ^b	0.85	(266)	3.88	0.93	(176)	3.90	0.80	(54)	3.59	0.78	(42)
301~500만원	3.99 ^{ab}	0.90	(777)	3.96	0.96	(426)	3.97	0.71	(65)	3.81	0.80	(75)
501~700만원	3.86 ^{ab}	1.06	(324)	3.91	1.11	(161)	3.96	0.70	(27)	3.94	0.73	(29)
701만원 이상	3.80 ^a	1.11	(189)	3.96	1.07	(90)	3.99	0.67	(3)	3.64	0.68	(12)
<i>F</i>	3.82 ^{**}			0.37			0.09			1.34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04 ^a	0.93	(641)	3.93	1.04	(347)	3.91	0.79	(42)	3.73	0.91	(45)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88 ^a	0.98	(718)	3.95	0.97	(409)	4.02	0.75	(65)	3.84	0.79	(76)
읍·면	3.94 ^a	0.92	(197)	3.88	0.98	(97)	3.86	0.65	(42)	3.63	0.55	(37)
<i>F</i>	4.89 ^{**}			0.21			0.69			1.0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다음으로 중요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중요도 평가에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 집단은 그 이하 집단에 비해 중요도를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보다 중소도시 지역의 아동수당 중요도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영아수당의 경우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 집단은 그 이하 집단에 비해 중요도를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 집단은 그 이하 집단에 비해 중요도를 비교적 낮게 평가했으며, 읍·면 지역보다 중소도시 지역에서 더 높게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표 III-4-10〉 육아지원제도(현금) 중요도(1)

단위: 점(명)

구분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53	0.69	4.61	0.64	4.60	0.66	(2775)
출생순위							
첫째	4.52	0.69	4.61	0.64	4.60	0.65	(1659)
둘째	4.53	0.69	4.61	0.64	4.58	0.67	(906)
셋째 이상	4.60	0.67	4.65	0.59	4.62	0.67	(210)
<i>F</i>	1.20		0.46		0.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3	0.71	4.63	0.66	4.62	0.68	(787)
맞벌이 아님	4.58	0.65	4.68	0.59	4.64	0.62	(765)
<i>t</i>	-1.21		-1.50		-0.6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57 ^b	0.67	4.66 ^b	0.64	4.61 ^b	0.69	(615)
301~500만원	4.53 ^b	0.65	4.63 ^b	0.60	4.62 ^b	0.61	(1406)
501~700만원	4.58 ^b	0.65	4.62 ^b	0.62	4.60 ^b	0.64	(477)
701만원 이상	4.35 ^a	0.91	4.45 ^a	0.79	4.45 ^a	0.82	(277)
<i>F</i>	7.99 ^{***}		7.03 ^{***}		5.55 ^{***}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50 ^{ab}	0.71	4.59	0.67	4.57 ^{ab}	0.70	(105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57 ^b	0.65	4.64	0.61	4.63 ^b	0.60	(1317)
읍·면	4.46 ^a	0.73	4.58	0.65	4.54 ^a	0.72	(407)
<i>F</i>	5.58 ^{**}		2.16		4.66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1$, *** $p < .001$.

출산급여는 맞벌이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고, 읍·면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경우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배우자 출산

급여 역시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중요도를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

〈표 III-4-11〉 육아지원제도(현금) 중요도(2)

단위: 점(명)

구분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60	0.65	4.51	0.73	4.35	0.81	4.36	0.80	(2775)
출생순위									
첫째	4.63 ^a	0.62	4.53	0.72	4.36	0.79	4.36	0.78	(1659)
둘째	4.56 ^a	0.68	4.48	0.74	4.33	0.84	4.36	0.82	(906)
셋째 이상	4.59 ^a	0.72	4.44	0.78	4.41	0.81	4.37	0.80	(210)
<i>F</i>	3.10 [*]		1.87		0.81		0.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8	0.62	4.60	0.70	4.40	0.81	4.41	0.80	(787)
맞벌이 아님	4.59	0.68	4.51	0.73	4.34	0.81	4.35	0.81	(765)
<i>t</i>	2.49 [*]		2.26 [*]		1.58		1.4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59	0.69	4.47	0.82	4.34	0.87	4.34	0.86	(615)
301~500만원	4.60	0.62	4.49	0.68	4.37	0.75	4.38	0.74	(1406)
501~700만원	4.66	0.62	4.58	0.71	4.36	0.81	4.36	0.80	(477)
701만원 이상	4.55	0.71	4.51	0.77	4.25	0.93	4.30	0.90	(277)
<i>F</i>	2.02		2.50		1.74		1.07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60 ^b	0.66	4.52 ^b	0.73	4.33 ^b	0.82	4.35 ^b	0.81	(105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63 ^b	0.62	4.55 ^b	0.68	4.43 ^b	0.76	4.43 ^b	0.74	(1317)
읍·면	4.51 ^a	0.69	4.33 ^a	0.85	4.17 ^a	0.91	4.18 ^a	0.90	(407)
<i>F</i>	5.40 ^{**}		13.79 ^{***}		16.45 ^{***}		15.61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3)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의 이용 및 인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현물/바우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첫만남 이용권은 대부분의 패널 가구가 지원받았으며(96.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85.1%가 해당 제도를 수혜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선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41.5%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11.1%, 그리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7.8%가 해당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육아지원제도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는 제도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첫만남 이용권이었으며(4.29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4.12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4.10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제도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한 패널 가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첫만남 이용권으로 4.67점으로 그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육아지원제도들이 4.40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표 III-4-12〉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종합

단위: %, 점(명)

구분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1) 첫만남 이용권	96.2	4.29	4.67	(2775)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85.1	4.12	4.66	(2775)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1.5	4.06	4.54	(2775)
4) 아이돌봄지원사업	11.1	4.06	4.50	(2775)
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7.8	4.10	4.40	(2775)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각 제도의 만족도를 집단별로 나누워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4-13〉과 같다.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비맞벌이보다 높게 나타났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또한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비맞벌이 가구의 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표 III-4-13〉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만족도(1)

단위: 점(명)

구분	첫만남 이용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29	0.80	(2670)	4.12	0.87	(2363)	4.06	0.89	(1152)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4.31	0.82	(1027)	4.14	0.91	(924)	4.09	0.92	(449)
6개월~7개월	4.28	0.78	(941)	4.11	0.85	(835)	4.05	0.87	(414)
8개월 이상	4.26	0.79	(702)	4.12	0.82	(603)	4.04	0.89	(289)
<i>F</i>	1.09			0.28			0.36		
출생순위									
첫째	4.29	0.79	(1596)	4.12	0.85	(1384)	4.05	0.91	(675)
둘째	4.30	0.83	(866)	4.13	0.91	(796)	4.07	0.89	(391)
셋째 이상	4.23	0.78	(207)	4.10	0.81	(182)	4.12	0.78	(85)
<i>F</i>	0.67			0.08			0.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9	0.75	(752)	4.20	0.86	(671)	4.08	0.92	(347)

구분	첫만남 이용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맞벌이 아님 <i>t</i>	4.23	0.84	(733)	4.10	0.89	(645)	4.08	0.94	(298)
	3.74***			2.02*			0.0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33	0.80	(590)	4.17	0.85	(524)	4.11	0.82	(265)
301~500만원	4.27	0.78	(1341)	4.11	0.85	(1177)	4.09	0.87	(570)
501~700만원	4.27	0.84	(463)	4.07	0.91	(427)	3.94	0.98	(213)
701만원 이상	4.30	0.86	(275)	4.18	0.91	(234)	4.04	1.00	(103)
<i>F</i>	0.92			1.43			1.72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31	0.81	(1009)	4.11	0.90	(862)	4.04	0.93	(458)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27	0.80	(1269)	4.15	0.85	(1149)	4.07	0.90	(506)
읍·면	4.31	0.76	(391)	4.09	0.82	(351)	4.10	0.77	(187)
<i>F</i>	0.85			0.80			0.37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 $p < .05$, *** $p < .00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의 만족도가 701만원 이상인 집단의 만족도보다 높았으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족도가 읍·면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4〉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이용 만족도(2)

단위: 점(명)

구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06	0.84	(308)	4.10	0.78	(49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4.09	0.91	(95)	4.19	0.73	(170)
6개월~7개월	3.98	0.84	(132)	4.01	0.74	(186)
8개월 이상	4.13	0.75	(81)	4.11	0.86	(139)
<i>F</i>	0.90			2.48		
출생순위						
첫째	4.07	0.83	(150)	4.14	0.67	(104)
둘째	4.00	0.80	(126)	4.09	0.80	(301)
셋째 이상	4.20	1.05	(32)	4.09	0.80	(90)
<i>F</i>	0.72			0.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04	0.79	(96)	4.22	0.79	(103)
맞벌이 아님	4.06	0.77	(73)	4.04	0.79	(162)
<i>t</i>	-0.20			1.76		

구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30 ^b	0.69	(73)	4.12	0.80	(193)
301~500만원	4.00 ^{ab}	0.93	(140)	4.10	0.77	(232)
501~700만원	4.00 ^{ab}	0.74	(65)	4.15	0.71	(43)
701만원 이상	3.81 ^a	0.84	(30)	3.79	0.80	(26)
<i>F</i>	3.29*			1.48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90 ^a	0.90	(118)	4.18 ^b	0.72	(174)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19 ^a	0.81	(143)	4.17 ^b	0.80	(199)
읍·면	4.06 ^a	0.74	(47)	3.88 ^a	0.79	(122)
<i>F</i>	3.86*			6.73**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다음은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이다. 첫만남 이용권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 집단은 그 미만 집단들에 비해 첫만남 이용권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에는 지역규모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표 III-4-15〉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중요도(1)

단위: 점(명)

구분	첫만남 이용권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67	0.60	4.66	0.60	4.54	0.68	(2775)
출생순위							
첫째	4.66	0.59	4.66	0.59	4.55	0.67	(1659)
둘째	4.67	0.61	4.68	0.59	4.52	0.68	(906)
셋째 이상	4.68	0.60	4.64	0.68	4.54	0.72	(210)
<i>F</i>	0.10		0.441		0.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8	0.62	4.69	0.59	4.59	0.65	(787)
맞벌이 아님	4.71	0.54	4.70	0.59	4.58	0.67	(765)
<i>t</i>	-0.98		-0.14		0.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69 ^b	0.64	4.65	0.66	4.57	0.71	(615)
301~500만원	4.66 ^{ab}	0.56	4.66	0.56	4.53	0.64	(1406)
501~700만원	4.72 ^b	0.55	4.70	0.57	4.56	0.67	(477)
701만원 이상	4.57 ^a	0.75	4.62	0.65	4.45	0.80	(277)

구분	첫만남 이용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i>F</i>	4.41**		1.10		2.23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65	0.62	4.67	0.61	4.53 ^{ab}	0.71	(105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67	0.57	4.67	0.57	4.57 ^b	0.63	(1317)
읍·면	4.70	0.62	4.64	0.66	4.46 ^a	0.74	(407)
<i>F</i>	1.13		0.28		4.82**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패널 가구의 맞벌이 여부와 지역규모에 따라 중요도 평가의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 가구에서 그리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그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가구보다 그 미만인 가구일수록, 거주지역이 읍·면지역에서 거주하는 가구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해당 사업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4-16〉 육아지원제도(현물/바우처) 중요도(2)

단위: 점(명)

구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50	0.72	4.40	0.76	(2775)
출생순위					
첫째	4.50	0.72	4.40	0.77	(1659)
둘째	4.49	0.70	4.40	0.77	(906)
셋째 이상	4.53	0.74	4.47	0.69	(210)
<i>F</i>	0.30		0.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9	0.68	4.46	0.78	(787)
맞벌이 아님	4.51	0.71	4.46	0.73	(765)
<i>t</i>	2.29*		0.1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51	0.77	4.48 ^b	0.76	(615)
301~500만원	4.50	0.67	4.39 ^{ab}	0.73	(1406)
501~700만원	4.53	0.72	4.39 ^{ab}	0.80	(477)
701만원 이상	4.45	0.82	4.30 ^a	0.86	(277)
<i>F</i>	0.76		3.74*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50 ^b	0.74	4.41 ^b	0.77	(1051)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54 ^b	0.66	4.45 ^b	0.72	(1317)

구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읍·면 F	4.35 ^a	0.81	4.25 ^a	0.84	(407)
		11.43***		10.79***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5$, *** $p < .001$.

4) 육아지원제도(시간)의 이용 및 인식

다음은 육아지원정책 중 시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이용률은 각각 17.5%, 6.3%에 반해 어머니의 이용률은 45.1%, 9.0%로 나타났다.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대상 제도인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의 경우 각각 28.1%, 17.6%, 17.8%의 이용률을 보였다. 육아지원제도 이용 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 4.33점으로 채택 근무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도가 4.27점, 원격근무제도 4.2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일하게 4.1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제도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아버지,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제도를 각각 4.61점, 4.7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원격근무제도를 각각 3.76점, 4.0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나 모두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4-17〉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종합

단위: %,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1) 육아휴직	17.5	3.92	4.61	(1571)	45.1	4.09	4.76	(247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3	4.21	4.44	(1571)	9.0	4.15	4.64	(2471)
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	4.52	(1571)	28.1	4.15	4.57	(2471)
4) 시간외 근로 금지*	-	-	4.45	(1571)	17.6	4.09	4.52	(2471)
5)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	-	4.47	(1571)	17.8	4.11	4.54	(2471)
6) 가족돌봄휴가	12.8	4.07	4.45	(1571)	6.7	4.12	4.53	(2471)
7) 시차출퇴근제	6.6	4.27	4.21	(1571)	7.5	4.11	4.38	(2471)
8) 선택근무제	5.2	4.07	4.18	(1571)	4.5	4.07	4.32	(2471)
9) 채택근무제	12.7	4.33	4.06	(1571)	15.4	4.33	4.32	(2471)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비율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10) 원격근무제	3.8	4.26	3.76	(1571)	4.2	4.05	4.08	(247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대상 제도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의 결과는 다음 <표 III-4-18>과 같다. 어머니는 패널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패널 아동이 첫째나 둘째인 경우, 어머니가 학업 중인 집단보다 취업 중이거나 미취업/미취학인 경우, 그리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8>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육아휴직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전체	3.92	4.61	(1571)	4.09	4.76	(2471)
출생순위						
첫째	3.88	4.60	(965)	4.04 ^{ab}	4.77 ^b	(1488)
둘째	4.00	4.62	(497)	4.24 ^b	4.76 ^b	(807)
셋째 이상	3.84	4.57	(109)	3.94 ^a	4.65 ^a	(177)
F	0.51	0.36		6.20 ^{**}	3.51 [*]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4.61	(1509)	—	4.83 ^b	(1284)
학업 중	—	4.70	(12)	—	4.43 ^a	(25)
미취업/미취학	—	4.52	(49)	—	4.69 ^b	(1161)
F	—	0.50		—	25.95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4	4.55	(355)	4.16	4.73	(545)
301~500만원	3.81	4.59	(768)	4.11	4.75	(1239)
501~700만원	4.22	4.68	(286)	4.05	4.81	(434)
701만원 이상	4.06	4.65	(162)	4.06	4.76	(253)
F	2.27	2.46		0.52	1.63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3.87	4.59	(606)	4.13	4.81 ^b	(95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3.94	4.62	(739)	4.08	4.76 ^b	(1160)
읍·면	3.99	4.58	(227)	4.00	4.62 ^a	(362)
F	0.22	0.56		0.97	15.65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5$, ** $p < .01$, *** $p < .0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패널 아동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가구보다 그 미만인 집단에서 아버지의 제도 이용 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중요도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중요도를 가장 낮게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취업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서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취업 중인 가구보다 미취업 중인 가구에서,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가구보다 그 미만인 가구일수록,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읍·면보다 도시지역일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제도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4-19〉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전체	4.21	4.44	(1571)	4.15	4.64	(2471)
출생순위						
첫째	4.22 ^b	4.45	(965)	4.16	4.63	(1488)
둘째	4.49 ^b	4.43	(497)	4.15	4.68	(807)
셋째 이상	3.43 ^a	4.39	(109)	4.09	4.58	(177)
<i>F</i>	5.38 ^{**}	0.37		0.04	2.29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4.44	(1509)	—	4.70 ^b	(1284)
학업 중	—	4.51	(12)	—	4.36 ^a	(25)
미취업/미취학	—	4.39	(49)	—	4.59 ^{ab}	(1161)
<i>F</i>	—	0.15		—	12.08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7	4.35 ^a	(355)	4.18	4.66 ^b	(545)
301~500만원	4.22	4.44 ^{ab}	(768)	4.18	4.65 ^b	(1239)
501~700만원	4.49	4.55 ^b	(286)	3.96	4.68 ^b	(434)
701만원 이상	3.64	4.47 ^{ab}	(162)	4.40	4.50 ^a	(253)
<i>F</i>	2.19	3.73 [*]		1.10	5.32 ^{**}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33	4.41	(606)	4.17	4.68 ^b	(95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17	4.49	(739)	4.19	4.67 ^b	(1160)
읍·면	3.74	4.37	(227)	3.88	4.48 ^a	(362)
<i>F</i>	1.54	2.96		0.92	15.26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5$, ** $p < .01$, *** $p < .001$.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에 대해 어머니의 제도 이용 시 만족도와 중요도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III-4-20>과 같다.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제도가 있다.

먼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 만족도에서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일수록 제도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중요도에서는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가구보다 그 미만인 가구에서, 지역규모가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제도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시간외 근로 금지 및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에 대한 어머니의 이용 만족도와 중요도를 살펴보면,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중요도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 중요도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가구보다 그 미만인 가구에서, 지역규모가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제도 중요도 점수가 더 높았다.

<표 III-4-20>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단위: 점(명)

구분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전체	4.15	4.57	(2471)	4.09	4.52	(2471)	4.11	4.54	(2471)
출생순위									
첫째	4.13	4.59	(1488)	4.09	4.49	(1488)	4.10	4.53	(1488)
둘째	4.18	4.53	(807)	4.06	4.57	(807)	4.10	4.58	(807)
셋째 이상	4.36	4.50	(177)	4.28	4.47	(177)	4.24	4.44	(177)
F	0.80	2.88		0.36	2.75		0.15	2.66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4.62 ^a	(1284)	-	4.54	(1284)	-	4.56	(1284)
학업 중	-	4.53 ^a	(25)	-	4.49	(25)	-	4.47	(25)
미취업/미취학	-	4.51 ^a	(1161)	-	4.49	(1161)	-	4.52	(1161)
F	-	7.65 ^{***}		-	1.04		-	0.9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10	4.60 ^b	(545)	4.10	4.56 ^b	(545)	4.03	4.59 ^b	(545)
301~500만원	4.17	4.57 ^b	(1239)	4.06	4.52 ^b	(1239)	4.17	4.55 ^b	(1239)
501~700만원	4.07	4.61 ^b	(434)	4.05	4.55 ^b	(434)	4.03	4.56 ^b	(434)
701만원 이상	4.31	4.40 ^a	(253)	4.21	4.36 ^a	(253)	4.10	4.35 ^a	(253)
F	1.09	5.28 ^{**}		0.46	4.57 ^{**}		0.50	6.65 ^{***}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26 ^b	4.61 ^b	(950)	4.13	4.57 ^b	(950)	4.12	4.61 ^b	(950)

구분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09 ^{ab}	4.60 ^b	(1160)	4.06	4.51 ^b	(1160)	4.11	4.53 ^b	(1160)
읍·면	3.90 ^a	4.36 ^a	(362)	3.93	4.39 ^a	(362)	4.03	4.40 ^a	(362)
<i>F</i>	4.04 [*]	17.66 ^{***}		0.63	7.64 ^{***}		0.10	10.59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이용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어머니의 경우 가구소득이 70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학업 중인 아버지 그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으며, 어머니의 거주 지역규모가 읍·면 지역보다 도시지역일수록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4-21〉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가족돌봄휴가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전체	4.07	4.45	(1571)	4.12	4.53	(2471)
출생순위						
첫째	4.06	4.44	(965)	4.11	4.52	(1488)
둘째	4.18	4.46	(497)	4.10	4.56	(807)
셋째 이상	3.51	4.46	(109)	4.28	4.47	(177)
<i>F</i>	1.85	0.08		0.17	1.28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4.45 ^b	(1509)	—	4.56 ^a	(1284)
학업 중	—	3.67 ^a	(12)	—	4.60 ^a	(25)
미취업/미취학	—	4.53 ^b	(49)	—	4.48 ^a	(1161)
<i>F</i>	—	6.38 ^{**}		—	3.90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99 ^{ab}	4.33 ^a	(355)	3.88 ^a	4.53 ^b	(545)
301~500만원	4.05 ^{ab}	4.49 ^a	(768)	4.16 ^{ab}	4.54 ^b	(1239)
501~700만원	4.42 ^b	4.49 ^a	(286)	3.80 ^a	4.56 ^b	(434)
701만원 이상	3.39 ^a	4.46 ^a	(162)	4.70 ^b	4.38 ^a	(253)
<i>F</i>	3.88 [*]	3.73 [*]		4.08 ^{**}	3.98 ^{**}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05	4.41	(606)	4.10	4.57 ^b	(95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12	4.48	(739)	4.06	4.54 ^b	(1160)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읍·면	3.97	4.45	(227)	4.50	4.39 ^a	(362)
<i>F</i>	0.19	1.24		0.87	8.01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시차출퇴근제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도 이용 시 만족도 및 중요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지역규모에 있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일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제도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4-22〉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시차출퇴근제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전체	4.27	4.21	(1571)	4.11	4.38	(2471)
출생순위						
첫째	4.12	4.21	(965)	4.09	4.38	(1488)
둘째	4.42	4.21	(497)	4.18	4.42	(807)
셋째 이상	4.77	4.24	(109)	3.86	4.26	(177)
<i>F</i>	2.23	0.08		0.37	2.94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4.21	(1509)	-	4.43 ^a	(1284)
학업 중	-	3.57	(12)	-	4.47 ^a	(25)
미취업/미취학	-	4.27	(49)	-	4.33 ^a	(1161)
<i>F</i>	-	2.97		-	4.21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9	4.14	(355)	3.73	4.40	(545)
301~500만원	4.26	4.20	(768)	4.20	4.38	(1239)
501~700만원	4.22	4.26	(286)	4.01	4.42	(434)
701만원 이상	4.59	4.32	(162)	4.29	4.30	(253)
<i>F</i>	1.45	1.69		1.73	1.16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17	4.23	(606)	4.26 ^a	4.44 ^b	(95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37	4.19	(739)	3.88 ^a	4.40 ^b	(1160)
읍·면	4.28	4.21	(227)	4.23 ^a	4.19 ^a	(362)
<i>F</i>	0.61	0.26		3.56 [*]	12.66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사례수 문제로 사후검정 수행이 불가할 수 있음.

* $p < .05$, *** $p < .001$.

선택근무제도에 대한 제도 이용 만족도와 제도 인식 중요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가구소득에서 701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그 미만인 집단일수록 아버지가 인식하는 제도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 집단보다 301만원 이상 집단일수록 제도 이용 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일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제도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4-23〉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선택근무제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전체	4.07	4.18	(1571)	4.07	4.32	(2471)
출생순위						
첫째	3.82 ^a	4.21	(965)	4.07	4.32	(1488)
둘째	4.46 ^a	4.11	(497)	4.10	4.33	(807)
셋째 이상	3.90 ^a	4.25	(109)	3.35	4.27	(177)
F	3.66 [*]	2.18		0.59	0.34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4.18	(1509)	-	4.32	(1284)
학업 중	-	3.76	(12)	-	4.48	(25)
미취업/미취학	-	4.21	(49)	-	4.32	(1161)
F	-	1.24		-	0.4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50	4.05 ^{ab}	(355)	3.26 ^a	4.32	(545)
301~500만원	3.90	4.22 ^{ab}	(768)	4.08 ^b	4.33	(1239)
501~700만원	4.44	4.23 ^b	(286)	4.26 ^b	4.36	(434)
701만원 이상	4.37	4.20 ^a	(162)	4.20 ^b	4.19	(253)
F	2.16	2.91 [*]		3.64 [*]	2.38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13	4.18	(606)	4.30 ^a	4.33 ^b	(95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05	4.18	(739)	3.77 ^a	4.37 ^b	(1160)
읍·면	3.88	4.18	(227)	4.14 ^a	4.15 ^a	(362)
F	0.18	0.00		4.93 ^{**}	9.10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재택근무제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도 이용 만족도 및 제도 인식 중요도

에 대한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 인식 중요도에 있어 아버지의 경우 가구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중요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지역규모가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중요도 점수가 더 높았다.

〈표 III-4-24〉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재택근무제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전체	4.33	4.06	(1571)	4.33	4.32	(2471)
출생순위						
첫째	4.33	4.09	(965)	4.35	4.32	(1488)
둘째	4.25	4.02	(497)	4.36	4.34	(807)
셋째 이상	4.59	4.09	(109)	4.02	4.21	(177)
<i>F</i>	1.04	0.81		1.54	1.67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4.06	(1509)	-	4.33	(1284)
학업 중	-	4.15	(12)	-	4.50	(25)
미취업/미취학	-	4.03	(49)	-	4.31	(1161)
<i>F</i>	-	0.07		-	0.6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7	3.94 ^a	(355)	4.41	4.33	(545)
301~500만원	4.33	4.03 ^{ab}	(768)	4.23	4.30	(1239)
501~700만원	4.17	4.22 ^b	(286)	4.34	4.38	(434)
701만원 이상	4.57	4.24 ^b	(162)	4.43	4.29	(253)
<i>F</i>	1.54	6.14 ^{***}		1.01	1.13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29	4.12	(606)	4.42	4.34 ^b	(95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32	4.03	(739)	4.23	4.36 ^b	(1160)
읍·면	4.49	4.01	(227)	4.32	4.12 ^a	(362)
<i>F</i>	0.58	1.72		1.95	11.48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 $p < .001$.

원격근무제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를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패널 아동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보다 첫째나 둘째인 경우 제도 이용 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 학업 중인 집단에서, 읍·면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제도 인식 중요도 점수가 더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4-25〉 육아지원제도(시간)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원격근무제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이용 시 만족도	중요도	(수)
전체	4.26	3.76	(1571)	4.05	4.08	(2471)
출생순위						
첫째	4.28 ^b	3.75	(965)	3.92	4.06	(1488)
둘째	4.42 ^b	3.77	(497)	4.30	4.14	(807)
셋째 이상	3.00 ^a	3.74	(109)	4.22	4.00	(177)
<i>F</i>	3.55 [*]	0.08		1.42	2.66	
아버지/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	3.76	(1509)	—	4.02 ^a	(1284)
학업 중	—	3.69	(12)	—	4.43 ^b	(25)
미취업/미취학	—	3.79	(49)	—	4.14 ^{ab}	(1161)
<i>F</i>	—	0.04		—	5.68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49	3.65 ^a	(355)	4.14	4.16	(545)
301~500만원	4.33	3.73 ^a	(768)	3.92	4.05	(1239)
501~700만원	4.37	3.90 ^a	(286)	3.81	4.10	(434)
701만원 이상	4.12	3.89 ^a	(162)	4.41	4.01	(253)
<i>F</i>	0.96	3.19 [*]		1.65	2.15	
지역규모						
대도시(광역시/동)	4.37	3.82	(606)	4.28	4.07 ^{ab}	(950)
중소도시(비광역시/동)	4.12	3.70	(739)	3.84	4.12 ^b	(1160)
읍·면	4.40	3.78	(227)	3.55	3.97 ^a	(362)
<i>F</i>	0.67	1.87		2.74	3.26 [*]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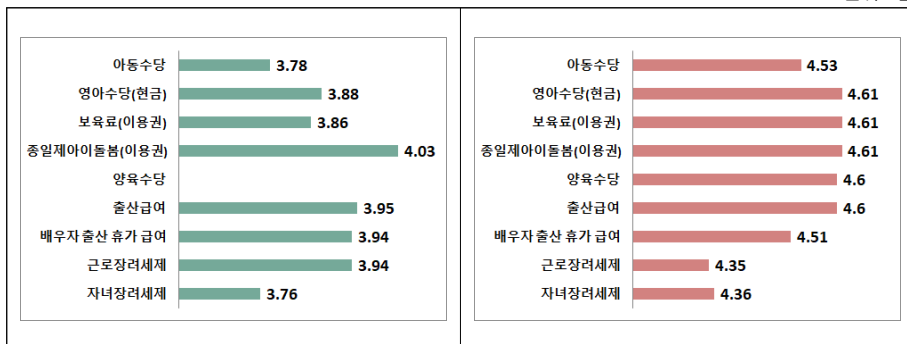
2) 모두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다 ~ 5. 매우 만족한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그림 III-4-2] 육아지원제도(현금, 현물/바우처, 시간) 만족도 및 중요도

단위: 점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좌) 만족도, (우) 중요도

5. 소결

가. 아동 특성

아동 특성은 수면이나 기본생활 습관, 건강 특성, 발달 특성 등을 알아보았다. 첫째, 대부분 아동은 하루 중 2~3회의 낮잠을 자고 있으며, 밤잠은 절반 이상의 아동이 9시간에서 11시간 수면을 취하고, 대부분 8~12시간 정도 밤잠을 자고 있었다. 대부분 아동이 월령에 적절한 수면 습관, 배변 및 씻기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첫째아일수록 더 적절한 수면환경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신생아 시기와 생후 4~6개월 시점, 길게는 생후 8개월 가량의 아동의 건강 특성을 살펴본 결과, 패널 가구의 대부분이 예방적 접근에서 신생아 관련 검사를 수행하였고 시기별 예방접종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신생아 시기에 이루어지는 1차(생후 14~35일)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소 수검비율이 낮긴 하였으나 2차(생후 4~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비율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출산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예방적 접근은 충실하게 잘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평균 체중은 8.35kg, 평균 신장은 68.12cm이었으며, 평균 두위는 42.77cm이었다. 2017 소아청소년성장도표¹⁷⁾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범위이거나 좀 더 높은 수치로 보인다. K-DST 검사 결과 5개의 발달 영역에서 80~90% 이상의 아동이 양호한 발달 수준을 보였다.

나. 부모 및 가구 특성

1) 건강 특성

부모의 건강 특성으로 장애 여부, 흡연 및 음주 습관,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중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있어 아버지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이 10.4%, 고위험군이 2.5%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이 12.6%, 고위험군이 3.7%이었다. 또한 이는 학력 수준, 어머니의 경우 연령과 학력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경우 (총점에 있어) 취업 여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초기 양육시기에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용과 수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

2) 심리적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부모의 그릿, 부모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우울을 살펴보고, 부모의 관계적 특성으로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심리적 및 관계적 특성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5세 미만의 부모의 경우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세 미만의 아버지는 다른 연령대 아버지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정도는 높았으며, 25세 미만 어머니는 다른 연령대 어머니에 비해 그릿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정도가 높았다. 부부 갈등에 대한 인식도 아버지, 어머니 모두 25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경우에 취업 여부에 따라 심리적 및 관계적 특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취업 여부에

17) 질병관리청,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8/sub08_02.do (2023. 10. 18. 인출).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취업/미취학인 경력 단절 여성의 심리적·관계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30~35세에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 갈등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대에 결혼 및 출산의 경우 계획임신 비율이 낮고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임신 및 출산

부모의 임신 및 출산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임신 중 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를 조사한 결과 특히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과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 및 예방'에 관해서는 주로 인터넷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패널 아동의 출산 시 분만형태는 계획된 제왕절개가 40.5%, 자연분만이 39.3%,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가 20.1%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86.2%)은 보편적인 절차로 여겨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어머니의 경우, 모자동실 이용은 67.4%로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후속 출산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대부분 (70.1%) 2명으로 후속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어머니는 전체의 32.6%에 달했으며 후속 출산 계획 여부는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후속 출산 계획이 없는 어머니들의 주요 사유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과 어머니의 나이가 많은 부분이었다.

4) 양육 특성

첫째, 아동의 양육은 거의 대부분 가구에서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루 중 저녁시간대에는 아버지가 돌봄을 담당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졌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 비율은 평균 7.6:2.4이었으며, 가사 분담 비율은 평균 6.8:3.2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2배 이상 양육과 가사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패널 아동이 첫째보다는 둘째 이상인 경우 더 높았으며, 특히 맞벌이가 아니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자질과 특성으로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중요하게 꼽았다.

셋째, 출산 전 모유수유를 계획한 어머니는 24.9%에 불과하였으며, 31% 정도만이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행하였다. 또한 개월별 모유수유 방법을 조사하였을 때 생후 7개월부터는 모유수유 비율이 10% 이내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0세 아동의 양육에 있어 모유보다는 분유 수유를 더 많이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부모 근로 특성

부모의 근로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96.1%가 취업 중이나 어머니는 52.0%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한편,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길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가구 특성

가구 특성에서는 가구 형태 및 가구원, 다문화 가정, 가구 경제적 특성, 주거 환경을 살펴보았다. 가구 특성에서 주목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이 경우 다문화 어머니가 다문화 아버지에 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어머니가 다문화 아버지에 비해 한국어 구사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다문화 어머니의 모국어를 남성 배우자가 구사하는 수준이 다문화 아버지의 모국어를 여성 배우자가 구사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낮았다.

둘째,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이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부채액이 많았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널 가구의 소득수준은 3인 가구 중위소득 80~120% 수준¹⁸⁾에 많이 분

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은 419.5만원이다. 패널 가구의 가구 유형의 평균 가구원은 3.61명이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301~400만원이 28.7%, 401~500만원이 22.0%로 나타났다.

다.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1) 지역사회 환경

패널 가구의 지역사회 환경 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깨끗하다는 응답한 정도는 4.03점,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 안전하다는 응답이 3.97점으로(5점 척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안전, 청결, 인프라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특성

첫째,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 아동 어머니/아버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기 다른 응답 경향성을 보였는데 아버지의 경우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있어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원한 반면, 어머니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현금 지원 제도는 실 이용자가 적긴 했지만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이었으며 4.03점을 나타냈다. 출산급여가 3.95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근로장려세제가 동일하게 3.94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5점 척도).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영아수당이였다(4.61점).

셋째, 육아지원정책 중 현물/바우처 관련 정책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96.2%로 가장 많은 제도 이용 비중을 차지한 첫만남 이용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

18)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23. 10. 11. 인출).

으며(4.29점), 제도의 중요도에서도 4.67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5점 척도).

넷째, 시간지원정책의 이용률은 아버지는 약 18% 이하, 어머니는 약 46% 이하로 다른 유형의 지원 정책에 비해 이용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육아휴직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용 비율 격차가 가시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17.5%, 어머니의 이용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제도의 만족도는 4.33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5점 척도),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이었다.

IV

시사점 및 추진 방안

0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한국아동패널

02 향후 추진 방안

IV. 시사점 및 추진 방안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의 특성 및 시사점

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한국아동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에 참여하는 패널 아동과 부모, 가구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08년생으로 구축되었던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이하 영유아 패널)에서는 아동의 월령이 4개월부터 8개월 이상까지 넓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5개월 이하가 76.6%로 다수에 해당하였다. 두 패널 조사에서 모두 남아가 50% 이상으로 여아보다 조금 더 많았다. 출생순위에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첫째 47.5%, 둘째 41.6%, 셋째 이상은 10.9%이었으나, 영유아 패널 조사에서는 첫째가 59.8%로 다소 증가하였고, 둘째는 32.6%, 셋째는 7.6%로 줄어들었다.

〈표 IV-1-1〉 한국아동패널과의 비교: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한국아동패널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38.2(1060)	76.6(1592)
6개월~7개월	35.4(983)	16.3(339)
8개월 이상	26.4(732)	7.1(147)
아동 성별		
남	51.3(1423)	50.8(1056)
여	48.7(1352)	49.2(1022)
출생순위		
첫째	59.8(1659)	47.5(983)
둘째	32.6(906)	41.6(862)
셋째 이상	7.6(210)	10.9(226)

자료: 조복희 외(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육아정책연구소. p. 59.

다음으로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평균 연령은 영유아 패널 조사와 한국아동패널에서 어머니의 경우 각각 33.5세, 31.3세, 아버지의 경우 35.7세, 33.9세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0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의 평균 연령이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종 학력의 경우 영유아 패널과 한국아동패널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영유아 패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대학교 졸업 비율이 상승하였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의 비율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31.4%이었으나 영유아 패널에서는 50.9%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영유아 패널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났다.

어머니가 인식한 이상 자녀 수를 살펴보면,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아동패널 31.0%에서 영유아 패널 11.6%로 약 19.4%p 줄어든 반면, 영유아 패널에서는 1명 혹은 2명이라는 응답이 늘어났다.

음주습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월 2~4회 음주한다는 응답이 두 패널에서 모두 50% 초반대로 유사하게 가장 많으나, 월 1회 이하 음주한다는 응답은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영유아 패널에서는 줄어든 대신 주 2~4회 음주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표 IV-1-2〉 한국아동패널과의 비교: 부모 특성

단위: %, 세

구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한국아동패널	구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한국아동패널
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25세 미만	1.9	2.7	25세 미만	0.8	0.6
25~30세 미만	12.9	28.7	25~30세 미만	7.2	13.0
30~35세 미만	46.9	49.6	30~35세 미만	32.1	43.9
35~40세 미만	30.2	17.2	35~40세 미만	40.9	34.8
40세 이상	8.1	1.8	40세 이상	18.4	7.7
			무응답	0.6	-
평균(표준편차)	33.5(4.2)	31.3(3.7)	평균(표준편차)	35.7(4.8)	33.9(4.0)
어머니 최종 학력			아버지 최종 학력		
중졸이하	0.9	0.7	중졸이하	0.8	1.3
고등학교	14.4	30.4	고등학교	18.2	28.2
전문대(기능대학)	21.5	28.1	전문대(기능대학)	17.4	19.7
대학교	53.7	34.5	대학교	54.4	40.0
대학교 석사	8.5	6.0	대학교 석사	8.2	10.0
대학교 박사	1.0	0.3	대학교 박사	1.1	0.8

구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한국아동패널	구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한국아동패널
어머니 취업 여부			아버지 취업 여부		
취업 중	50.9	31.4	취업 중	96.3	98.5
학업 중	1.0	0.7	학업 중	0.6	0.4
미취업/미취학	48.1	67.9	미취업/미취학	3.2	1.1
어머니 직업			아버지 직업		
관리자	3.1	3.4	관리자	6.3	1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8	46.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8	24.1
사무 종사자	38.7	33.3	사무 종사자	27.4	30.8
서비스 종사자	14.6	5.0	서비스	12.1	4.7
판매 종사자	4.8	8.7	판매 종사자	6.6	8.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9	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	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8	9.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3	1.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4	8.2
단순노무 종사자	1.0	1.0	단순노무 종사자	4.5	1.5
군인	0.5	-	군인	2.1	-
어머니 종교			아버지 종교		
없음	64.5	46.5	없음	71.0	56.1
있음	35.5	53.5	있음	29.0	43.9
어머니 음주 습관: 음주량			아버지 음주 습관: 음주량		
월 1회 이하	16.8	36.2	월 1회 이하	13.4	11.1
월 2회~4회	50.6	53.1	월 2회~4회	46.7	52.0
주 2회~4회	27.0	10.4	주 2회~4회	32.0	32.1
거의 매일	5.7	0.3	거의 매일	7.9	4.8
이상 자녀 수 (어머니)					
무자녀	1.2	0.6			
1명	10.4	2.2			
2명	70.1	57.8			
3명	11.6	31.0			
4명	0.7	6.3			
5명 이상	0.0	0.4			
잘 모르겠음	6.0	1.8			
후속 출산 계획 여부(어머니)					
날것음	32.6	28.0			
날지 않것음	67.4	49.7			
잘 모르겠음	-	22.2			
기타	-	0.2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어머니)					
1명	86.3	85.3			
2명	10.6	13.7			
3명	2.7	0.9			
4명 이상	0.4	0.1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어머니는 2,435명, 아버지는 1,630명, 한국아동패널은 2,078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 비율임.

2) 부모 연령은 한국아동패널 2008년도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함.

자료: 조복희 외(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육아정책연구소. pp. 66, 69, 71, 94, 95, 96.

가구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영유아 패널에서 가구원 수가 3명 이하인 비율이 다소 증가하면서 4명 혹은 5명 이상인 비율은 줄어들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한국아동패널은 201만원~3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으나, 영유아 패널은 301만원~400만원인 경우가 28.0%로 가장 많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증가하였다. 가구 지출의 경우에도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영유아 패널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주거 유형의 분포는 유사하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대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졌다. 점유형태는 전세가 줄어들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다.

〈표 IV-1-3〉 한국아동패널과의 비교: 가구 특성

단위: %

구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한국아동패널	구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한국아동패널
가구원 수			주거 유형		
3명 이하	55.0	41.5	단독주택	4.4	9.1
4명	33.1	39.1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78.1	67.6
5명 이상	11.9	19.4	연립주택(빌라, 다세대주택 포함)	13.2	13.5
월평균 가구소득			다가구 주택	2.2	7.2
100만원 이하	0.5	2.0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0.5	2.1
101만원~200만원	3.2	29.5	(상가 또는 사무실 안쪽)		
201만원~300만원	19.2	35.4	오피스텔	1.6	0.4
301만원~400만원	28.0	17.6	기타	0.1	-
401만원~500만원	22.6	9.6	주거 점유형태		
501만원 이상	26.4	5.9	자가	45.3	43.0
월평균 가구 지출			전세	38.1	42.2
100만원 이하	2.0	5.7	전·월세(보증부 월세)	11.0	8.4
101만원~200만원	19.2	39.2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0.2	0.2
201만원~300만원	36.6	35.2	무상	5.3	5.7
301만원~400만원	25.4	13.1	(사택, 관사 및 친인척 소유 주택 포함)		
401만원~500만원	8.7	3.8	기타	0.2	0.5
501만원~600만원	4.8	1.7			
600만원 초과	3.4	1.2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2,454가구, 한국아동패널은 2,078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 비율임.

자료: 조복희 외(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육아정책연구소. pp. 79, 81, 82, 85, 86.

이상의 비교를 통해 2008년생 영아 가구와 2022년생 영아 가구의 특성의 일면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그 중 주요 특성으로는 첫째, 영아 가구 구성원인 영아들의 출생순위 비율의 변화이다. 영유아 패널에서는 첫째의 비율이 과반으로 한국아동

패널보다 높다. 한국아동패널 당시에는 첫째와 둘째의 비율 간에 5.9%p의 차이가 있으나, 영유아 패널에서는 그 차이가 27.2%p로 차이가 훨씬 크다. 자녀 수의 감소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구성원 수에서도 나타나는데 가구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가 증가하였고, 4명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는 줄어들었다.

둘째, 부모 연령의 변화이다. 동일하게 0세 영아를 출산하여 양육하지만 연령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비교하여 보면 어머니는 평균 약 2.2세, 아버지는 평균 약 1.8세 증가하였다.

셋째, 부모 학력의 변화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도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과반을 넘지 않았는데 영유아 패널에는 50% 이상이 대학교 졸업이다. 그리고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영유아 패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없다. 즉, 과거에는 영유아 가구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넷째, 어머니 취업 비율의 증가이다. 두 패널에서 모두 아버지는 취업 중에 해당하였으나, 어머니의 경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31.4%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영유아 패널에서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취업 중인 어머니가 50.9%이었다. 여성 취업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저출생 현상을 반영하듯이 이상 자녀 수가 2명이나 1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3명 이상인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생활행태의 변화이다. 종교를 가진 비율은 낮아지며, 음주량은 증가하였다. 특히 과거에 비해 어머니의 음주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보여주듯 가구소득과 지출에 있어서도 액수가 증가하였다.

나. 조사 진행 관련 시사점

올해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알아본 조사 진행 시 드러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조사 수행

시 패널 가구가 조사에 잘 응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택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패널 부모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그들은 MZ 세대에 속한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로, 일반적으로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 사이 출생자를 일컫는다.¹⁹⁾ 이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영상 시청을 즐기고, SNS를 통해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소통하기를 좋아하며,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위해 여가 즐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¹⁹⁾ MZ 세대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본 패널 연구의 조사원들은 조사 진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유선전화를 통한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그리고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를 꺼리거나 짧은 시간 틈을 내어 참여하기 원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 홍보나 가구 접촉 시 유선이나 대면 방식만을 고수하기보다는 SNS, 문자메시지 등의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 조사에 있어서도 1, 2차 조사에서는 태블릿을 활용한 면접 방식으로 설계하였으나 향후 조사에서는 온라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조사 참여나 조사에 대한 호응도에 영향을 끼친다. 조사 사례비보다는 패널 연구나 해당 조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조사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가 본 패널 연구의 초기 시점임을 고려할 때, 패널 연구를 홍보하는 리플렛, 주요 결과를 공유하는 인포그래픽이나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조사에 유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조사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패널 가구에서는 패널 아동에 관한 관심이나 육아에 대한 격려의 인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 조사원과 패널 가구 간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올해 조사 후반기에는 조사원이 패널 가구의 육아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하면서도 적절한 관심 표현은 조사에 도움이 됨을 안내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패널 유지를 위해 아동의 생일 및 가정의 달 선물 등을 지급하여 아동의 성장에 관심을 표현하고 그 가정에 인사를 전할 필요가 있겠다.

19) 위키백과, MZ 세대, <https://ko.wikipedia.org/wiki/MZ%EC%84%B8%EB%8C%80> (2023. 12. 06. 인출).

다. 1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

앞서 III장에서 제시한 1차년도(2022년)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및 출산 지원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임신기 지원 강화를 통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머물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25세 미만인 부모의 경우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20대에 결혼 및 출산을 하는 경우 계획임신의 비율이 비교적 낮고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20대 출산 부모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적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취업 여부에 따라 심리적 및 관계적 특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취업 혹은 미취학 상태가 된 경력 단절 여성의 심리적·관계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정책 대상의 상황 변화에 주목하여서 그 지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 출산을 위한 지원이다. 후속 출산 계획 여부는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후속 출산 계획이 없는 어머니들의 주요 사유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과 어머니의 나이가 많은 부분이었다. 사유 중에서 어머니의 나이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지나 양육의 육체적 힘들고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에 대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이다. 산모의 다수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모자동실 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산후조리 기간은 출생모와 아동의 초기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 모자동실은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하다. 따라서 모자동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모자동실의 이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육아지원제도 활성화이다. 어머니의 취업률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부모(특히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육아를 위한 시간지원정책 중 만족도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재택근무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부모의 심리 건강 지원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초기 양육시기에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배가될 수 있으며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지닐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대국민 캠페인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적절한 사용과 수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추진 방안²⁰⁾

2021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를 시작하면서 중장기 조사 프로토콜을 제시한 바 있다(이정림 외, 2021). 이를 바탕으로 1차년도 조사내용, 정책 변화, 다양한 연구 분야의 주제 등을 반영한 영역별 향후 조사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유념할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추진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가. 주요 방향

첫째, 조사내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2030년까지 패널 조사를 지속하면서 조사내용이 너무 자주 바뀌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종단 연구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변화를 최소화하며 변인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조사내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패널 연구 초기에 중장기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연속성 내에서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입학 시기별 주요 내용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 시기에는 연령에 따라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고,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교육·보육기관을 거쳐 학교라는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발달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

20) 향후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고, 한국아동패널과 비교 가능한 변인(척도)을 선택할 수 있겠다. 다만, 패널 연구의 지속에 있어 패널 가구의 조사 참여 유지도 중요하므로 패널 가구의 조사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사 변인을 조정하여야 하겠다.

셋째, 심층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올해 1차로 실시한 심층조사를 이어간다. 심층조사는 아동발달이나 부모양육 특성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함이며, 올해 전체 패널 가구 중에서 약 400가구를 목표로 진행하였다. 앞으로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함으로써 연구 기간 동안 총 3회 실시하여서 심층조사만의 종단 데이터를 구축한다. 심층조사에서는 일반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각 시기별 아동 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변인을 선택한다. 올해는 1세 이후 언어발달이 급격히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발달 측면, 아동의 생활시간조사, 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생활시간조사를 이어간다면 연령별로 비교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 또한 유아기에도 가능하므로 종단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각 발달 시기에 적절한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층조사의 실시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조사 방식 외에도 전문가의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동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거점 대학이나 의료기관(예: 소아청소년과) 등과 협력하여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의견을 담은 면담을 실시한다. 매년 실시할 수는 없겠으나 정책 현안을 다루어야 할 때는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의 제도에 대한 부모 의견 수렴이나 정부지원과 양육비 사용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또한 출산, 주양육자의 정의, 부모됨의 의미와 같은 주제를 통해 현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탐색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이나 효과 분석을 뒷받침 할뿐만 아니라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다문화 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하지만 처음 계획과는 달리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혼란으로 다문화 가구 및 저소득 가구에서의 출생비율이 감소하였고 패널 구축을 위한 접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패널이 다문화 및 저소득 가구 데이터를 충분히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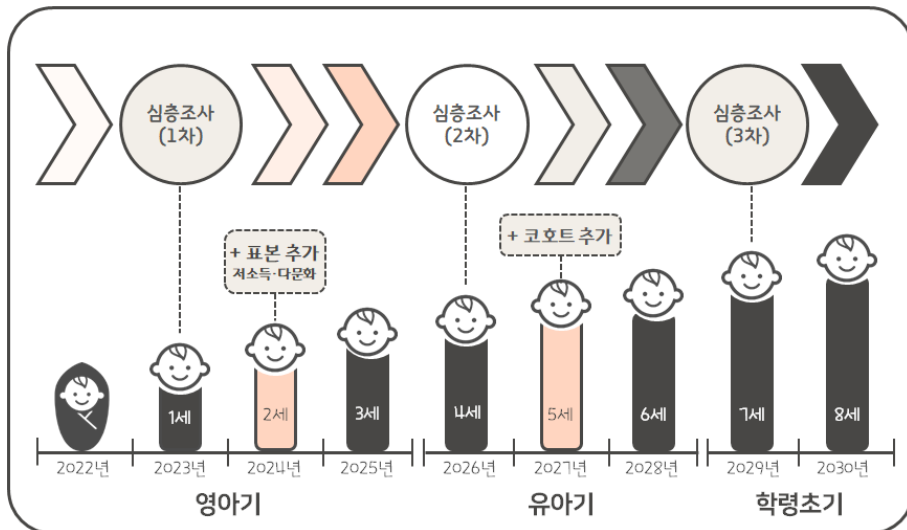
보하기 위해 다문화 및 저소득 가구의 추가 표집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정림 외(2022: 159-160)에서는 새로운 3세 유아 코호트를 추가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패널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새로운 코호트를 구축함으로써 본 연구가 교육·보육 패널로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패널과 추가 패널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육·보육 특성 및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행정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와 패널 데이터를 결합하여 영유아 건강과 관련 변인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같은 유관 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여러 지원의 수급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2-1] 향후 추진 방향

- 조사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 + 영·유아기 및 아동기 특성 고려
- 심층조사·면담조사·부가조사 실시 / 행정데이터 활용



나. 중장기 조사 계획

이상에서 살펴본 추진 방향에 따라 조사를 이어갈 조사내용인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 영역별로 조사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계획안은 이정림 외(2021)에서 제시한 중장기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문헌연구, 전문가 검토 및 연구진 논의를 거쳐 정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조사 계획 마련에 있어서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 및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주제를 고려하고자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디지털 문해 능력(literacy)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므로 이를 측정한다. 또한 웰빙이나 환경문제 등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주제를 패널 연구에서 변인으로 다룸으로써 이와 관련한 영유아 가구의 태도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교육·보육에 있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언어발달(창의성, 실행기능, 지능 등), 사회·정서발달(자아개념, 자아존중감, 행복감/삶의 만족도, 사회적 유능감, 적응 등) 변인을 순차적으로 변경·추가하여서 아동 발달에 대하여 충분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가능한 한 아동이 직접 응답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다. 기관(학교)적응의 경우, 중요한 특성이지만 매년 변화하는 요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문항의 성격을 살펴본 후 기관을 처음 이용하거나 이동한 시점과 학교 입학 시점에만 조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개인 특성으로는 불안, 기질(성격)에 대해 추가로 측정함으로써 양육이나 아동의 정서발달 등과 연관하여 분석해볼 수 있으며, 조사 분량을 고려하여 기질(성격)은 심층조사에서 다룰 수 있겠다. 또한 자아존중감, 그릿 등 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조사를 지속해 나갈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육 특성으로는 양육의 태도와 정서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부모-자녀 관계(애착, 효능감, 좌절감 등), 놀이와 학습에 대한 태도, 양육 스트레스, 양육 부담 등의 변인과 양육의 행동적 측면에 해당하는 양육행동, 부모-자녀 관계(훈육, 관여 등) 변인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 내 관계적 측면으로 다루었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변인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이 변인들은 배경변인으로만 살펴보고 추후 조사에서는 좀 더 가족 간의 역동이나 상호작용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을 추가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넷째,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은 영아기에 이어서 계속 측정하는 변인과 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 후에 변경·추가하여 측정하는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의 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당 시점에서의 교육·보육에 대한 이슈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아동을 둘러싼 교육·보육 환경의 변화를 설문에 담아야 하겠다.

다섯째, 가구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은 연속성을 유지한다. 다만 1, 2차년도 조사에서는 가구의 특성을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 다수의 변인을 조사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일부 제외한다(예: 경제적 특성 중 부채 등). 정책 특성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목을 유지하면서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육아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에 대해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면담조사방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깊이 살펴볼 수 있다.

여섯째, 전체 조사 변인으로 연속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시의성이 중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요구가 있는 주제인 경우 부가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예를 들어, 부모 급여, 유보통합 등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 영유아기 사교육 행태, 스마트폰 소유에 대한 인식,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룰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표 IV-2-1〉 아동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아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	1	2	3	4	5	6	7	8		
임상 생활 특성	수면	수면환경	◎	-	-	-	-	-	-	-	-	-	주양육자	
		수면시간(기상 및 취침 시각, 낮잠)	◎	◎	◎	◎	◎	◎	◎	◎	◎	◎	주양육자	
		밤중 깨는 횟수	-	◎	◎	◎	◎	◎	◎	◎	◎	◎	주양육자	
		수면 특성	◎	◎	◎	◎	◎	◎	◎	◎	◎	◎	주양육자	
	일상 활동	배변/씻기 특성	◎	◎	◎	◎	◎	◎	◎	◎	◎	◎	◎	주양육자
		식생활 특성	◎	◎	◎	◎	◎	◎	◎	◎	◎	◎	◎	주양육자
		식습관	-	◎	◎	◎	◎	◎	◎	◎	◎	◎	◎	주양육자
		생활시간	-	◎	-	-	◎	-	-	-	◎	-	-	주양육자
		미디어 이용(노출) 시작 시기	-	◎	◎	◎	◎	◎	◎	◎	◎	◎	◎	주양육자
		미디어 이용일/이용시간	-	◎	◎	◎	◎	◎	◎	◎	◎	◎	◎	주양육자
	디지털 미디어	미디어 이용 이유/상황	-	◎	◎	◎	◎	◎	◎	◎	◎	◎	◎	주양육자
		주 사용 기기	-	◎	◎	◎	◎	◎	◎	◎	◎	◎	◎	주양육자
		미디어 이용 규칙(+상호작용)	-	◎	◎	◎	◎	◎	◎	◎	◎	◎	◎	주양육자
		스마트폰 과의존	-	-	-	◎	◎	◎	◎	◎	◎	◎	◎	주양육자
아동 건강	신생아 건강	디지털 문해/활용 능력	-	-	-	◎	◎	◎	◎	◎	◎	◎	주양육자	
		스마트폰 소양여부	-	-	-	-	-	-	◎	◎	◎	◎	주양육자	
		신생아 검사 및 결과 이상 유무	◎	-	-	-	-	-	-	-	-	-	-	주양육자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치료 여부	◎	-	-	-	-	-	-	-	-	-	-	주양육자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	1	2	3	4	5	6	7	8	
아동 건강	건강	평소 건강상태	○	○	○	○	○	○	○	○	○	○	주양육자
		구강 보건	-	○	○	○	○	○	○	○	○	○	주양육자
	감진 및 예방접종	예방접종 여부	○	○	○	○	○	○	○	○	○	○	주양육자
		건강검진 수검 여부	○	○	○	○	○	○	○	○	○	○	주양육자
		구강검진 수검 여부	-	○	○	○	○	○	○	○	○	○	주양육자
	질병 및 치료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	○	○	○	○	○	○	○	○	○	○	주양육자
		질환 진단 여부	(연령에 따라 질환 추가)	○	○	○	○	○	○	○	○	○	주양육자
	장애	장애판정 여부	(중단값 확인)	○	○	○	○	○	○	○	○	○	주양육자
		장애 정도 및 유형	(중단값 확인)	○	○	○	○	○	○	○	○	○	주양육자
	신체 발달	신체 특성	두위	○	△	△	△	△	△	△	△	△	△
체중			○	○	○	○	○	○	○	○	○	○	주양육자
신장			○	○	○	○	○	○	○	○	○	○	주양육자
하리둘레		(건강검진결과 활용여부 고려)	○	○	○	○	○	○	○	○	○	○	주양육자
		(건강검진결과 활용여부 고려)	○	○	○	○	○	○	○	○	○	○	주양육자
		(건강검진결과 활용여부 고려)	○	○	○	○	○	○	○	○	○	○	주양육자
시력 또는 시력보장도구 착용 여부(시작 시기)		(중단값 확인)	-	-	-	-	-	-	-	-	-	-	주양육자
		(중단값 확인)	-	-	-	-	-	-	-	-	-	-	주양육자
		(중단값 확인)	-	-	-	-	-	-	-	-	-	-	주양육자
		(중단값 확인)	-	-	-	-	-	-	-	-	-	-	주양육자
운동능력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도구 (K-DST)	○	○	○	○	○	○	○	○	○	-	주양육자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도구 (K-DST)	○	○	○	○	○	○	○	○	-	-	주양육자	

구분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측정방법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발달	인지	○	○	○	○	○	○	-	-	-	-	주양육자
		자조	-	○	○	○	○	○	-	-	-	-	주양육자
		실행기능	-	-	○	-	○	-	○	-	○	-	주양육자, 아동
		창의성	-	-	-	-	-	○	-	○	-	-	아동
		지능	-	-	-	-	-	-	-	○	-	○	아동
	언어발달	언어	○	○	○	○	○	○	-	-	-	-	주양육자
		언어 및 문해능력	-	-	-	-	-	-	○	○	○	○	주양육자, 아동
		수용/표현 어휘력	-	○	-	-	-	-	-	-	-	-	주양육자
		학습준비도	-	-	-	-	-	-	○	-	-	-	교사
		학습수행능력	-	-	-	-	-	-	-	○	○	○	교사
사회 정서 발달	자아발달	자아개념	-	-	-	○	-	○	-	-	○	-	아동
		자아존중감	-	-	-	-	-	-	-	△	-	○	아동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	1	2	3	4	5	6	7	8		
사회 정서 발달	정서	기질	IBQ-R / ECBQ / CBQ	◎	-	◎	-	◎	-	-	-	-	주양육자	
		정서조절(혹은 자기조절)		-	-	-	-	-	◎	◎	◎	◎	◎	주양육자
		행복감/삶의 만족도		-	-	-	-	-	-	◎	◎	◎	◎	아동
	사회성	사회성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도구 (K-DST)	◎	◎	◎	◎	◎	◎	-	-	-	주양육자	
		문제행동		-	◎	-	◎	-	◎	-	◎	-	-	주양육자
		(자폐스펙트럼장애)	M-CHAT, BITSEA 고려	-	-	◎	-	-	-	-	-	-	-	주양육자
		사회적 유능감		-	-	-	◎	◎	◎	◎	◎	◎	◎	◎
	적응	(+ 또래놀이상호작용)	PIPPS 등	-	-	-	◎	◎	◎	◎	◎	-	-	교사
		영아 기관적응	CASIT	-	◎	◎	◎	-	-	-	-	-	-	교사
		유아 기관적응	PAQ	-	-	-	-	◎	◎	◎	◎	-	-	교사
	학교적응		-	-	-	-	-	-	-	-	◎	◎	교사	

〈표 IV-2-2〉 부모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아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	1	2	3	4	5	6	7	8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생년월일)	(자동생성)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최종 학력	(종단값 확인)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혼인상태	(종단값 확인)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종교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근로 특성	취업/학업상태	(종단값 확인)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직종	(종단값 확인 및 변동 시 재조사)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종사상 지위	(종단값 확인 및 변동 시 재조사)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근로시간	(종단값 확인 및 변동 시 재조사)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재택근무(+유연근무) 일수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출신국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다문화 가족 특성	귀화여부	(종단값 확인)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구분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측정방법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개인 특성	다문화 가족 특성	한국 거주 기간	(자동생성)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언어 구사 수준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의사소통 어려움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가정 내 사용 언어(배우자, 자녀)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문화적응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가족의 문화수용성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심리· 정서적 특성	정서 상태	자이존중감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우울	K-EPDS, PHQ9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평소 스트레스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 불안, 삶의 만족도 고려)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성격	그릿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기질	(심층조사)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	1	2	3	4	5	6	7	8			
심리·정서적 특성	가족관계	결혼만족도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부부갈등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주양육자	시간대별 주양육자		◎	◎	◎	◎	◎	◎	◎	◎	◎	주양육자		
		양육 분담	아버지의 양육 참여 양육/가사 분담	◎	-	-	-	-	-	-	-	-	-	어머니 주양육자	
양육 특성	양육 특성		양육행동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양육효능감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부모-자녀 관계 (애착, 훈육, 관여, 양육효능감, 좌절감 등)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놀이와 학습에 대한 부모 태도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치	◎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양육신념	◎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양육 부담	-	◎	◎	◎	◎	◎	◎	◎	◎	◎	◎	주양육자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	1	2	3	4	5	6	7	8		
양육 특성	양육 특성	부모이동상호작용	IBS(심층조사)			-	○	-	-	△	-	-	주양육자	
	양육 환경	가정환경의 질	K-IT-HOME			○	-	-	-	-	-	-	주양육자	
	후속 출산 계획	이상 자녀 수, 후속 출산 계획 여부, 계획 자녀 수, 계획 시기,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계획의 주결정자	(기구원 파악을 통해 자동생성)	○	-	-	-	-	-	-	-	-	어머니	
		후속 출산 여부		-	-	○	○	○	○	○	○	○	-	
	수유	모유수유 여부, 수유방법, 중단시기 및 이유		○	○	○	-	-	-	-	-	-	어머니	
출산 직후 모자 피부 접촉 여부, 출산 후 첫 모유수유 시점, 미수행 사유		○		-	-	-	-	-	-	-	-	어머니		
양육 지원	신후 지원	이유식/일반식 시작 시기		-	○	○	-	-	-	-	-	-	주양육자	
		산후조리원/민간산후도우미 이용여부 및 만족도, 모자동실 이용여부,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	-	-	-	-	-	-	-	-	어머니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인원		○	○	○	○	○	○	○	○	○	주양육자	
		사회적 지원 정도		○	○	○	○	○	○	○	○	○	○	주양육자
	부모 건강	부모 건강	장애여부	(종단값 확인)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장애 유형 및 정도			-		○	○	○	○	○	○	○	○	○	
흡연 여부 및 습관			(종단값 확인)	○	○	○	○	○	○	○	○	○	○	
간접 흡연				○	○	○	○	○	○	○	○	○	○	

구분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추정방법										
부모 건강	부모 건강	음주 여부 및 습관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어머니	
		임신 중 흡연/음주 여부	0	1	2	3	4	5	6	7	8		
		만성질환	○	○	○	○	○	○	○	○	○		
		가족력	-	○	-	-	-	-	-	-	-		
		임신 중 코로나19, 독감 감염 여부	-	○	-	-	-	-	-	-	-		
		임신 중 코로나19, 독감 백신접종 여부	-	○	-	-	-	-	-	-	-		
		그 외 임신출산 관련 문항은 기초조사에서 조사하였음.	-	○	-	-	-	-	-	-	-		

〈표 IV-2-3〉 가구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인구학적 특성	가구원	가구원 수		○	○	○	○	○	○	○	○	○	주양육자
		가구 구성 형태		○	○	○	○	○	○	○	○	○	주양육자
		부모-아동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		○	○	○	○	○	○	○	○	○	주양육자
	주양육자 (부모 이외인 경우)	주양육자-아동 관계		○	○	○	○	○	○	○	○	○	주양육자
		성별 연령 최종 학력		○	○	○	○	○	○	○	○	○	주양육자
경제적 특성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주양육자
		근로(사업)소득	배경변인 여부 고려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지출	월평균 가구지출		○	○	○	○	○	○	○	○	○	주양육자
		식비, 주거비, 의료비 자녀 교육·보육비		○	○	○	○	○	○	○	○	○	주양육자
	부채	부채 여부 및 부채액		○	○	△	△	△	△	△	△	△	주양육자
		부채 월 상환액		○	○	△	△	△	△	△	△	△	주양육자
	지원 여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	○	○	○	○	○	○	○	○	주양육자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	○	○	○	○	○	○	주양육자	

구분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측정방법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물리적 환경 특성	주거환경	주택 점유형태	○	○	○	○	○	○	○	○	○	○	주양육자
		주거 유형	○	○	○	○	○	○	○	○	○	○	주양육자
		주거 공간	○	○	○	○	○	○	○	○	○	○	주양육자
		주거 면적	○	○	○	○	○	○	○	○	○	○	주양육자
		주거지 방 개수	○	○	○	○	○	○	○	○	○	○	주양육자
		현거주지 거주 이유	○	○	○	○	○	○	○	○	○	○	주양육자
		주거지역 특성	○	○	○	○	○	○	○	○	○	○	주양육자
	생활환경	반려동물 소유 여부	○	○	○	○	○	○	○	○	○	○	주양육자

〈표 IV-2-4〉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아동연령(보육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0)	1(0)	2(1)	3(2)	4(3)	5(4)	6(5)	7	8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경험	이용 현황	이용 여부, 기관 이용 시작 시기	-	○	○	○	○	○	○	○	○	○	주양육자	
		연장보육/돌봄 이용 여부	-	○	○	○	○	○	○	○	○	○	주양육자	
	민족도	기관 이용 민족도	-	○	○	○	○	○	○	○	○	○	주양육자	
		기관 생활 민족도	-	-	-	-	○	○	○	○	○	○	아동	
교사 특성	교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	○	○	○	○	○	○	○	○	○	교사	
		연령	-	○	○	○	○	○	○	○	○	○	교사	
		학력	-	○	○	○	○	○	○	○	○	○	교사	
		경력	-	○	○	○	○	○	○	○	○	○	교사	
		현기관 근무기간	-	○	○	○	○	○	○	○	○	○	교사	
		교사 자격/최초자격	-	○	○	○	○	○	○	○	○	○	교사	
	교사의 심리적 특성	전공	-	○	○	○	○	○	○	○	○	○	교사	
		소진	-	○	○	○	○	○	○	○	○	○	교사	
		자기효능감	-	○	○	○	○	○	○	○	○	○	교사	
		직무만족도	-	○	○	○	○	○	○	○	○	○	교사	
		(+ 창의성, 정서지능, 민감성 등 고려)	-	-	△	△	△	△	△	△	△	△	△	교사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아동연령(보육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00	2차 '23 10	3차 '24 2(1)	4차 '25 3(2)	5차 '26 4(3)	6차 '27 5(4)	7차 '28 6(5)	8차 '29 7	9차 '30 8		
기관의 특성	기본 현황	기관 소재지	-	○	○	○	○	○	○	○	○	○	주양육자	
		기관 유형												
		연령별 학급(반) 현황												
		영유아 수(연령별/학급(반)별)	-	○	○	○	○	○	○	○	○	-		
		교직원 현황												
		운영시간(일일, 연중)												
학급(반) 특성	기관 운영	기관 평가 결과											교사	
		기관장의 리더십	-	○	○	○	○	○	○	○	○	○		교사
	학급(반) 구성	기관 적응 프로그램 유무	-	○	○	○	○	○	○	○	○	○	교사	
		반(학급) 연령 구성											교사	
		교사-영유아 비율	-	○	○	○	○	○	○	○	○	○	교사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유아 수	-	○	○	○	○	○	○	○	○	○	교사	
물리적 환경	교실환경											교사		
	ICT 환경	-	-	-	-	○	○	○	○	○	○	교사		
교육 ·보육	디지털 미디어 사용	디지털 미디어 사용 빈도	-	○	○	○	○	○	○	○	○	○	교사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	-	○	○	○	○	○	○	○	○	○	교사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아동연령(보육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0)	1(0)	2(1)	3(2)	4(3)	5(4)	6(5)	7	8	
과정	바깥놀이	바깥놀이 빈도	-	○	○	○	○	○	○	○	○	○	교사
		바깥놀이 시간	-	○	○	○	○	○	○	○	○	○	교사
	특별활동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여부	-	-	-	○	○	○	○	○	○	○	주양육자; 교사
		참여 목적(이유)	-	-	-	○	○	○	○	○	○	○	주양육자
		이용 횟수	-	-	-	○	○	○	○	○	○	○	교사
		이용 시간	-	-	-	○	○	○	○	○	○	○	교사
		이용 비용	-	-	-	○	○	○	○	○	○	○	교사
		교사 주도의 대집단활동 시간	-	-	-	-	○	○	○	○	○	○	교사
	교사-유아 주도 활동	교사 주도의 소집단활동 시간	-	-	-	-	○	○	○	○	○	○	교사
		교사 주도의 개별활동 시간	-	-	-	-	○	○	○	○	○	○	교사
		유아 주도의 활동 시간	-	-	-	-	○	○	○	○	○	○	교사
	교사-유아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 놀이 지원 등	-	-	-	-	○	○	○	○	○	○	교사
기관-가정 소통		-	○	○	○	○	○	○	○	○	○	주양육자; 교사	

구분			조사년도/이동연령(보육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측정방법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0)	1(0)	2(1)	3(2)	4(3)	5(4)	6(5)	7	8	
기관 외 사교육	부모참여	기관 생활 관심도	-	○	○	○	○	○	○	○	○	교사
		기관 행사 참여도	-	○	○	○	○	○	○	○	○	주양육자, 교사
		기관 행사 인지도	-	○	○	○	○	○	○	○	○	주양육자
	이용현황	반월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	○	○	○	○	○	○	○	○	주양육자
		기타 사교육 이용 여부	-	○	○	○	○	○	○	○	○	주양육자
		기타 사교육 이용 목적(이유)	-	○	○	○	○	○	○	○	○	주양육자
		이용 횟수(반월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	○	○	○	○	○	○	○	주양육자
		이용 시간(반월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	○	○	○	○	○	○	○	주양육자
		이용 비용(반월제 이상 기관/기타 사교육)	-	○	○	○	○	○	○	○	○	주양육자
			-	○	○	○	○	○	○	○	○	주양육자

〈표 IV-2-5〉 지역사회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0	2차 '23 1	3차 '24 2	4차 '25 3	5차 '26 4	6차 '27 5	7차 '28 6	8차 '29 7	9차 '30 8	
일반적 특성	가구 소재지	시·도	(자동생성)	○	○	○	○	○	○	○	○	○	-
		도시규모	(종단값 확인)	○	○	○	○	○	○	○	○	○	주양육자
지역사회 환경	거주기간	현거주지 전입 시기	(종단값 확인)	○	○	○	○	○	○	○	○	○	주양육자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	○	○	○	○	○	○	○	○	주양육자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	○	○	○	○	○	○	○	○	주양육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 충분성	(종단값 확인 및 변동 시 조사)	○	○	○	○	○	○	○	○	○	주양육자

〈표 IV-2-6〉 정책 특성 영역 조사 계획(안)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0	1	2	3	4	5	6	7	8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방향성	육아지원정책 방향 우선순위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필요성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현금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아동수당	○	○	○	○	○	○	○	○	○	○	주양육자
		영아수당	○	-	-	-	-	-	-	-	-	-	주양육자
		양육수당	○	○	○	○	○	○	○	○	○	○	주양육자
		출산급여	○	○	○	○	○	○	○	○	○	○	주양육자
		배우자 출산급여	○	○	○	○	○	○	○	○	○	○	주양육자
		근로장려세제	○	-	-	-	-	-	-	-	-	-	주양육자
		자녀장려세제	○	○	○	○	○	○	○	○	○	○	주양육자
		부모급여	-	○	○	○	○	○	○	○	○	○	주양육자
		공공요금 할인	-	○	○	○	○	○	○	○	○	○	주양육자
		현물/바우처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첫만남 이용권	○	○	○	○	○	○	○	○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	○	○	○	○	○	○	○	주양육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	○	○	○	○	○	○	○	○	주양육자
		아이돌봄지원사업	○	○	○	○	○	○	○	○	○	○	주양육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	○	○	○	○	○	○	○	주양육자

구분			측정방법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 '22	2차 '23	3차 '24	4차 '25	5차 '26	6차 '27	7차 '28	8차 '29	9차 '30		
		보육료 유아학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방과후 과정 다함께 돌봄/돌봄학교		-	○	○	○	○	○	○	○	○	주양육자	
				-	○	○	○	○	○	○	○	○	주양육자	
				-	○	○	○	○	○	○	○	○	주양육자	
				-	○	○	○	○	○	○	○	○	주양육자	
				-	○	○	○	○	○	○	○	○	주양육자	
	시간 지원 (인지여부, 이용 여부, 중요도, 만족도)		어머니 육아휴직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육아휴직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시간외 근로금지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가족돌봄휴가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시차출퇴근제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선택근무제	○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구분			조사년도/이동연령										응답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출정방법	1차 '22 0	2차 '23 1	3차 '24 2	4차 '25 3	5차 '26 4	6차 '27 5	7차 '28 6	8차 '29 7	9차 '30 8	
			재택근무제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원격근무제	○	○	○	○	○	○	○	○	○	어머니, 아버지



참고문헌

- 대한소아과학회(2014). 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사용지침서. 질병관리
본부.
- 대한소아과학회(2017). 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사용지침서(개정판).
질병관리본부.
- 박승진·최혜라·최지혜·김건우·홍진표(2010).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 *Anxiety and
Mood*, 6(2), 119-124.
- 연세대학교 K-IT-HOME 연구실(2012). 한국 영아용 가정환경검사(K-IT-HOME)
매뉴얼. 삼성복지재단.
-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
육 패널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배운진·김자연·송신영·조경진·장현진·이기재(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
육 패널 연구 202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박원순·엄지원(202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지연·그레이스정(2019). 한국판 가족의 민족사회화 척도 (Korean version of
Familial Ethnic Socialization Measure: K-FESM) 타당화: 중국 및 베
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 5-6학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4), 111-134.
-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 한국아동패
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출생아 수.
- Berry, J. W., & Hou, F. (2016). Immigrant acculturation and wellbeing
in Canada.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57(4),
254.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인터넷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실시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800m01.do> (2023. 5. 30. 인출).

마인드프레스, K M-B CDI, <https://www.mindpress.co.kr/shop/shopdetail.html?branduid=199&search=cdi&sort=order&xcode=002&mcode=000&scode=&GfDT=Z2x3UQ%3D%3D> (2023. 10. 1. 인출).

위키백과, MZ 세대, <https://ko.wikipedia.org/wiki/MZ%EC%84%B8%EB%8C%80> (2023. 12. 06. 인출).

인싸이트, 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 https://inpsyt.co.kr/psy/item/view/IBS_CO_SG (2023. 10. 1. 인출).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2023. 3. 6. 인출).

질병관리청,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8/sub08_02.do (2023. 10. 18. 인출).

통계청(n.d.).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3 (2023. 6. 29.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2022. 11. 3.).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4&act=view&list_no=421620 (2023. 6. 29. 인출)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23. 10. 11. 인출).



Abstract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Study 2023

Yun-jin Bae · Eun Jung Park · Jayeun Kim · Kyungjin Cho · Hyemin Lee ·
Min-gwon Kang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Study commenced in 2021 with the objective of collecting data related to the early life growth and development, encompassing caregiving in homes, intrinsic and extrinsic parental factors, educational and caregiving experiences in institutions,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from the prenatal stage through infancy, toddlerhood, and early childhoo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outlined as follows. 1) Collecting data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one-year-old infants, parental and household features, community attributes, caregiving and parenting support service qualities, and policy attributes. 2) Analyz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fants alongside household characteristic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rawing implications. 3) Establishing a framework of research data accessible to scholars, field experts, and researcher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ongitudinal data, enabling its utilization in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study,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ere completed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vestigation,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conference. In the survey focusing on one-year-old infants, households were visited to conduct interviews with

primary caregivers, postal (online)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parents, and childcare center teachers attended by the infants were surveyed online. Furthermore, a random sample of 400 households from the entire panel was selected for additional investigations into specific variables.

In the annual report in 2023, we analyzed the data that were collected in 2022 (1st wave) and provid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households and community. In total, 2,775 panel children have participated in the 1st year of the survey in 2022.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ild and parental health) 1) Most households conducted newborn-related examinations, and the vaccination rates were generally high, confirming a thorough and well-implemented preventive approach to child health in birth homes. 2) Concerning parental smartphone overuse, 10.4% of fathers fell into the potential risk group, with 2.5% categorized as high-risk. Among mothers, 12.6% were in the potential risk group, while 3.7% were considered high-risk.

(Birth practices / caregiving) 1) Among the mothers, 40.5% had planned cesarean deliveries, 39.3% underwent natural births, and 20.1% experienced unplanned emergency cesarean deliveries during childbirth. The utilization rate of postpartum care centers was 86.2%. 2) Maternal caregiving predominated in nearly all households, but during the evening hours, fathers took care in over 40% of cases. 3) Mothers planning exclusive breastfeeding before childbirth accounted for 24.9%. Within 24 hours after birth, the breastfeeding rate was 31%, declining to under 10% from the seventh month after birth.

(Parental work characteristics) The employment rate was 96.1% for fathers and 52.0% for mothers. Compared to the 2008 Korean Children's Panel Study (31.4%),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maternal employment rate.

(Policy characteristics) Fathers favored an increase in allowances or financial support in childcare policies, while mothers preferred strengthening systems enabling parents to care for their children. 1)

Among cash support policies, all-day childcare vouchers(idolbom) received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the most highly rated policy was childcare allowances. 2) Among material/voucher support policies, first-meeting vouchers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were rated most important. 3) Usage rates for time support policies were relatively low, around 18% for fathers and 46% for mothers compared to other types of support policies. Satisfaction with telecommuting was highest, and the most highly regarded policy in importance was parental leave.

Keyword: Korean infancy, child development, panel study, longitudinal data

부록 1. 1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머니 대상 조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2022)

어머니용 질문지

ID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구인 영유아의 국가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의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초기 성장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대표성을 가지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1차 본조사로 귀하의 자녀가 4개월이 된 시점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응답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귀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팀

조사 수행기관 : (주)칸타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팀
(02-3415-5233, 010-7487-9472)

다음은 귀하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신 기간 신체적·정서적 활동]

1. 귀하(산모)께서는 임신 기간 중 자신과 태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다음의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출산 후 첫 모유수유 시점]

5. 귀하께서 이번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셨다면, 첫 모유수유*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행위를 처음 한 시점

- ① 출산 후 1시간 이내 (→ 7로 이동) ② 출산 후 3시간 이내 (→ 7로 이동)
 ③ 출산 후 6시간 이내 (→ 7로 이동) ④ 출산 후 12시간 이내 (→ 7로 이동)
 ⑤ 출산 후 24시간 이내 (→ 7로 이동) ⑥ 출산 후 48시간 이내
 ⑦ 출산 후 일주일 이내 ⑧ 기타 ()
 ⑨ 모유수유한 적 없음

[출산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 미수행 사유]

6. 귀하께서 출산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기의 모유 흡입뿐만 아니라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행위도 포함

- ① 출산직후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로 (예: 분만으로 인한 피로감 누적, 과다 출혈 등)
 ② 출산직후에는 모유가 생성되지 않아서
 ③ 적절한 모유수유의 방법을 몰라서
 ④ 아기의 건강상의 문제로 (예: 아기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
 ⑤ 아기와 함께 있지 않아서 (예: 산모는 병실에, 아기는 신생아실에)
 ⑥ 기타 ()

[개월별 수유 방법]

7. 아기의 개월 수에 따라 수유 방법을 ✓표해주십시오.

※ 수유 방법은 **해당 월의 과반일 이상 행한 수유 방법**으로 응답해주세요.

예시1) 20일 동안은 모유수유, 10일 동안은 모유+분유 수유한 경우, 모유수유로 응답

예시2) 생후 한 달 동안 모유수유, 그 후 20일 동안은 모유+분유 수유, 그 후에는 분유수유한 경우, 0개월: 모유, 1개월: 혼합, 2개월: 분유로 응답

※ 혼합수유는 하루 중 수유 시 모유와 분유를 모두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10일 동안은 모유수유, 20일 동안은 분유를 먹인 경우에는 혼합이 아닌, 분유로 응답

구분	모유	혼합(모유+분유)	분유
0개월	①	②	③
1개월	①	②	③
2개월	①	②	③
3개월	①	②	③
4개월	①	②	③
5개월	①	②	③
6개월	①	②	③

[모유수유 중단 시기]

7-1. 귀하는 현재 모유수유 중이십니까?

※ 모유수유를 50일까지 하고 중단했다면 1개월 20일로, 100일까지 했다면 3개월 10일로 기입
 해주세요. (1개월은 30일로 환산) 만약, 4개월 동안 했다면 4개월 0일로 기입해주세요.

- ② 아니오 → 생후 _____개월 _____일까지 모유수유 했음 (→ 응답 후 7-2로 이동)

[모유수유 중단 이유]

7-2. (7-1번 문항에서 ②선택 시) 귀하는 현재 모유수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는데, 모유수유를 그만두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젖의 양이 적어서 ②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③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 동안 수유가 어려워서
④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⑤ 질병, 약 복용 등으로
⑥ 모유를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해서 ⑦ 기타 ()

[출산 전 임부 몸무게]

8. 귀하의 출산 직전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kg

[본문 형태]

9. 귀하의 분만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 ① 자연분만 ② 계획된 제왕절개 ③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10. 귀하께서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2로 이동)

[산후조리원 모자 동실 이용 여부]

11. 귀하께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모자 동실을 이용하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2로 이동)

11-1. 이용하셨다면 하루 평균 아기와 함께 모자동실에 있었던 시간은 몇시간입니까?

시간 분 * 30분 단위로 기록

[산후도우미 이용 여부]

12. 귀하께서는 출산 후 산후도우미 등의 도움 인력을 이용하였습니까?

구분	이용 여부	이용 주수	만족도
1) 공공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① 예 (→'이용 주수'로 이동) ② 아니오 (→ 13으로 이동)	()주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2) 민간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① 예 (→'이용 주수'로 이동) ② 아니오 (→ 13으로 이동)	()주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3) 기타 ()	① 예 (→'이용 주수'로 이동) ② 아니오 (→ 13으로 이동)	()주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13. 귀하께서는 출산 후 아래의 교육을 어디에서(혹은 누구에게) 최초로 받으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최초 교육받은 대상(혹은 장소)과 배우자 동반 여부를 응답해주세요.

교육 내용	교육 장소(강사)	
	① 병원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③ 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⑤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공공 산후도우미) ⑥ 민간 산후도우미 ⑦ 친정 부모님 ⑧ 사부모님 ⑨ 형제·지매 ⑩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학습 ⑪ 배운 적 없음	배우자 동반 여부
1) 신생아 돌봄 (응급상황 대처, 수유 자세, 목욕 방법, 기저귀 교환 방법 등)	①~⑪	① 예 ② 아니오
2) 산모 건강 관리 (산후 관리 방법, 산모 위험상황 대처 방안, 감염성 질환 대처 방안 등)	①~⑪	① 예 ② 아니오
3)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교육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 발달 이해하기 등)	①~⑪	① 예 ② 아니오
4) 영아 돌연사 위험 요인과 예방	①~⑪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상 자녀 수]

14.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자녀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 이상 ⑦ 잘 모르겠음

[후속 출산 계획 여부]

15.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① 낳겠음
(또는 임신 중)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15-1. 더 낳으실 계획인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몇 명을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후속 출산 계획 시기]

15-2. 다음 자녀는 언제쯤 출산할 계획입니까?

- ①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이후
⑤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 16번 문항으로

- ② 낳지 않겠음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15-3.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② 직장/학업 때문에
③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④ 나이가 많아서
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⑥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기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⑦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보육시설/학교 등의 기관 이용 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 비용 등)
⑧ 난임(인공수정 및 시험관 수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이어서
⑨ 기타

[후속 출산결정의 주 영향자]

16. 위에서 답한 귀하의 향후 자녀 출산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 출산계획에는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 ① 본인 ② 남편 ③ 친정 부모님
 ④ 시부모님 ⑤ 본인의 형제·자매 ⑥ 남편의 형제·자매
 ⑦ 본인의 친인척 ⑧ 남편의 친인척 ⑨ 친구, 동료 및 이웃
 ⑩ 다른 자녀 ⑪ 없음 ⑬ 기타 ()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 스트레스]

17. 다음은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행동]

18. 다음은 아기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예: 종교모임, 산후조리원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예: 눈을 마주치며 소리에 반응)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아버지의 양육 참여]

19. 다음은 남편의 아기 양육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모두 '해당없음' 응답 후 문20으로 이동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돌보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남편은 아이의 식사(수유 및 이유식)를 도와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옹알이 등) 상대가 되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녀 가치]

20.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 신념]

21.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양육 신념]

22.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우선순위 없이 선택)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② 독립심 ③ 근면함
 ④ 책임감 ⑤ 상상력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⑧ 결단력
 ⑨ 끈기 ⑩ 종교적 신념 ⑪ 이타심
 ⑫ 어른 말씀 잘 듣기 ⑬ 기타 (_____)

다음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릿]

23.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아존중감]

24.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우울]

25. 오늘이 아닌, 최근 7일간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느끼시는 감정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질문 : 지난 7일 동안에 ~	①	②	③	④
1) 나는 사물의 재미있는 면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	예전과 똑같았다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2) 나는 어떤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	예전과 똑같았다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3) 일이 잘못될 때면 공연히 자신을 탓하였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4) 나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웠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의 그렇지 않았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랬다
5) 특별한 이유없이 무섭거나 안전부절 못하였다.	꽤 자주 그랬다	가끔 그랬다	거의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6) 요즘 들어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대부분 그러하였고,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었다	가끔 그러하였고,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었다	그렇지 않았고, 대개는 일을 잘 처리하였다	그렇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잘 처리하였다
7)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8) 슬프거나 비참하다고 느꼈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9) 불행하다고 느껴서 울었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0)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신국]

26.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 ① 예 (→ 27로 이동) ② 아니오 (→ 26-1로 이동)

26-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 ① 중국 ② 중국(한국계) ③ 필리핀
④ 베트남 ⑤ 캄보디아 ⑥ 일본
(→ 응답 후 28로 이동)

27.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귀화하셨습니까?

- ① 예 (→ 27-1로 이동) ② 아니오 (→ 30으로 이동)

27-1. 귀화하셨다면, 귀화 전 국적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 ① 중국 ② 중국(한국계) ③ 필리핀
④ 베트남 ⑤ 캄보디아 ⑥ 일본

[한국 거주 기간]

* 외국 국적이거나 귀화한 가족 구성원에 해당

28. 한국에 언제부터 거주하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언어 구사 수준]

29. 언어 구사 수준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못함	거의 못함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함	유창한 편임	매우 유창함
1) 한국어 구사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응답자의 모국어 구사수준 * 배우자가 귀하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 매우 유창함: 원어민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소통 및 토론이 가능함
- 유창한 편임: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만 구사 가능함

[종교]

30.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31로 이동)

30-1. 있다면, 어느 종교입니까?

-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_____)

[최종 학력]

3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졸업기준. 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를 기준으로 작성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기능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다음은 결혼 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인상태]

32. 귀하의 사실상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유배우 (→ 33으로 이동) ② 별거 (→ 33으로 이동) ③ 이혼 (→ 35로 이동)
④ 사별 (→ 35로 이동) ⑤ 미혼 (→ 35로 이동)

[결혼만족도] (문32의 ①, ② 응답자만)

33.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1~7점까지 해당 점수에

✓ 표해주십시오.

문항 내용	←-----→						매우 만족 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부 갈등] (문32의 ①, ② 응답자만)

34.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얼마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건강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 여부]

35. 귀하가 장애를 진단받으셨다면 귀하의 장애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중증 ② 경증 ③ 해당 없음(장애 없음)

[흡연 여부]

36.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우지 않음 (→ 38로 이동) ② 피움 (→ 하루____번, 하루____개비)

[임신 중 흡연 여부]

37. 귀하는 자녀 임신 중에도 흡연을 하셨습니까?

- ① 안 피웠다 ② 피웠다 (→ 하루____번, 하루____개비)

[간접흡연]

38. 최근 7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음주 습관]

39. 귀하는 평소에 술을 마십니까?

- ① 마셨음 (→ 39-1로 이동) ② 마시지 않았음 (→ 41로 이동)

39-1.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회~4회 ④ 거의 매일

[임신 중 음주 여부]

40. 귀하는 자녀 임신 중에도 음주를 하셨습니까?

- ①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임신 사실을 모르고 초기에 마셨다.
③ 임신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마셨다.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항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41.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하의 근로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학업 상태]

42.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
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시시오.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모두 취업 중에 해당함.

① 취업 중 (→ 42-1로 이동)	42-1. ① 출산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② 새로운 직장에 취업 ③ 육아휴직 중 ④ 기타 휴직 중 (→ 응답 후 43으로 이동)
② 학업 중 (→ 42-2로 이동)	42-2. ① 휴학 중 ② 학업 복귀 (→ 응답 후 47로 이동)
③ 미취업/미취학 (→ 47로 이동)	

[직종]

43.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직업 코드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골라 주십시오.

코드	직업명	직업예시
1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그래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3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마용(코디네이터, 분장사)/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 자연환경 해설사 등
5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9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A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종사상 지위]

44.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일용직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

45. 귀하의 평소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 평균 근무 시간과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말씀해주시시오.

*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재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근무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출퇴근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45-1.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일수

- ① 주당 평균 _____일 ※ 최근 3개월 기준
- ② 재택근무 하지 않음

[근로(사업)소득]

46. 귀하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재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46-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하의 근로(사업)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 ~ 200만원
- ③ 201만원 ~ 300만원 ④ 301만원 ~ 400만원
- ⑤ 401만원 ~ 500만원 ⑥ 501만원 ~ 600만원
- ⑦ 601만원 ~ 700만원 ⑧ 701만원 ~ 800만원
- ⑨ 801만원 ~ 900만원 ⑩ 901만원 ~ 1000만원
- ⑪ 1001만원 이상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육아지원정책 방향]

47.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출산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아동을 잘 길러 국가 인재로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 방향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요.

-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강화
 - ②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
 - ③ 부모가 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영아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

48.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내 용	매우 불필요하다	대체로 불필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영아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초등 돌봄 지원	①	②	③	④	⑤

※ 영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4살 이하의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를 지원함.

※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지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원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유아 월10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월280,000원을 지원 중임.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기본과정 이후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나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에게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월50,000원, 사립유치원 월70,000원, 어린이집 시간당 3,200원을 지원 중임.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49.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시간과 관련된 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각 정책별로 귀하의 이용여부, 만족도, 중요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종류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 없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시간	1) 육아휴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4) 시간외 근로 금지*			
	5)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6) 가족돌봄휴가			
	7) 시차출퇴근제			
	8) 선택근무제			
	9) 재택근무제			
	10) 원격근무제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대상

- ※ **육아휴직**: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
-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 ※ **시간외 근로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야간 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것
- ※ **시차출퇴근제**: 근로자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
- ※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
- ※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것
- ※ **원격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

◆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1차년도 조사 설문지: 아버지 대상 조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2022) 아버지용 질문지

ID				
----	--	--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구인 영유아의 국가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의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초기 성장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대표성을 가지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1차 본조사로 귀하의 자녀가 4개월이 된 시점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응답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귀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팀

조사 수행기관 : (주)칸타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팀
(02-3415-5233, 010-7487-9472)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 스트레스]

1. 다음은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행동]

2. 다음은 아기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예: 종교모임, 산후조리원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예: 눈을 마주치며 소리에 반응)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녀 가치]

3.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
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 신념]

4.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
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양육 신념]

5.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
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우선순위 없이 선택)

1)_____ 2)_____ 3)_____ 4)_____ 5)_____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② 독립심 ③ 근면함
- ④ 책임감 ⑤ 상상력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⑧ 결단력
- ⑨ 끈기 ⑩ 종교적 신념 ⑪ 이타심
- ⑫ 어른 말씀 잘 듣기 ⑬ 기타 (_____)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림]

6.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아존중감]

7.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우울]

8. 오늘이 아닌, 최근 7일간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느끼시는 감정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질문 : 지난 7일 동안에 ~	①	②	③	④
1) 나는 사물의 재미있는 면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	예전과 똑같았다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2) 나는 어떤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	예전과 똑같았다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3) 일이 잘못될 때면 공연히 자신을 탓하였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4) 나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웠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의 그렇지 않았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랬다
5) 특별한 이유없이 무섭거나 안전부절 못하였다.	꽤 자주 그랬다	가끔 그랬다	거의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6) 요즘 들어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대부분 그러하였고,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었다	가끔 그러하였고,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었다	그렇지 않았고, 대개는 일을 잘 처리하였다	그렇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잘 처리하였다
7)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8) 슬프거나 비참하다고 느꼈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9) 불행하다고 느껴서 울었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0)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다.	대부분 그랬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신국]

9.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 ① 예 (→ 10으로 이동) ② 아니오 (→ 9-1로 이동)

9-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 ① 중국 ② 중국(한국계) ③ 필리핀
④ 베트남 ⑤ 캄보디아 ⑥ 일본
(→ 응답 후 11로 이동)

10.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귀화하셨습니까?

- ① 예 (→ 10-1로 이동) ② 아니오 (→ 13으로 이동)

10-1. 귀화하셨다면, 귀화 전 국적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 ① 중국 ② 중국(한국계) ③ 필리핀
④ 베트남 ⑤ 캄보디아 ⑥ 일본

[한국 거주 기간]

* 외국 국적이거나 귀화한 가족 구성원에 해당

11. 한국에 언제부터 거주하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언어 구사 수준]

12. 언어 구사 수준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못함	거의 못함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유창한 편임	매우 유창함
1) 한국어 구사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응답자의 모국어 구사수준 * 배우자가 귀하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 매우 유창함: 원어민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소통 및 토론이 가능함
- 유창한 편임: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만 구사 가능함

[종교]

13.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4로 이동)

13-1. 있다면, 어느 종교입니까?

-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_____)

[최종 학력]

1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졸업기준: 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를 기준으로 작성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기능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다음은 결혼 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인상태]

15. 귀하의 사실상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유배우 (→ 16으로 이동) ② 별거 (→ 16으로 이동) ③ 이혼 (→ 18로 이동)
④ 사별 (→ 18로 이동) ⑤ 미혼 (→ 18로 이동)

[결혼만족도] (문15의 ①, ② 응답자만)

16.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7점까지 해당 점수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다						매우 만족 한다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부 갈등] (문15의 ①, ② 응답자만)

17.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건강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 여부]

18. 귀하가 장애를 진단받으셨다면 귀하의 장애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중증 ② 경증 ③ 해당 없음(장애 없음)

[흡연 여부]

19.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우지 않음 (→ 21로 이동) ② 피움 (→ 하루____번, 하루____개비)

[임신 중 흡연 여부]

20. 귀하는 아내의 임신 중에도 흡연을 하셨습니까?

- ① 안 피웠다 ② 피웠다 (→ 하루____번, 하루____개비)

[간접흡연]

21. 최근 7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음주 습관]

22. 귀하는 평소에 술을 마십니까?

- ① 마셨음 (→ 22-1로 이동) ② 마시지 않았음 (→ 24로 이동)

22-1.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회~4회 ④ 거의 매일

[임신 중 음주 여부]

23. 귀하는 아내의 임신 중에도 음주를 하셨습니까?

- ①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임신 사실을 모르고 초기에 마셨다.
③ 임신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마셨다.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항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24.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하의 근로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학업 상태]

25.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두 가지 보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모두 취업 중에 해당함.

- ① 취업 중 (→ 26으로 이동)
 ② 학업 중 (→ 30으로 이동)
 ※ 휴학포함
 ③ 미취업/미취학 (→ 30으로 이동)

[직종]

26.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직업 코드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골라 주십시오.

코드	직업명	직업예시
1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그래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3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5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9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A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종사상 지위]

27.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일용직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

28. 귀하의 평소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 평균 근무 시간과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말씀해주시십시오.

*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재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근무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출퇴근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28-1.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일수

- ① 주당 평균 _____ 일 ※ 최근 3개월 기준
- ② 재택근무 하지 않음

[근로(사업)소득]

29. 귀하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재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29-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하의 근로(사업)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 ~ 200만원
- ③ 201만원 ~ 300만원 ④ 301만원 ~ 400만원
- ⑤ 401만원 ~ 500만원 ⑥ 501만원 ~ 600만원
- ⑦ 601만원 ~ 700만원 ⑧ 701만원 ~ 800만원
- ⑨ 801만원 ~ 900만원 ⑩ 901만원 ~ 1000만원
- ⑪ 1001만원 이상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육아지원정책 방향]

30.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출산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아동을 잘 길러 국가 인재로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 방향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요.

-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기관에서의 육아지원 기능 강화
 - ②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
 - ③ 부모가 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영아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

31.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내 용	매우 불필요하다	대체로 불필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영아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초등 돌봄 지원	①	②	③	④	⑤

※ 영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4살 이하의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를 지원함.

※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지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원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유아 월10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월280,000원을 지원 중임.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기본과정 이후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나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에게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월50,000원, 사립유치원 월70,000원, 어린이집 시간당 3,200원을 지원 중임.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32.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시간과 관련된 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각 정책별로 귀하의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종류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 없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시간	1) 육아휴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4) 시간외 근로 금지*			
	5)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6) 가족돌봄휴가			
	7) 시차출퇴근제			
	8) 선택근무제			
	9) 재택근무제			
	10) 원격근무제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대상

- ※ **육아휴직**: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
-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 ※ **시간외 근로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야간 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것
- ※ **시차출퇴근제**: 근로자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
- ※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
- ※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것
- ※ **원격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

◆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1차년도 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1차(2022) 주양육자용 질문지

ID				
----	--	--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구인 영유아의 국가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의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초기 성장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대표성을 가지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1차 본조사로 대상 아동이 4개월이 된 시점에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응답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귀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팀

조사 수행기관 : (주)칸타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팀
(02-3415-5233, 010-7487-9472)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동과의 관계 및 주양육자 특성]

1. 현재 이 조사에 응답하는 귀하와 아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1-1. 아기의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① 어머니 (→ 5로 이동) ② 아버지 (→ 5로 이동)
③ 아기의 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⑤ 공공 아이돌보미 ⑥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구 형태]

6. 가족 유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부모+자녀 | ② 어머니+자녀 | ③ 아버지+자녀 |
| ④ 조부모+부모+자녀 | ⑤ 조부모+어머니+자녀 | ⑥ 조부모+아버지+자녀 |
| ⑦ 한조부모+부모+자녀 | ⑧ 한조부모+어머니+자녀 | ⑨ 한조부모+아버지+자녀 |
| ⑩ 기타 | | |

[동거 여부]

7. 부모님과 아기는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어머니	① 아기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아기와 떨어져 살고 있음 (→ 8-1로 이동)
2) 아버지	① 아기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아기와 떨어져 살고 있음 (→ 8-2로 이동)

[비동거 이유]

8.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아기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머니	①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 ②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학업 중 ③ 어머니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기타()
2) 아버지	①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 ②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학업 중 ③ 아버지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군 복무 중 ⑤ 기타()

다음은 조사 대상 아기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질]9. 다음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기의 행동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아기가 다음 행동을 **얼마나 자주** 보였는지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해당없음”이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해당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의자에 앉아 음식이나 마실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묻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없었다면, ‘해당없음’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없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1)”와는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상황은 경험하였으나 해당 행동을 아기가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항상 그랬 다	해당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아기에게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 꿈틀대거나 뒹굴어서 달아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장난스럽게 이리저리 흔들어주면,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피곤하면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한 낯선 어른을 만나면 부모에게 달라붙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책을 읽어주면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5~10분 동안 한 가지 장난감이나 물건을 가지고 논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새로운 사물을 향해 빨리 다가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욕조(목욕물)에 들어가면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밥집 또는 낮잠 잘 시간이 되었을 때 자고 싶지 않으면, 훌쩍거리거나 흐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잠에서 깨어난 후, 누군가가 몇 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안겨서 음식(수유 및 이유식)을 먹을 때, 먹기를 끝내자마자 달아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달래기 위해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이야기를 하면, 바로 진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3) 아기를 눕히면 꿈틀대거나 몸을 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4) 까꿍놀이를 하는 동안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5) 놀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쳐다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6) 아기를 잠자리(침대나 요)에 두고 떠나면, 울거나 짜증을 내며 화가 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7) 자세가 갑자기 변하면(예: 갑자기 아기를 옮길 때) 놀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8) 자장가나 전래동요 같은 운율이 있는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9) 한 번에 5분 이상 책이나 잡지의 그림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0)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새로운 환경을 관찰하느라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1) 장난감을 주면 미소 짓거나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2) 즐거웠던 하루가 끝나갈 때면 울먹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3) 아기 의자, 울타리, 카시트 등과 같이 갇혀 있는 장소에 있으면 저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4) 안겨 있을 때 즐거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5) 달래기 위해 아기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면, 바로 진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6) 머리를 감길 때, 입으로 소리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7) 하늘 높이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8) 한 낯선 어른을 만났을 때, 낯선 사람한테 가기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9) 다른 일로 바빠서 아기에게 집중할 수 없을 때, 울음을 터뜨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0) 흔들어주기 같은 부드러운 리듬 있는 활동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1) 5분 이상 모빌이나 침대의 모서리, 그림을 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2) 무언가를 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속상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3) 낯선 어른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부모에게 달라붙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4) 아기를 흔들어주거나 안았을 때, 즐거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5) 달래기 위해 아기 몸의 일부를 토닥거리거나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 바로 진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6) 차에 타고 있을 때, 말하는 소리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7) 아기 의자나 카시트에 두면, 꿈틀대거나 몸을 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다음은 수면, 배변 등과 같은 아기의 기초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면환경]

10. 다음은 아기의 생활 중 수면환경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평소에 아기가 잠자는 환경에 대해서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옆드려 재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폭신한 매트리스나 이불 위에서 재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두껍거나 폭신한 이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잘 때 방 안 온도를 적절하게(22~25℃)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주 공갈 젓꼭지를 빨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면시간]

11. 다음은 아기의 수면 시간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아기의 낮잠과 밤잠 횟수와 시간에 대해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구분	문 항 내 용	횟수 또는 시간
1) 낮잠	아기의 평소 하루 동안 낮잠 횟수는 몇 회입니까? (낮잠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평균 으로 응답해 주시고, 30분 이상 수면이 이루어 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평소 낮잠을 자긴 하지만, 30분 보다 짧게 잔다.
2) 밤잠	아기의 평소 밤잠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밤잠 시간이란, 깨지 않고 자는 시간이 아닌, 중간에 깨거나 수유를 하더라도 낮잠이 아닌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부모나 아기가 밤으로 인식하는) 자는 시간을 의미함	① 6시간 미만 ② 6-8시간 미만 ③ 8-9시간 미만 ④ 9-10시간 미만 ⑤ 10-11시간 미만 ⑥ 11-12시간 미만 ⑦ 12-13시간 미만 ⑧ 13-14시간 미만 ⑨ 14-15시간 미만 ⑩ 15-16시간 미만 ⑪ 16시간 이상

[수면습관]

12. 다음은 아기의 생활 중 수면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취침 전 수유를 마친 후 금방 잠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중에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다(일반적으로 길어야 6시간 미만임).	①	②	③	④	⑤
3) 하루에 14~16시간동안 잠을 자며, 낮에는 간혹 2~3시간 동안 깨어있기도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손가락을 빨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잠이 들기 전에 혼자 웅얼이, 손장난 등의 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배변/씻기 특성]

13. 다음은 배변-목욕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에 아기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하루에 1~2회 정도 대변을 본다. 경우에 따라 하루 정도는 대변을 못 보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대변보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목욕시간을 좋아한다(발차기, 옷기, 물장구치기 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아기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중]

14. 아기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_____ kg [측정일자 : ()월 ()일]

[신장]

15. 아기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_____ cm [측정일자 : ()월 ()일]

[두위]

16. 아기의 현재 머리둘레는 몇 cm입니까? _____ cm [측정일자 : ()월 ()일]

17. 출산 후 다음과 같은 신생아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1) 검사 내용	2) 검사 수행 여부	3) 이상 유무
① 선천성 대사이상	① 예(→ '3)이상 유무'로 이동)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② 청력검사	① 예(→ '3)이상 유무'로 이동)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① 예(→ '3)이상 유무'로 이동)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8. 귀하의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 신생아 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은 산부인과에서 미숙아, 저체중아, 어떤 질환이 있는 신생아를 집중적으로 관리·치료하는 곳을 의미함.

18-1. (18번 문항에서 ①선택 시) 있었다면 며칠 간 있었습니까? _____일

18-2. (18번 문항에서 ①선택 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조산/저체중 출생 ② 황달 ③ 신경 질환
④ 호흡기 질환 ⑤ 심장 질환 ⑥ 소화기 질환
⑦ 비뇨생식기 질환 ⑧ 안전사고 ⑨ 기타 ()

19. 귀하의 아기는 출생 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사고나 질환으로 의료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질환명	2) 의료기관 및 응급실 방문 여부	3) 입원여부/입원 일 수
1) 호흡기 질환(폐렴, 독감, 코로나19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2) 신경계통 질환(뇌성마비, 운동장애, 경련질환)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3) 순환계통 질환(심장병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4) 소화계통 질환(위장관염, 장폐색, 탈장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5) 피부 질환(피부염, 두드러기, 아토피피부염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6) 비뇨생식계통 질환(요로감염, 선천 신요로기형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7) 사고로 인한 손상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8) 약제나 유해 물질 중독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9) 기타 (_____)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 (____일) ② 아니오

[평소 건강]

20. 아기의 평소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쁨 ② 대체로 나쁨 ③ 보통
④ 대체로 좋음 ⑤ 매우 좋음

[질환 진단 여부]

21. 귀하의 아기는 출생 후 현재까지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질환명	2) 진단 여부	
1) 모세기관지염	① 예	② 아니오
2) 폐렴	① 예	② 아니오
3) 아토피피부염	① 예	② 아니오
4) 음식 알레르기	① 예	② 아니오
5) 상기도 감염	① 예	② 아니오
6) 중이염	① 예	② 아니오
7) 요로감염	① 예	② 아니오
8) 탈장	① 예	② 아니오
9) 심장 질환	① 예	② 아니오
10)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장애 판정 여부]

22. 귀하의 아기는 장애를 진단받으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23으로 이동)

[장애 정도]

22-1. (22번 문항에서 ① 선택 시) 귀하의 아기가 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면 장애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중증 ② 경증

[장애 유형]

22-2. (22번 문항에서 ① 선택 시) 귀하의 아기가 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면 장애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정신장애 ⑧ 자폐성 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예방접종 종류 및 접종 여부]

23. 귀하의 아기는 다음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가?

1) 예방접종 종류	2) 접종 회차	
	1차	2차
1) B형간염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2) 결핵*	① 예 ② 아니오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4) 폴리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5)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6) 폐렴구균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7) 로타바이러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8) 수막구균*	① 예 ② 아니오	
9)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차 접종만 해당함

[건강검진 수검]

24. 귀하의 아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을 수검하셨습니다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여부
1) 1차 검진(생후 14~35일)	① 예 ② 아니오
2) 2차 검진(생후 4~6개월)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주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대별 주양육자]

25. 평일 오전 7시에서 밤 11시까지 아기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1시간 간격으로 기입합니다.)

※ 기준일은 방문 전날이며, 방문날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인 경우 전 주 금요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중 평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아이가 잠자는 경우 해당시간에 돌봐주는 양육자 기입)
기준일: 2022년 월 일 (요일)

<보기> 01) 아기의 어머니 02) 아기의 아버지 03) 조부모 04) 기타 친인척 05) 어린이집 06)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07) 비혈연 육아 인력(공공 육아 도우미-아이돌보미 등) 08) 비혈연 육아 인력(사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등)			
시각	번호	시각	번호
07:00~08:00		15:00~16:00	
08:00~09:00		16:00~17:00	
09:00~10:00		17:00~18:00	
10:00~11:00		18:00~19:00	
11:00~12:00		19:00~20:00	
12:00~13:00		20:00~21:00	
13:00~14:00		21:00~22:00	
14:00~15:00		22:00~23:00	

[교육·보육·육아지원서비스 비용]

26. (25번 문항에서 03 ~ 08 선택 시) 자녀돌봄(교육·보육)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래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정부지원금은 제외한 비용만 응답함.

구분	1) 비용 발생 여부 자녀돌봄(교육·보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2) 월평균 비용*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조부모	① 예(→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 평균 () 만원
기타 친인척	① 예(→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 평균 () 만원
어린이집	① 예(→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 평균 () 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① 예(→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 평균 () 만원
공공 육아 도우미-아이돌보미	① 예(→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 평균 () 만원
사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① 예(→ 2)로 이동) ② 아니오	월 평균 () 만원

* 0.5단위로 입력 가능 (예: 2만5천원인 경우 → 2.5 입력)

다음은 양육지원에 대한 문항입니다.

[공동양육 참여]

27. 현재 아기 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 한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 비해당

[사회적 지원 인원]

28. 귀하가 아기를 돌보는 데 있어 아기를 잠깐 맡아주는 등 자녀양육을 직접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배우자 제외, 주기적으로 돌봄을 맡아 사례를 드리는 경우 제외)

① 예 (→ 28-1로 이동)

② 아니오 (→ 29로 이동)

28-1. 도와주는 사람의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사회적 지원 정도]

29.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에 응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집안 기쁨사예 서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가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 닥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평균가구소득]

30.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

월 평균 실 수령 가구소득 _____ 만원

30-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 |
|-----------------|------------------|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만원 ~ 200만원 |
| ③ 201만원 ~ 300만원 | ④ 301만원 ~ 400만원 |
| ⑤ 401만원 ~ 500만원 | ⑥ 501만원 ~ 600만원 |
| ⑦ 601만원 ~ 700만원 | ⑧ 701만원 ~ 800만원 |
| ⑨ 801만원 ~ 900만원 | ⑩ 901만원 ~ 1000만원 |
| ⑪ 1001만원 이상 | |

[부채 여부 및 부채액], [부채 월 상환액]

31. 귀 닥의 갚아야 할 부채(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와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이 있다면, 얼마입니까?

구분	금액
1) 부채	총 () 만원
2) 월 상환금	총 () 만원

[월평균가구지출]

32.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또한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자녀 교육·보육비 등은 얼마인지 아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1) 가구 전체의 총 지출 *		월 평균 () 만원
2) 항목별 지출	2-1) 식비(식료품,음료,외식 등)	월 평균 () 만원
	2-2) 주거비(집세,수도,광열 등)	월 평균 () 만원
	2-3) 보건의료비(병원,약구매비 등)	월 평균 () 만원
	2-4) 자녀 교육·보육비 (어린이집,시간제보육,문화센터 등)	월 평균 () 만원
	2-5) 그 외	월 평균 () 만원

* 식비(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외식 등), 의류·신발 구입비, 주거비(집세, 수도, 광열 등), 가정용품·가사서비스(세탁 등) 비용,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문화비(장난감, 서적 등), 교육비, 기타상품·서비스(이·미용, 보험 등),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비용(부모님 용돈 등), 종교단체 기부금, 단체회비 등

32-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닥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 |
|-----------------|------------------|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만원 ~ 200만원 |
| ③ 201만원 ~ 300만원 | ④ 301만원 ~ 400만원 |
| ⑤ 401만원 ~ 500만원 | ⑥ 501만원 ~ 600만원 |
| ⑦ 601만원 ~ 700만원 | ⑧ 701만원 ~ 800만원 |
| ⑨ 801만원 ~ 900만원 | ⑩ 901만원 ~ 1000만원 |
| ⑪ 1001만원 이상 | |

[기초생활보장 급여]

33. 조사일 기준, 귀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급여의 수급여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가구원 중 일부수급 포함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문33의 경우 조사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급여의 수급여부를 질문: 가구원 중 일부라도 수급인 경우는 “예”로 응답

[차상위 여부]

34. 조사일 기준, 귀 가구의 차상위계층 여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함

① 차상위계층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 점유형태]

35. 현재 살고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가 | ② 전세 |
| ③ 전·월세(보증부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 ⑤ 무상(사택, 관사 및 친인척 소유 주택 포함) | ⑥ 기타 (_____) |

[주거 유형]

36. 현재 귀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③ 연립주택(빌라, 다세대주택 포함) ④ 다가구주택
⑤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상가 또는 사무실 안쪽) ⑥ 오피스텔
⑦ 임시막사 ⑧ 기타 ()

[도시규모]

37. 현재 사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시기]

38. 귀하는 현재 사시는 동네로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현거주지 거주 이유]

3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정할 때 가장 고려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근무지와의 거리 ② 돌봄 제공자(조부모, 친척 등)와의 접근성
③ 주거 비용 ④ 보육 시설 및 환경
⑤ 기타 ()

[반려동물 여부]

40. 귀 댁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웁니까?

- ① 키움 ② 키우지 않음

[주거 공간]

41. 아기는 개인 방이 있습니까?

 개인 방: 혼자만 사용하는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 ① 예, 개인 방이 있음 ②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주거 면적]

42-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을 제외하고 건물의 연면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 공급면적을 평수와 m^2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평 혹은 () m^2

[주거지 방 개수]

42-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 방의 수는 거실(대청마루), 부엌, 식당(부엌에 딸린 식당 포함)을 제외한 방의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개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43.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개별 질문에 대해 귀하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보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치안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 도서관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인도와 도로주변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시장, 마트, 슈퍼마켓 같은 기본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은행, 병원 같은 기본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양육 환경 만족도]

44.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지 않음 ② 대체로 좋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좋음 ⑤ 매우 좋음

[유치원, 보육시설, 기타 기관]

45.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유치원, 보육시설, 기타 기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개별 질문에 대해 귀하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보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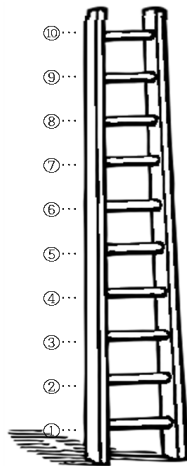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렇함	매우 그렇함	잘 모름
1)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히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제외)이 충분히 있다. ※ 놀이학교는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별도의 실외 놀이터 없이 4세(만 3세) 이하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①	②	③	④	⑤	⑨
3)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다.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학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①	②	③	④	⑤	⑨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46.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이 사다리의 제일 위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최고로 선망 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재산이 가장 적으며, 교육도 가장 적게 받았고, 가장 선망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육아지원정책별 평가]

47.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중 현금 및 현물/바우처와 관련된 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각 정책별로 귀하의 이용여부, 만족도, 중요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종류	이용 여부	만족도	중요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현금	1) 아동수당			
	2) 영아수당	영아수당(현금)		
		보육료(이용권)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		
	3) 양육수당	③		
	4) 출산급여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현물/ 바우처	6) 근로장려세제			
	7) 자녀장려세제			
	1) 첫 만남 이용권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 아이돌봄지원사업			
	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아동수당**: 만 8세(95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 **영아수당**: 만 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하는 제도 (2022년생부터 해당)
- ※ **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2022년생은 24개월부터 지원 대상이므로, 올해는 해당하지 않음)
- ※ **출산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가를 유급으로 9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 ※ **배우자 출산급여**: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가를 유급으로 1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 ※ **근로장려세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 ※ **자녀장려세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 **첫 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200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진료비, 약제 또는 치료재료 구입비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 2022년 기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일반 임신부는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까지 지원하고 있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 ※ **아이돌봄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의 이용 비용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게 연 840시간 이내에서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매를 위한 바우처(월 15만원)를 지급하는 것

K-IT-HOME (상세 문항 생략)

[가정환경의 질(K-IT-HOME)]

48. (조사원이 직접 작성함)

(이분형 척도로 응답(1=예, 0=아니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상세 문항 생략)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이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후원하에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것입니다.

49. 각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표기해 주십시오.

잘 할 수 있다 ③

할 수 있는 편이다 ②

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전혀 할 수 없다 ④

◆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4. 1차년도 조사결과 부표

〈부표 1〉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호흡기 질환

단위: %(명)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23.2	76.8	100.0(2775)	26.8	73.2	100.0(644)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15.3	84.7	100.0(1060)	27.1	72.9	100.0(162)
6개월~7개월	23.9	76.1	100.0(983)	27.9	72.1	100.0(235)
8개월 이상	33.7	66.3	100.0(732)	25.5	74.5	100.0(247)
$\chi^2(df)$	83.21(2)***			0.39(2)		
아동 성별						
남	25.4	74.6	100.0(1423)	28.7	71.3	100.0(361)
여	20.9	79.1	100.0(1352)	24.3	75.7	100.0(283)
$\chi^2(df)$	7.66(1)**			1.58(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부표 2〉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신경계통 질환

단위: %(명)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0.4	99.6	100.0(2775)	16.8	83.2	100.0(10)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0.3	99.7	100.0(1060)	–	100.0	100.0(3)
6개월~7개월	0.4	99.6	100.0(983)	–	100.0	100.0(4)
8개월 이상	0.5	99.5	100.0(732)	52.3	47.7	100.0(3)
$\chi^2(df)$	n.a.			n.a.		
아동 성별						
남	0.3	99.7	100.0(1423)	–	100.0	100.0(5)
여	0.4	99.6	100.0(1352)	30.9	69.1	100.0(6)
$\chi^2(df)$	0.15(1)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부표 3〉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순환계통 질환

단위: %(명)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2.8	97.2	100.0(2775)	8.8	91.2	100.0(77)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3.5	96.5	100.0(1060)	5.5	94.5	100.0(37)
6개월~7개월	2.1	97.9	100.0(983)	19.7	80.3	100.0(21)
8개월 이상	2.6	97.4	100.0(732)	3.0	97.0	100.0(19)
$\chi^2(df)$	3.59(2)			n.a.		
아동 성별						
남	2.7	97.3	100.0(1423)	15.1	84.9	100.0(38)
여	2.9	97.1	100.0(1352)	2.6	97.4	100.0(39)
$\chi^2(df)$	0.12(1)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부표 4〉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소화계통 질환

단위: %(명)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2.9	97.1	100.0(2775)	40.5	59.5	100.0(80)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3.3	96.7	100.0(1060)	54.5	45.5	100.0(35)
6개월~7개월	2.0	98.0	100.0(983)	29.6	70.4	100.0(20)
8개월 이상	3.5	96.5	100.0(732)	29.8	70.2	100.0(25)
$\chi^2(df)$	3.92(2)			4.69(2)		
아동 성별						
남	3.1	96.9	100.0(1423)	48.2	51.8	100.0(44)
여	2.6	97.4	100.0(1352)	30.8	69.2	100.0(35)
$\chi^2(df)$	0.63(1)			2.15(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5〉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피부 질환

단위: %(명)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2	90.8	100.0(2775)	2.4	97.6	100.0(255)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8.4	91.6	100.0(1060)	0.5	99.5	100.0(89)
6개월~7개월	9.7	90.3	100.0(983)	3.3	96.7	100.0(95)
8개월 이상	9.7	90.3	100.0(732)	3.7	96.3	100.0(71)
$\chi^2(df)$	1.29(2)			n.a.		
아동 성별						
남	10.7	89.3	100.0(1423)	3.4	96.6	100.0(152)
여	7.6	92.4	100.0(1352)	1.0	99.0	100.0(103)
$\chi^2(df)$	7.80(1)**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 $p < .01$.

〈부표 6〉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비노생식계통 질환

단위: %(명)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3.0	97.0	100.0(2775)	57.0	43.0	100.0(84)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3.4	96.6	100.0(1060)	48.3	51.7	100.0(36)
6개월~7개월	3.0	97.0	100.0(983)	71.6	28.4	100.0(30)
8개월 이상	2.5	97.5	100.0(732)	50.3	49.7	100.0(19)
$\chi^2(df)$	0.95(2)			4.19(2)		
아동 성별						
남	3.7	96.3	100.0(1423)	56.9	43.1	100.0(53)
여	2.3	97.7	100.0(1352)	57.2	42.8	100.0(31)
$\chi^2(df)$	4.84(1)*			0.02(1)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부표 7〉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사고로 인한 손상

단위: %(명)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0.7	99.3	100.0(2775)	14.2	85.8	100.0(21)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0.9	99.1	100.0(1060)	9.7	90.3	100.0(10)
6개월~7개월	0.8	99.2	100.0(983)	19.4	80.6	100.0(8)
8개월 이상	0.4	99.6	100.0(732)	15.0	85.0	100.0(3)
$\chi^2(df)$	1.71(2)			n.a.		
아동 성별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남	0.8	99.2	100.0(1423)	11.7	88.3	100.0(11)
여	0.7	99.3	100.0(1352)	17.1	82.9	100.0(9)
$\chi^2(df)$	0.11(1)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부표 8〉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여부_악제나 유해 물질 중독

단위: %(명)

구분	방문 여부			입원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0.2	99.8	100.0(2775)	-	100.0	100.0(4)
아동 월령						
5개월 이하	0.3	99.7	100.0(1060)	-	100.0	100.0(4)
6개월~7개월	0.1	99.9	100.0(983)	-	100.0	100.0(1)
8개월 이상	-	100.0	100.0(732)	-	-	-
$\chi^2(df)$	n.a.			n.a.		
아동 성별						
남	0.1	99.9	100.0(1423)	-	100.0	100.0(1)
여	0.2	99.8	100.0(1352)	-	100.0	100.0(3)
$\chi^2(df)$	n.a.			n.a.		

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주양육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n.a.로 표기함.

〈부표 9〉 부모의 최근 7일 내 간접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계(수)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계(수)
전체	12.5	87.5	100.0 (1571)	12.8	87.2	100.0 (2471)
아버지/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8.4	91.6	100.0 (13)	27.4	72.6	100.0 (51)
25~30세 미만	14.1	85.9	100.0 (102)	13.7	86.3	100.0 (297)
30~35세 미만	15.3	84.7	100.0 (492)	11.7	88.3	100.0 (1127)
35~40세 미만	9.8	90.2	100.0 (627)	12.6	87.4	100.0 (787)
40세 이상	13.4	86.6	100.0 (331)	14.8	85.2	100.0 (209)
$\chi^2(df)$	8.342(4)			12.054(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4.8	85.2	100.0 (355)	17.2	82.8	100.0 (545)
301~500만원	12.6	87.4	100.0 (768)	11.3	88.7	100.0 (1239)
501~700만원	12.4	87.6	100.0 (286)	12.9	87.1	100.0 (434)
701만원 이상	7.4	92.6	100.0 (162)	10.7	89.3	100.0 (253)
$\chi^2(df)$	5.681(3)			13.162(3)**		

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 아버지/어머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Korean ECEC Panel Stud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